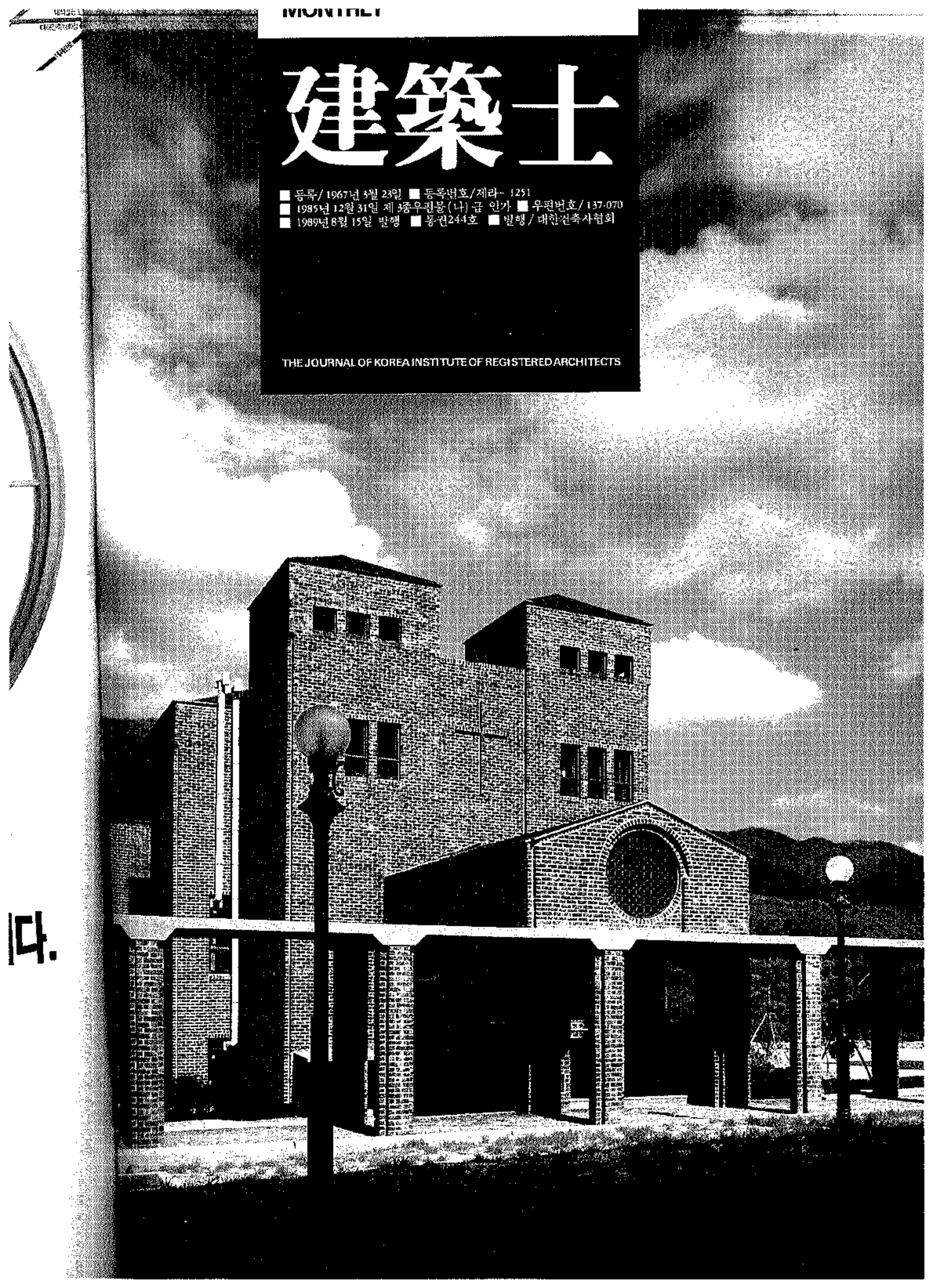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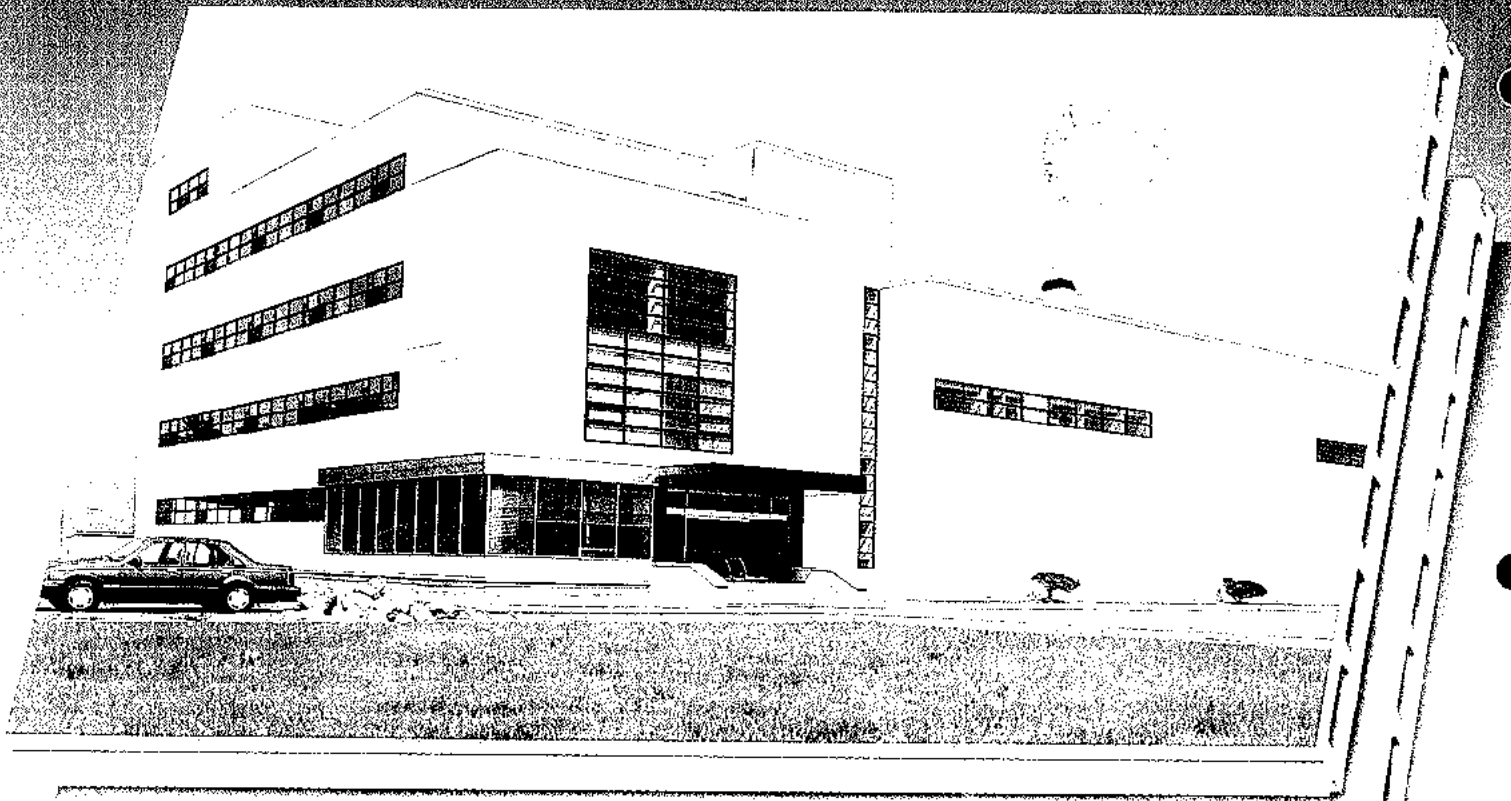


建築士

■ 등록 /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 제라- 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우편물(나) 급 인가 ■ 우편번호 / 137-070
 ■ 1989년 8월 15일 발행 ■ 통권 244호 ■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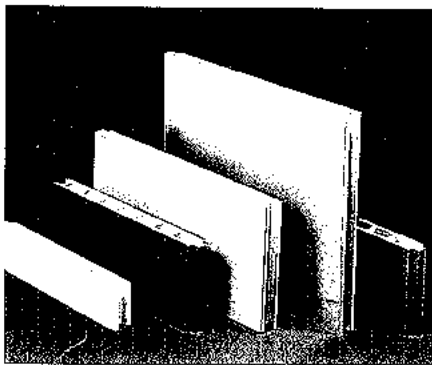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건일약품 GMP 공장 • 설계·감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물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고려엔의 처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전문시공업체/고려엔지니어링 844-0942, 2728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44호
구입년월일	1989. 8. 26.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제 4 회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공모

본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새로운 풍토조성과 장래를 이끌어 나갈 후진양성을 위해 '86년 이래 매년 신인·학생건축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역량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후진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본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신인·학생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이고 수준높은 작품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公募要綱

■ 공모주제

- 신인
 - 공동주택 : 가급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 내부가변성, 초고층, 중복도형, H형 등
 - 에너지 절약형과 대체형 단독주택 : 연면적 150m²이하
- 학생
 -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 대지면적 165m²이하, 연면적 50m²~66m²이하

■ 응모자격

- 신인 :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 시상

- 신인 : 금상(1) 150만원, 은상(1) 100만원, 동상(1) 50만원, 장려상(다수) 30만원, 가작(다수)
- 학생 : 금상(1) 100만원, 은상(1) 70만원, 동상(1) 50만원, 장려상(다수) 30만원, 가작(다수)

■ 출품요령

- 패널규격 : 120cm×180cm (가로×세로, 규격엄수)
- 출품내용 : 1 작품당 패널 1개 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 출품인원 : 1 작품당 3인이내
- 응모신청 및 출품기간 : 1989. 8. 28(월)~31(목) 18:00
- 출품장소 : 본협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사무국
- 기타 : 모형은 접수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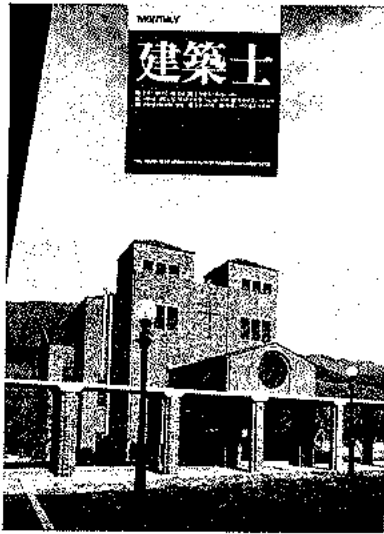
■ 심사발표 : 1989. 10월 중

■ 심사위원 : 건축계의 권위자로 위촉하며 그 명단은 수상작 발표와 함께 함.

■ 전시기간 : 1989년 10월~12월

■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에서 '89 건축사 설계 작품순회전과 병행하여 전시

■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서초구 서초동 1603-55
(전화 : 581, 5711~4)



표지사진: 公日坤+文炳國 作
미리내 수도원 및 성당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卞 鎔, 徐千植

委員: 尹錫祐, 趙聖烈, 閔庚民, 董政根,
姜哲求, 姜聲益, 崔正一,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 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 69 / 72(054-2) : 0612(519)

印刷人: 全允奎 (沈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Vice Chairman: Byun, Yong / Suh, Chun-Sik

Member: Yun, Suk-Woo Choi, Jeong-Il
Cho, Sung-Yul Kim, Joo-Cheol

Min, Kyung-Min

Dong, Jeong-Keun

Kang, Chul-Koo

Kang, Sung-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차 례

1989년 8월호(통권244호)

이달의詩

- 6 목계장터.....申庚林

會員作品

- 7 미리내 수도원 및 성당.....公日坤+文炳國
12 전국대 상허기념도서관.....張錫雄
16 화폐 박물관.....尹錫祐
20 반포동 P씨댁.....宋光燮

읽하며 생각하며

- 22 三伏有感.....崔昌奎

境 言

- 24 건축허가와 그 절차의 개선방안.....李在玉

批 評

- 26 공항터미널을 바라보는 建築文化的 視点.....金洪基

研 究

- 32 한국의 전통건축 圖/統一新羅의 建築.....張慶浩
36 타아소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관하여.....尹張燮外
46 건축형태의 이론 Ⅵ/ 건축형태의 리듬.....金光鉉
56 호텔건축의 공간구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I).....全東勲

特輯 / 한국의 현대 종교건축

- 64 교회건축의 일회성.....金仁喆
67 한국교회건축의 문제점.....崔東奎
69 충현교회.....崔煥+崔東奎
72 남해성당.....鄭求殷
74 동명교회.....金仁喆
76 논현동성당.....金瑛燮
78 임마누엘교회.....韓忠國

建築記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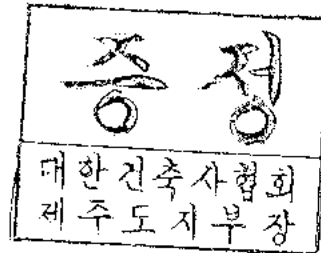
- 80 구라파를 향하여.....崔相炫

- 86 6월분 도서신고 현황

- 89 資 料

- 92 協會消息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ugust 1989, Vol. 244

CONTENTS

- 6 **POEM** Shin, Kyung-Lim

WORKS

- 7 Mirinea Missionary Gong, Il-Kon & Moon, Byung-Kook
12 Sanghea Memorial Library the Konkuk University Chang, Suk-Woong
16 Monetary Museum Yoon, Suck-Woo
20 Baapo-Dong P's Residence Song, Kwang-Sub

- 22 **ESSAY** Choi, Chang-Kyu
24 **SUGGESTION** Lee, Jae-Ok

CRITICISM

- 26 View Point of Architectural Culture in Korea City Air Terminal
..... Kim, Hong-Kie

REPORT

- 32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Chang, Kyung-Ho
36 Architectural Planoning and Design of Day-Care Center Yoon, Jang-Seob etc.
46 Rhythm in Architectural Form Kim, Kwang-Hyun
56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gram of City
Hotels in Korea Jun, Dong-Hoon

SPECIAL ISSUE / Religion Architecture

- 64 The Unique Style of Religion Architecture Kim, In-Cheul
67 The Problem of Religion Architecture Choi, Dong-Kyu

WORKS

- 69 Choonghyun Church Choi, Whan & Choi, Dong-Kyu
72 Namhea Catholic Church Chung, Koo-Eun
74 Dongmyung Church Kim, In-Cheul
76 Nonhyun-dong Catholic Church Kim, Young-Sub
78 Immanuel Church Han, Choong-Kuk

ARCHITECTURAL TRAVELS

- 80 Travels to Europe Choi, Sang-Hyun

MATERIALS

KIRA NEWS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초기초건축1603-55 /
581-5715-8

사대공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16 / 333-6411

관악분소 / 관악구인원동1422-17 /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상대동317-4 /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5 / 695-0787

성동분소 / 성동구구로동252-16 /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 923-62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201-1 /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노화동250-4 /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 423-9158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11-2 / 252-6507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 712-7647

시흥분소 / 시흥구서초1동1623-1 /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농진동79-32 / 352-6720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147-79 / 599-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장계1동1049-79 / 900-1947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 646-7172

중랑분소 / 중랑구망우동516-41 / 491-0925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410 /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동구동관동1가1 (부산대터널)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별어동3가1-8 /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 / (062) 224-7598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37-1 /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곡로3가124-5 /
(0331) 47-6129

경남분소 / 경남도수원시매곡로3가1-8 / (0331) 42-6490, 707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정동5512 / (0342) 2-5445

화성분소 / 화성시서원동182 / (0351) 2-1083

충남분소 / 충남시신정동21 /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읍주교로38보력16코트 / (0344) 63-8902

구미분소 / 구미시수택동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중리216-8 /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 6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 82-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속천동9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 /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468-66 / (0392) 2-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 (0397) 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1리959-35 / (0372) 2-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영천동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동동8-8 / (0443) 2-6253

속천분소 / 속천읍은암삼거리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신시중구대동동437-1 /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 문화동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정리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중리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 (대륙빌딩 508)
(0552) 3-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동1가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가85 / (0654) 2-4050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귀포정동783-23 (추진회관)
(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호남동1 / (0631) 2-5152

순천분소 / 순천시정현동85-7 / (0661) 2-7545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1번지 / (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대동동1가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96-70 / (0562) 74-9713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100-1 / (0561) 3-7743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355-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문동29-5 / (0571) 2-6635~6

간성분소 / 간성시원화동280-1 /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4동470-17 / (0572) 2-4506

김천분소 / 김천시정촌동261-2 / (0581) 2-2706

황주분소 / 황주시남성동11-3 /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 /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5 / (0522) 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 (0591) 2-6403, 42-3434~5

창주분소 / 창주시서호동177-101 / (0557) 2-2504, 2-7420

강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392-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행리5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고현리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1동1289-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8 / (064) 62-2233, 32-7777

목계장터

申庚林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 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끓여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申庚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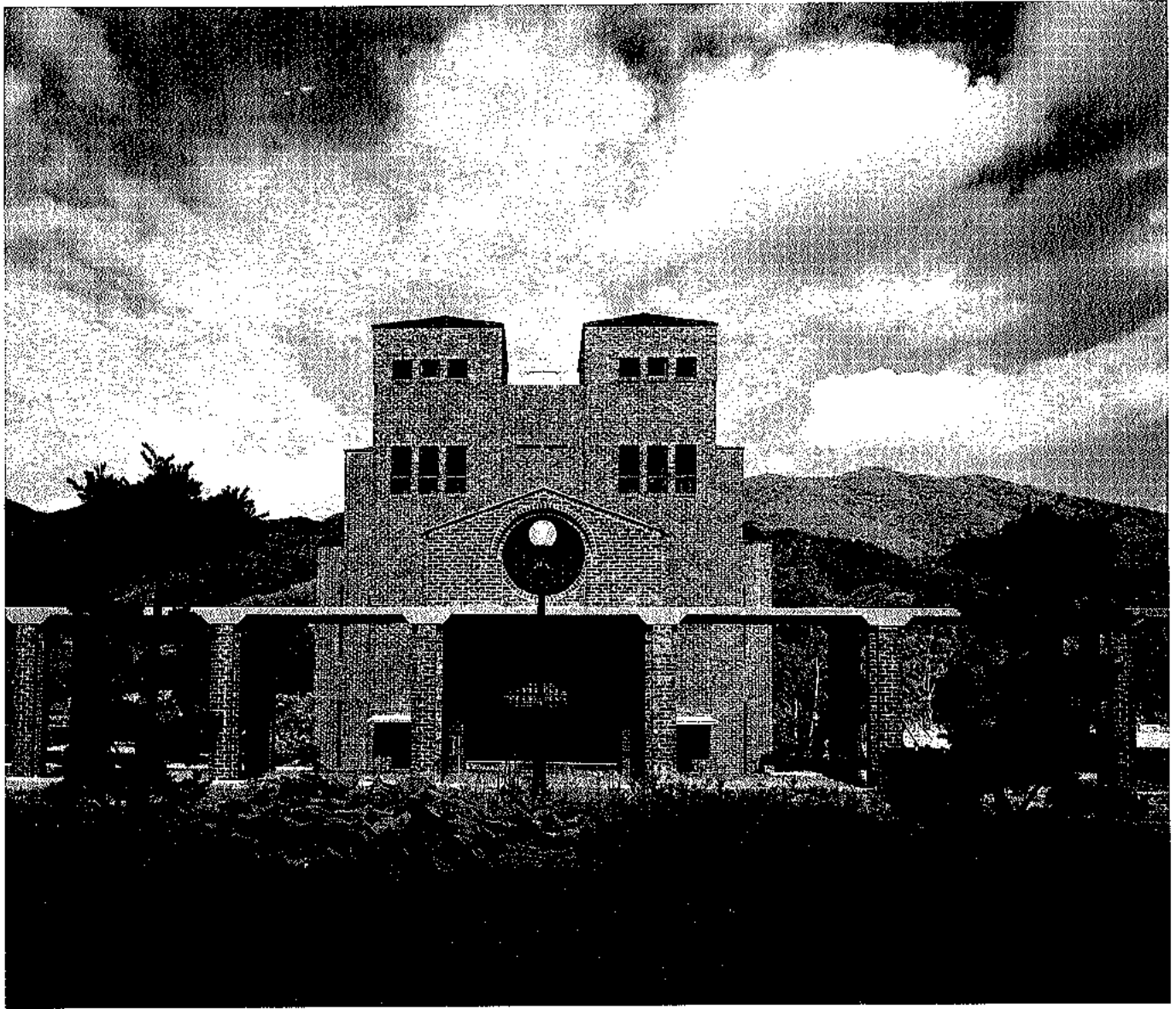
○ 1935년 忠北 忠州 출생, 東國大學 졸업
○ 55년 『文學藝術』을 통해 문단에 나옴
○ 詩集 『塵舞』 (73)
○ 萬海文學賞 (74) 수상

미리내 수도원 및 성당

Mirinea Missionary

公日坤+文炳國 / 향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Gong, Il-Kon & Moon, Byung-K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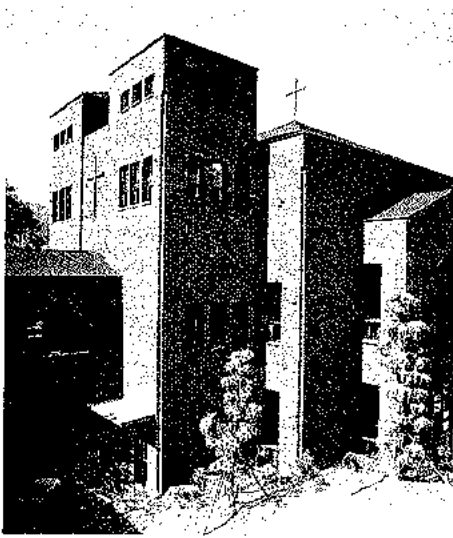


성당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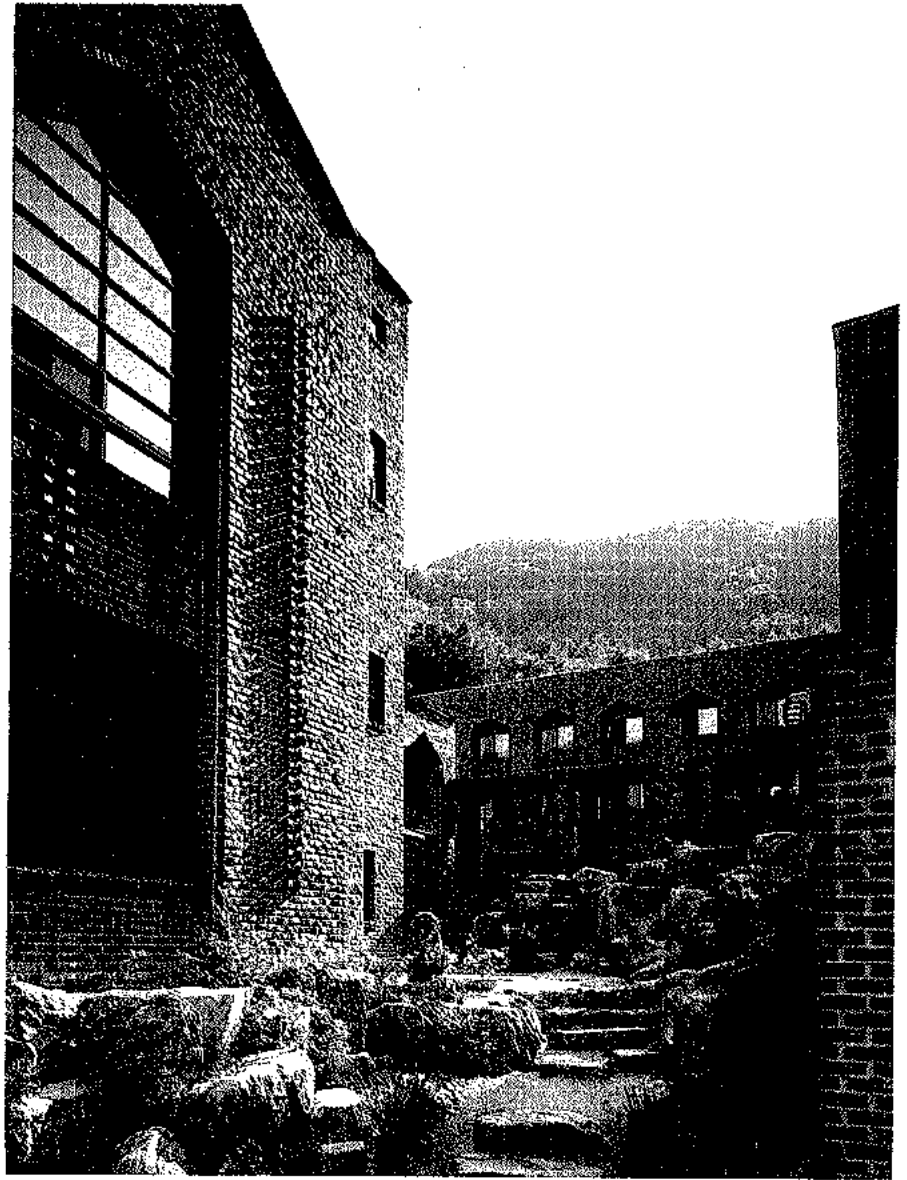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군 미리내 성지내
(성모 성심 수도회 미리내 수도원 및 성당)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및 별도차고
건축면적 / 1,480m²
연면적 / 3,450m²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지붕 / 천연스레이트 및 스라브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착공 / 1987. 10
준공 / 1989. 5

미리내 수도원 및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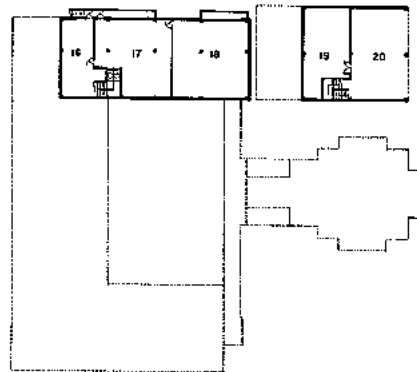
Mirinea Missionary



성당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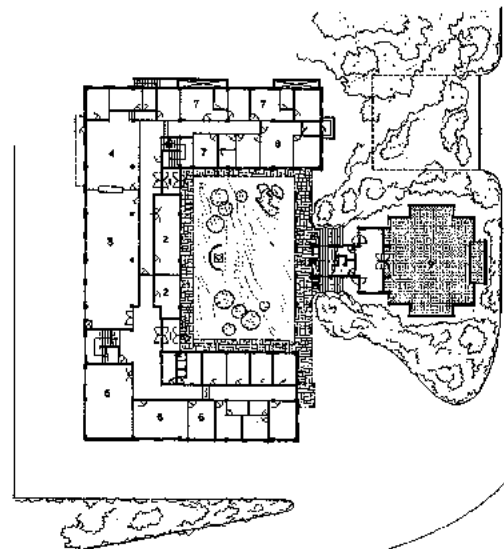


성당쪽에서 수도원쪽으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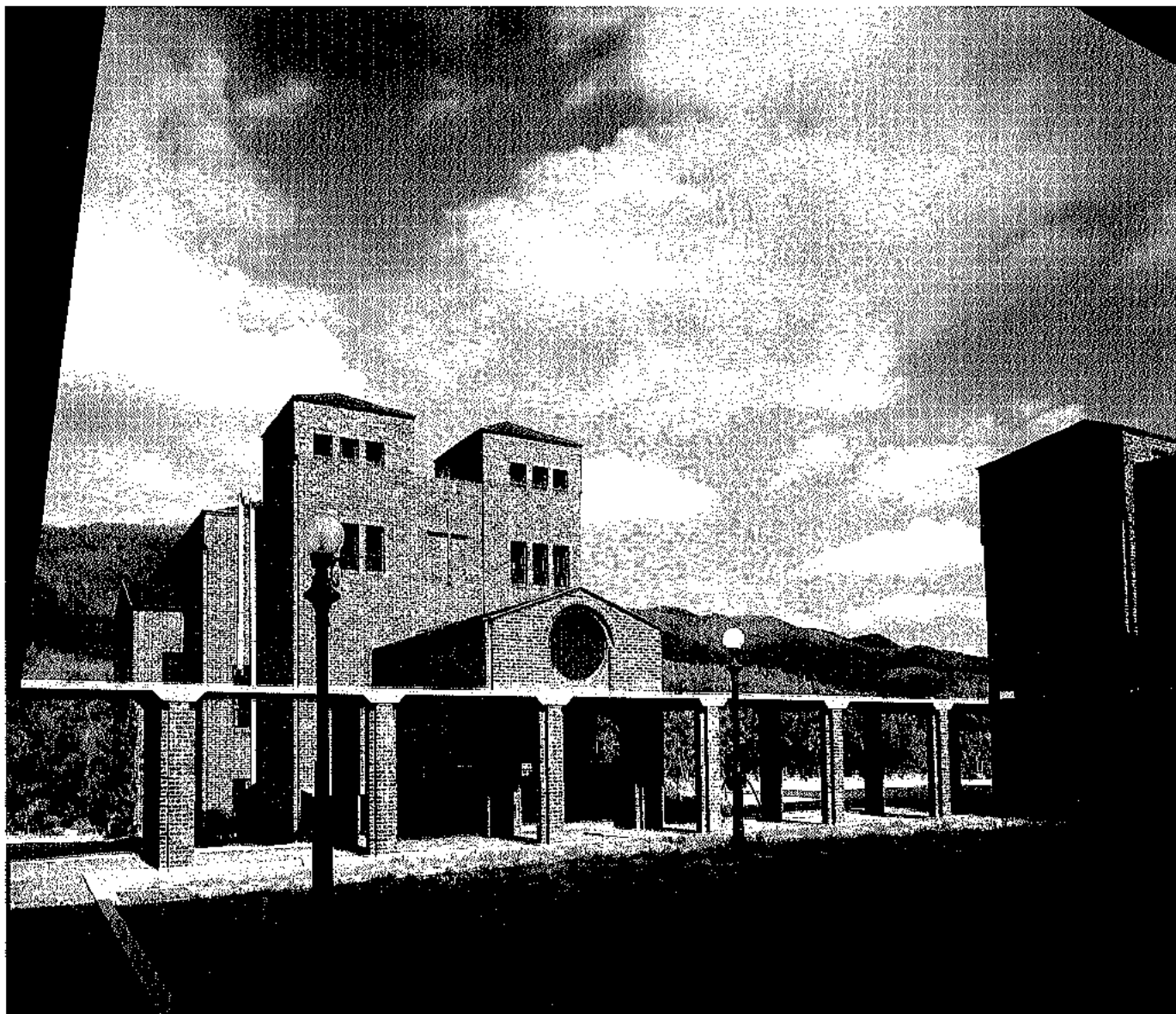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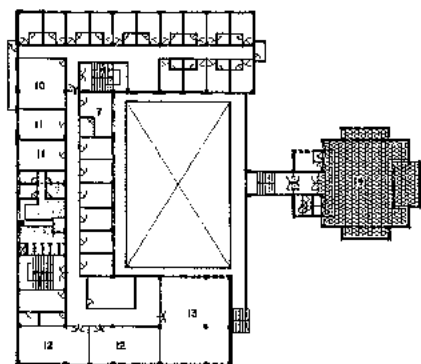
- | | | |
|-----------|-------------|---------|
| 1. 출입부 | 5. 소성당 | 9. 대강당 |
| 2. 사무·관리실 | 6. 응접, 대기실 | 10. 공통실 |
| 3. 식당 | 7. 지도·관리신부실 | 11. 수련실 |
| 4. 주방 | 8. 원장실 | 12. 강의실 |



배치 및 1층평면도



중정에서 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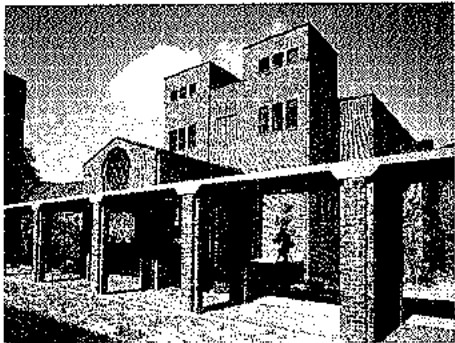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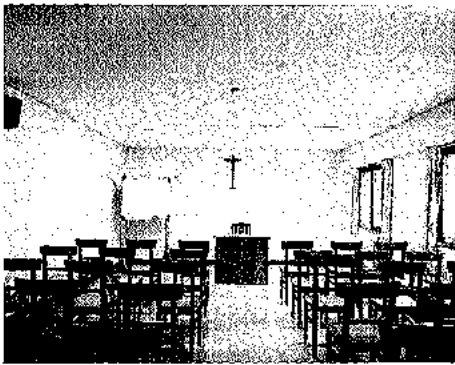
13. 도서실 16. 세탁실 19. 창고
14. 성당 17. 작업실 20. 차고
15. 성가대석 18.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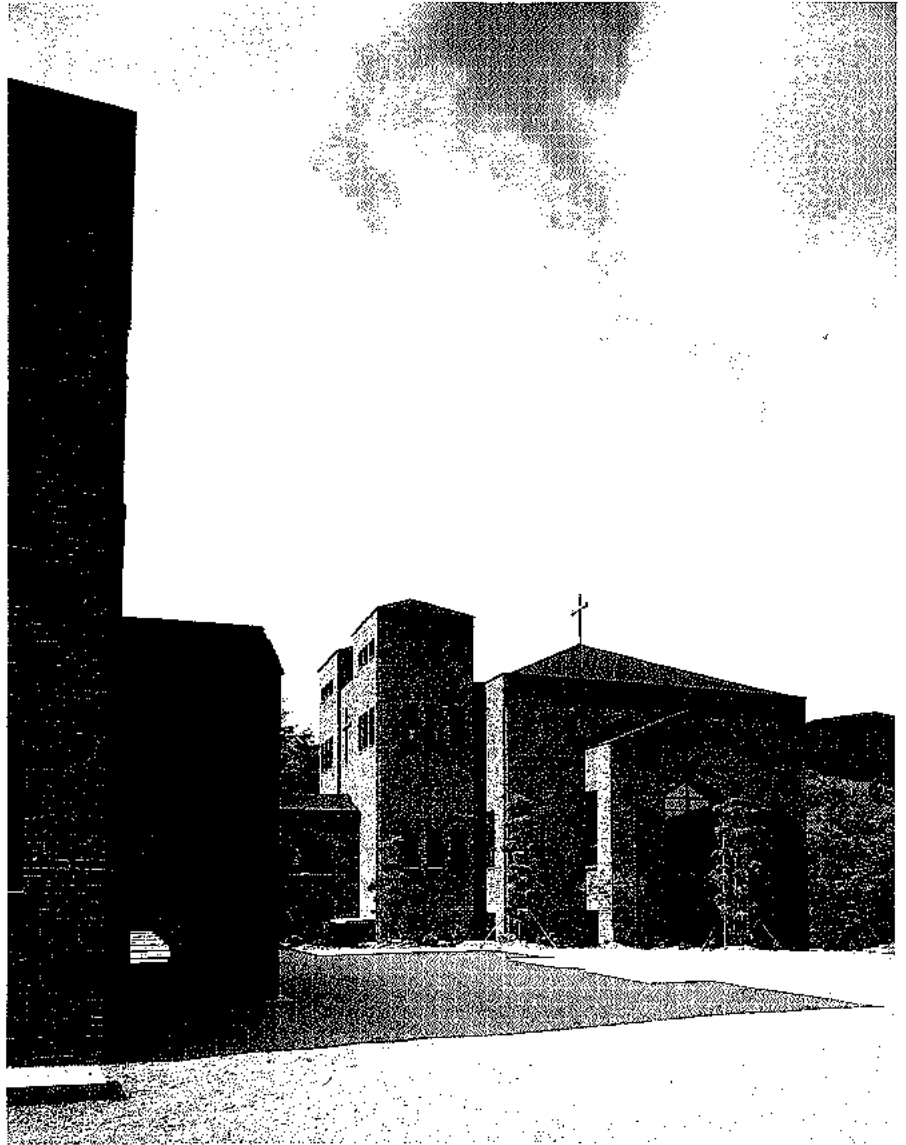
남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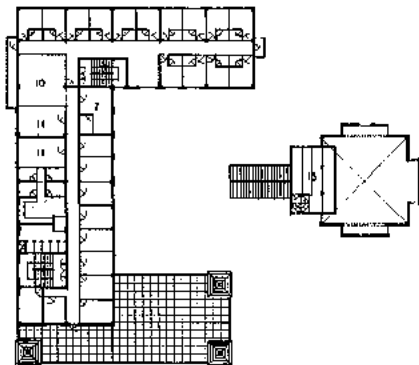
성당



2층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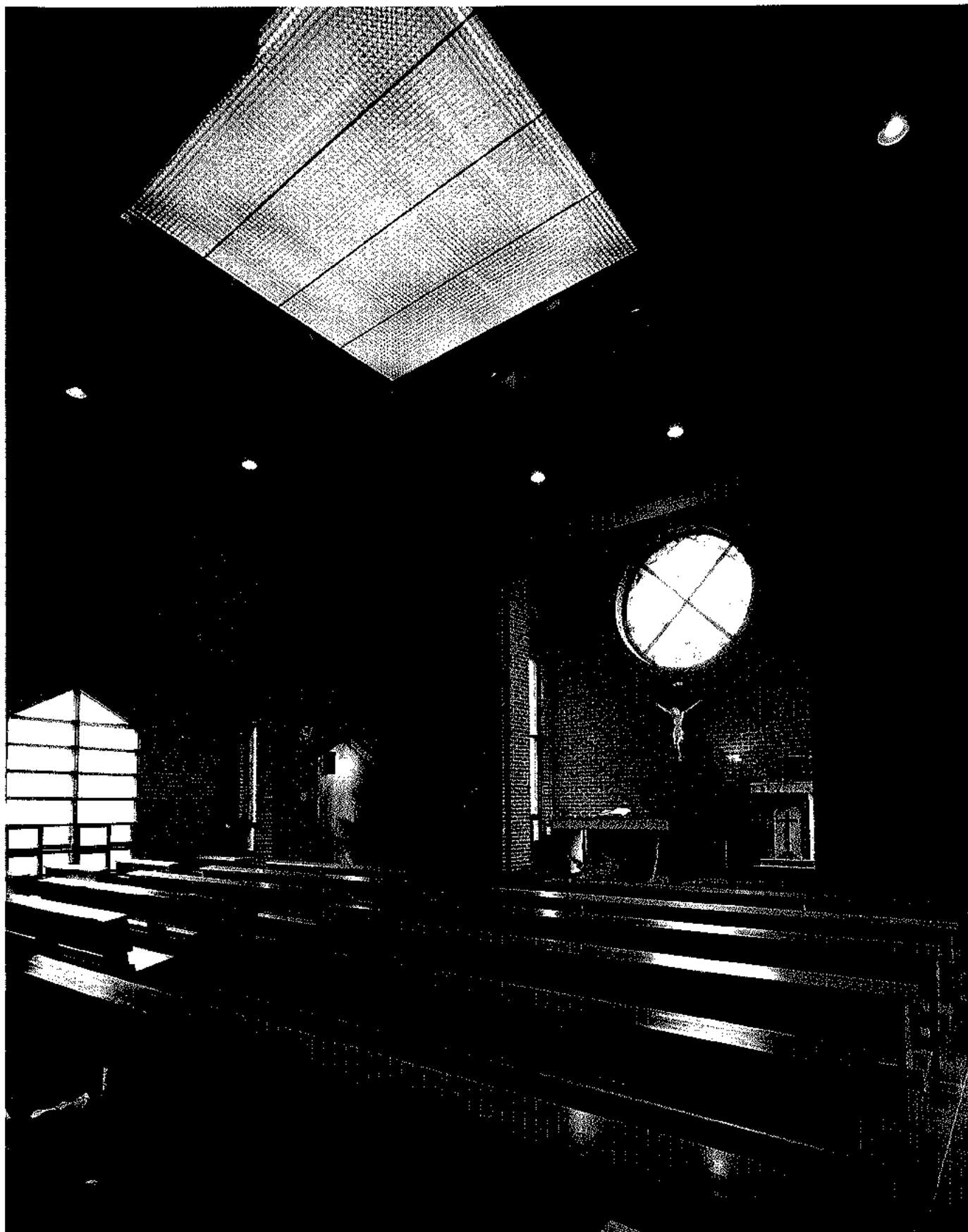
측면



3층 평면도



옥탑에서 내려다 본 전경



성당내부 전경

전국대 상허기념 도서관

Sanghuh Memorial Library of the Konkuk University

張錫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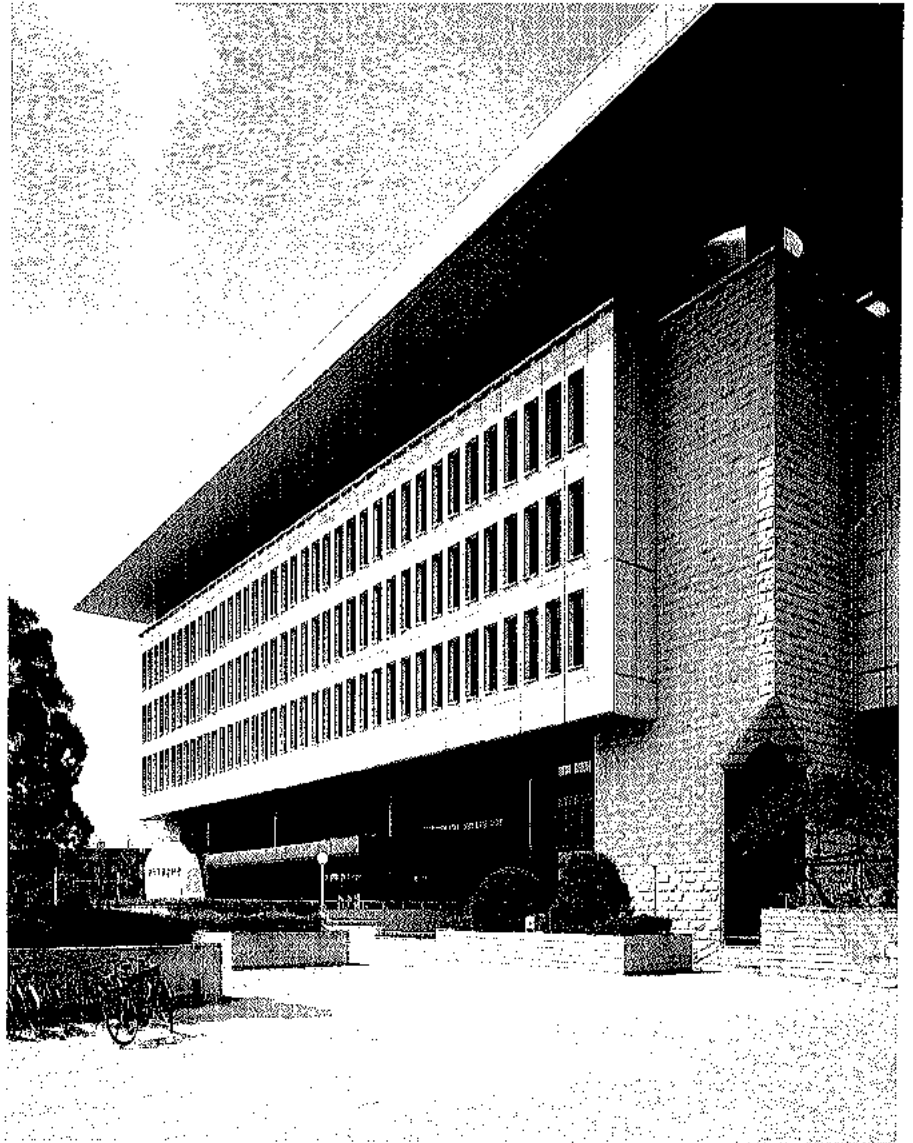
Designed by Chang, Suk-Woong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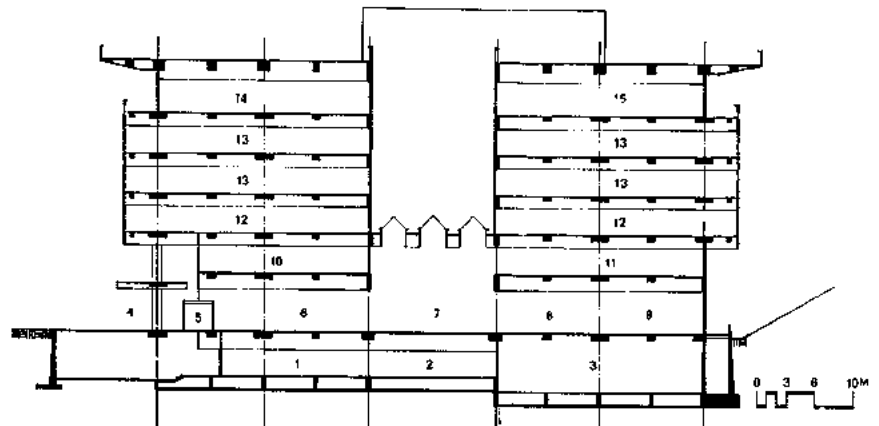
전체의 공간 기능을 “학습도서관”의 기능과 “연구도서관”의 기능으로 2대별하였다. 학습도서관 영역은 학생들을 위한 자유 및 일반열람실 영역이며, 2, 200여석의 열람석 중 620여석의 자유열람실(지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24시간 개방도 가능토록 했다. 연구도서관 영역은 B.D.S를 거쳐 들어가는 각종 자료 영역으로 (2,4,5층)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검색이나 연구를 위한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조용한 연구영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기능공간으로 1층에 지정도서실, 외빈열람실, 2층에 신설하는 마이크로필름 자료실과 4,5층에 7개의 단체열람실, 21개의 교수열람실 그리고 6층의 시청각실 영역에는 50여석의 회화자습실, 20여석의 영상 비디오실, 70여석의 다목적 소극장(음악감상실) 그리고 300여석의 좌석에 동시통역장치(5개국어)를 갖춘 국제회의실이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지하에 160여석의 매점 및 휴게실, 옥외분수대와 벤치, 그리고 각층마다 2개소의 휴게실과 복사실, 2층에는 90여석의 경독서실이 있고 6층에도 4개의 세미나실과 교내 간행물실이 미래의 가변적 욕구에 대비되어 있다.



주출입구측 상세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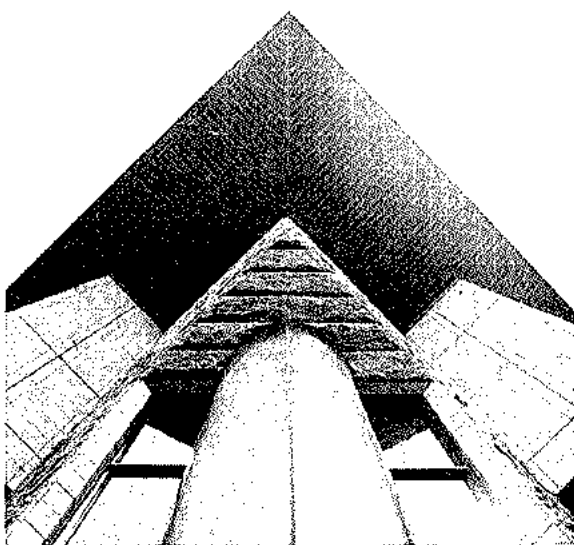
- | | | |
|---------|-------------|-------------|
| 1. 복도 | 6. 한관홀 | 11. 정기간행물실 |
| 2. 열람서고 | 7. 로비 | 12. 자유열람실 |
| 3. 기계실 | 8. 목록실 | 13. 개기열람실 |
| 4. 주출입구 | 9. 지정도서 열람실 | 14. 세미나실 |
| 5. 방풍실 | 10. 참고 열람실 | 15. 교내간행물서고 |

◆
대지위치 / 성동구 모전동 한국대학교내
대지면적 / 25,000m²
건축면적 / 4,489m²
연면적 / 22,135.3m²
건폐율 / 55.9%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Post Tension Waffle구조
모듈 / 6.9m×6.9m→13.8m
외장재 / 화강석+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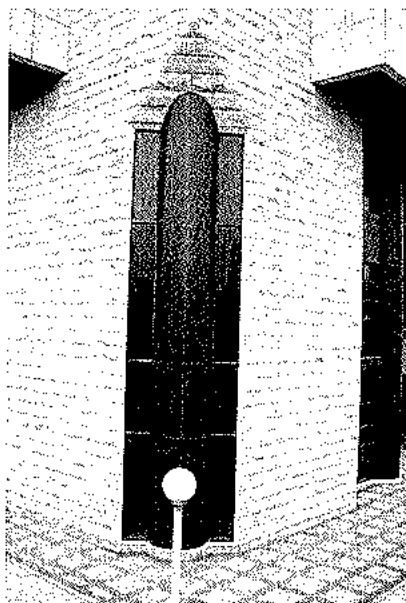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기둥및 처마디테일



주출입구측 선큰가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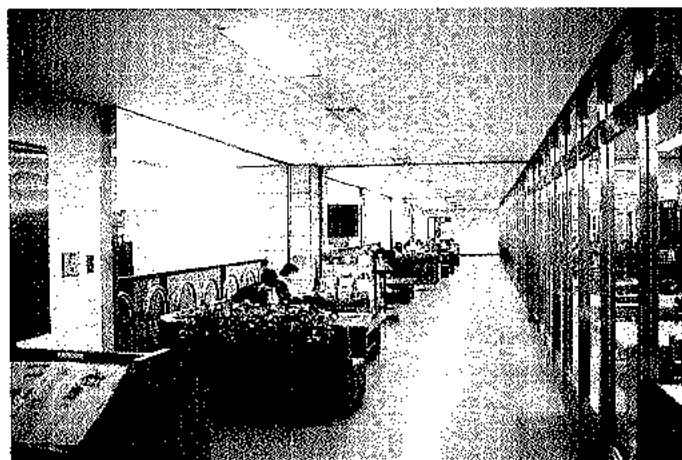
1. 락커총
2. 물
3. 열사실
4. 준비실
5. 쥘게실
6. 남자와장실
7. 여자화장실
8. 대화외실
9. 리셉션실
10. 세미나실 E
11. 시청각자료보관실
12. 시청각자료보관실
13. 융합초점실
14. 용의감상실
15. 교내강연홀보관실
16. 세미나실 A
17. 세미나실 B
18. 세미나실 C
19. 세미나실 D
20. 정교

1. 점교열합설
2. 복사, 제본설
3. 자료보관소
4. 마이크로자료열합설
5. 휴게실
6. 남자화장실
7. 여자화장실
8. 복사실
9. 정기간행물서고
10. 정기간행물실
11. 브라우징코너
12. 학위논문실
13. 그룹스터디실
14. 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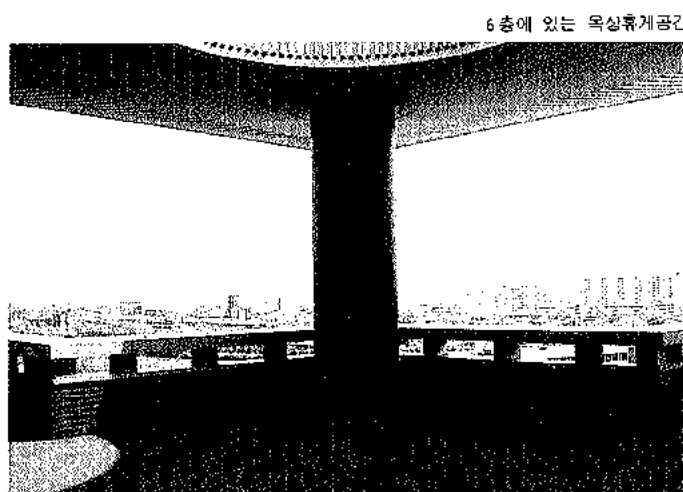
1. 방목실
2. 학관출
3. 전시 및 주계실
4. M·D·S실치
5. 루비
6. 옥목실
7. 종양대출대
8. 열원차 사무실
9. 외래 입합실
10. 직원휴게실
11. 전실
12. 관장실
13. 직원회의실
14. 라키룸
15. 장애인화장실
16. 남자화장실
17. 여자화장실
18. 수사정보과사무실
19. 미장리처
20. 지청도서 서고
21. 복식실
22. 지청도서 열람실
23. 창고



1층로비



2층휴게실과 참고도서실



6층에 있는 옥상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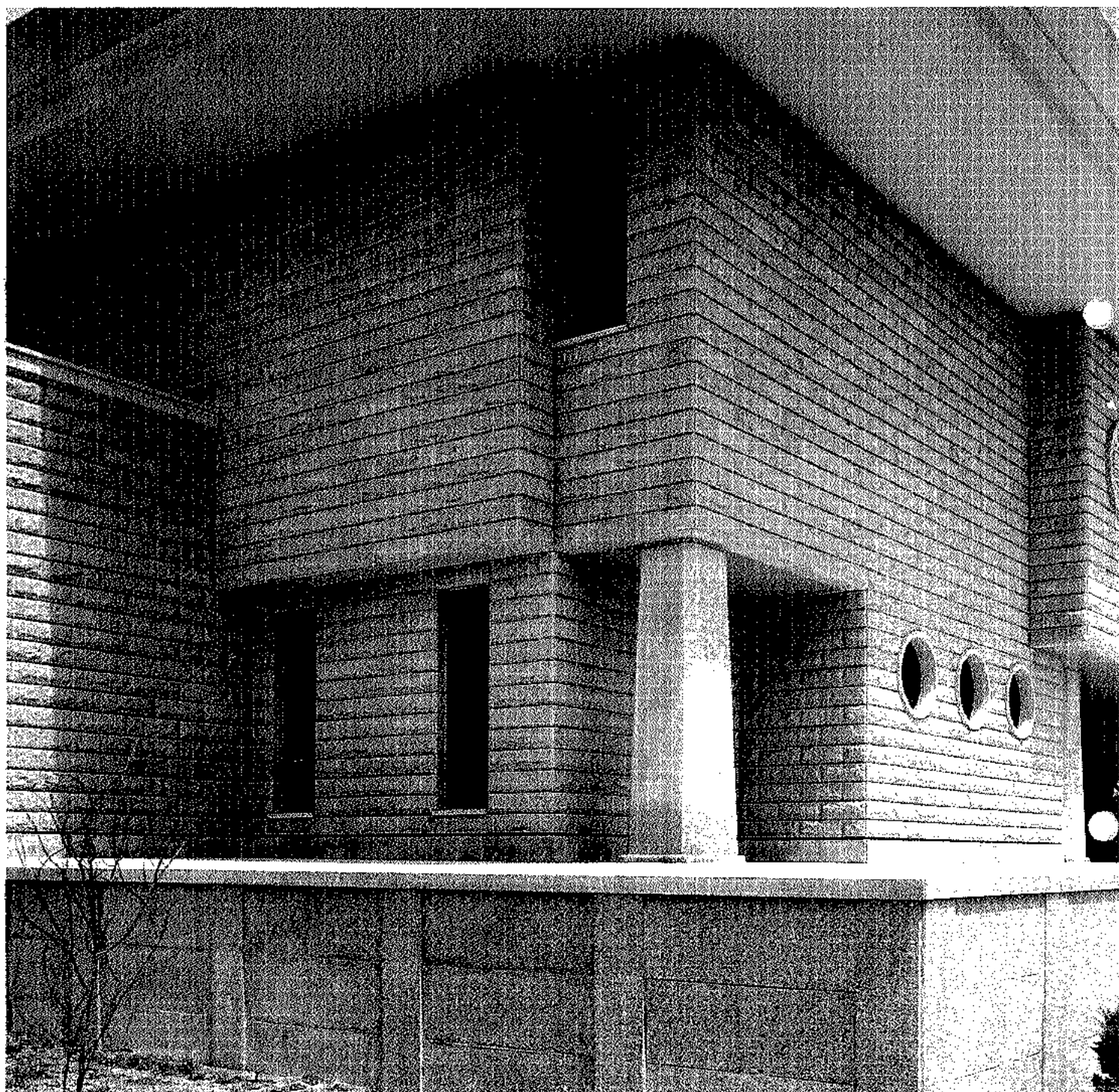
회원작품

화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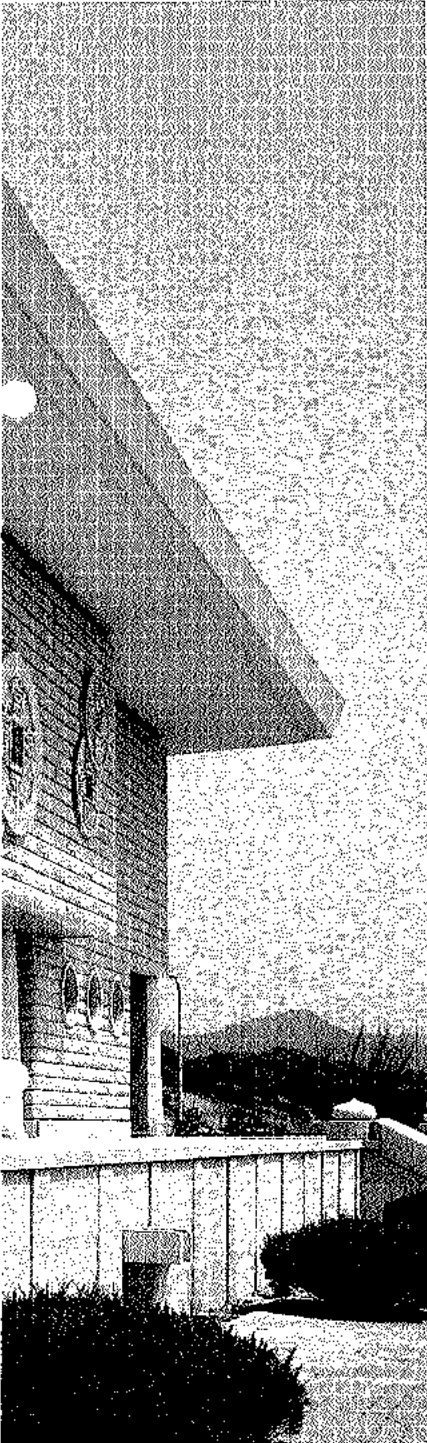
Monetary Museum

尹錫祐 / (주)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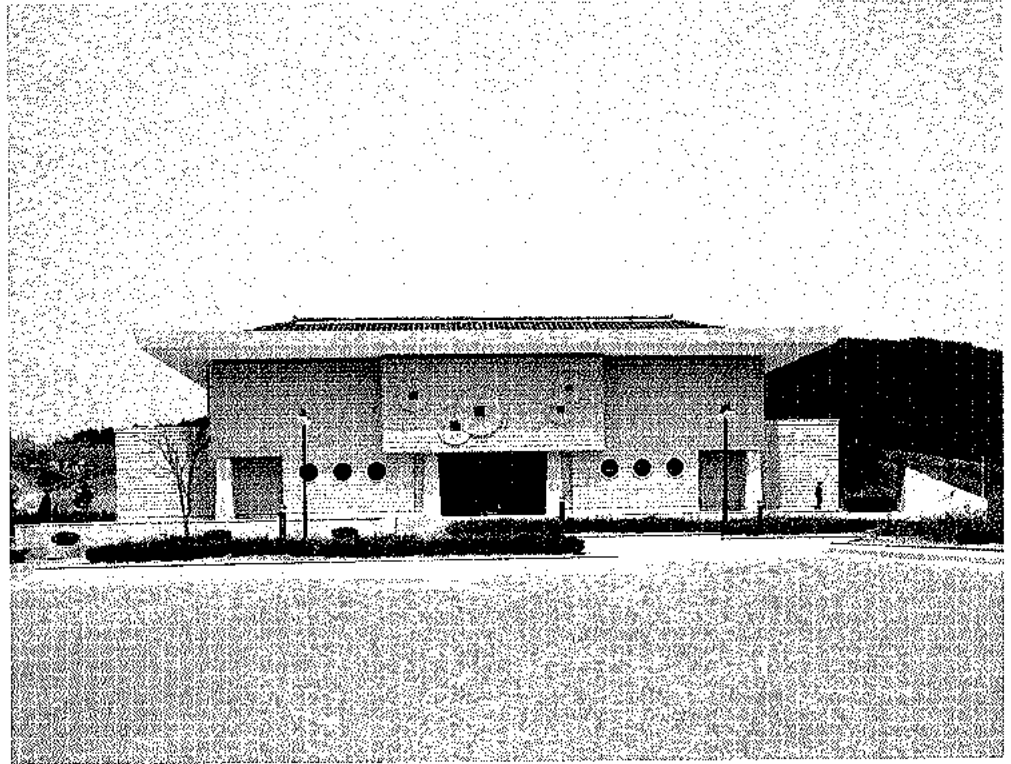
Designed by Yoon, Suck-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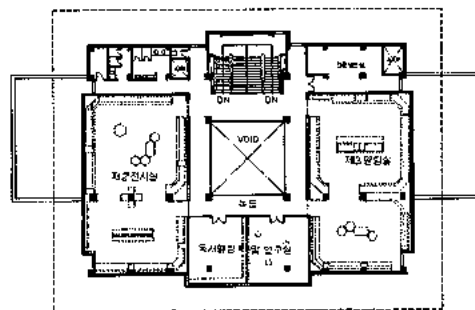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작합시 한국조폐공사内
 건축면적 / 1,082m²
 연면적 / 2,028m²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R.C조, 벽체-화강석
 지붕-한식기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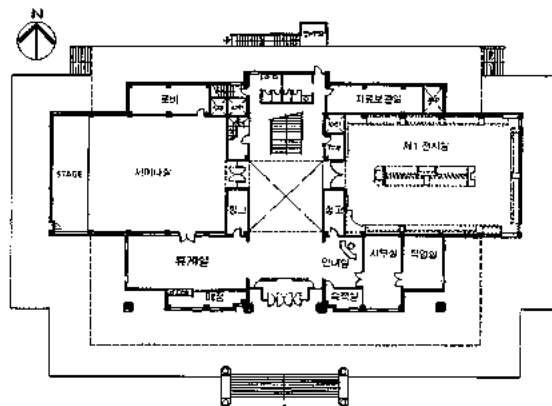
벽면구성상세



점멸주출입구측 전경



2층평면도



1층평면도

0 1 3 5 10 M

설계소요

〈배치개념〉

본사, 기술연구소, 내빈숙소등의 시설과 함께 2만7천여평의 대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박물관이라는 특수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컨셉이 설정되도록 했다. 주출입구에서 본부동에 이르는 강한 진입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전면 광장과 측면 출입구를 두어 독자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해지도록 했고, 내빈숙소와 마주하는 후면에 넓은 광장을 두어 완충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조형개념〉

화폐 박물관이라는 특수박물관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주출입구 상부 벽면을 돌출시켜 전통화폐의 조각을 삽입하고 전면 화단에도 조형물을 축조하여 그 이미지가 상호 연결될 수 있게 시도되었다. 건물의 형태는 한식 건물이 구성하는 몇가지 패턴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 도입함으로써 독창적이면서도 친근감이 주어질 수 있게 했는데, 좌우에 낮은 저층부를 두어 안정감을 형성하면서 기단의 효과를 겸하도록 한것과 지붕을 낮은 물매로 처리하면서 타파의 옥개석이 주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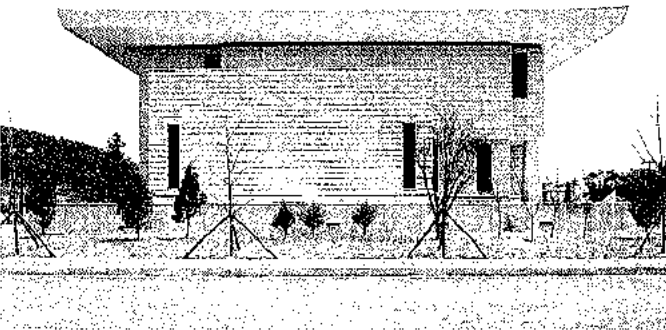
〈평면계획〉

전면홀의 상부는 오픈시켜 구심점이 됨을
암시시키고 좌우공간을 대칭으로
구성하면서 병폐한 전시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했다. 전면 계단을 넓게 열어
수직동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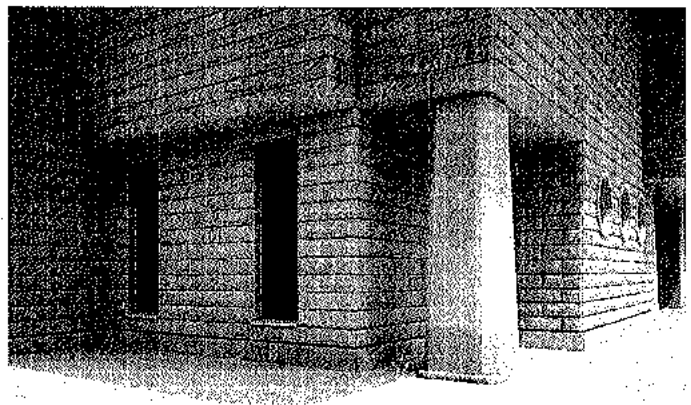
동시에 관람동선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끔
회랑을 상부천정 주변으로 우회시켜
관람효율의 증대를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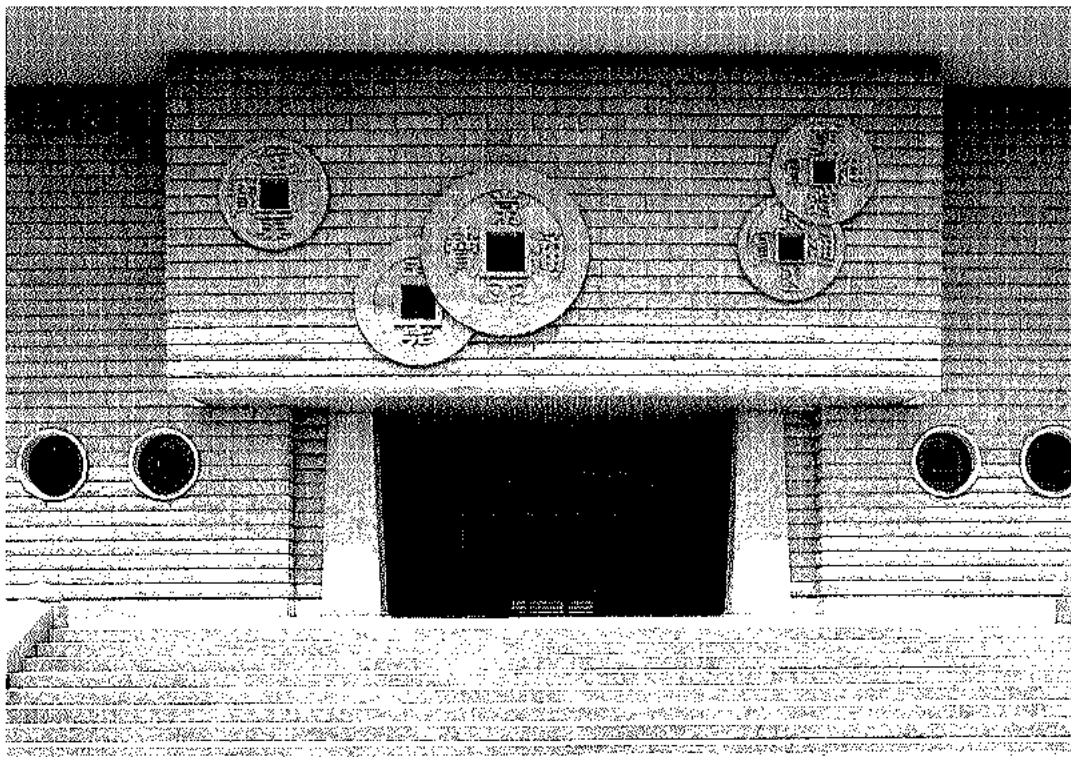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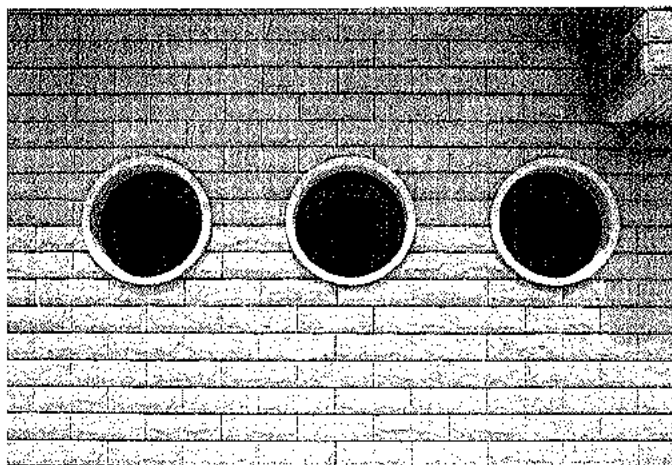
작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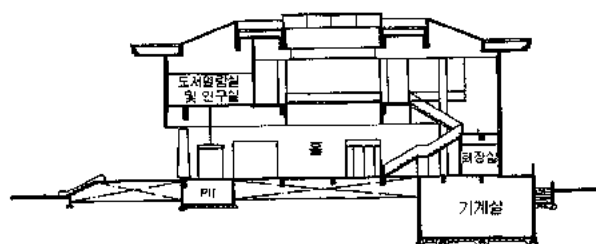
기둥 및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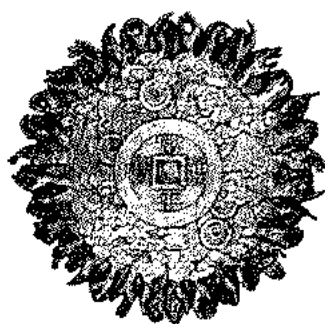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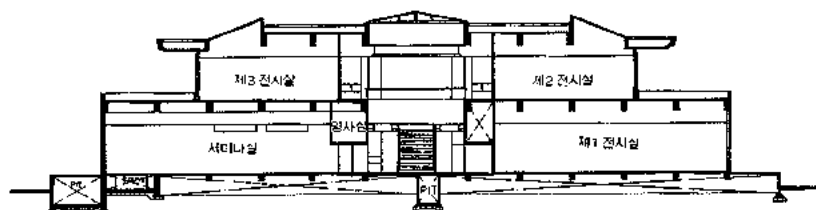
동전모양의 창 디테일



단면도



내부로비 벽면조각



단면도

반포동 P씨댁

Banpo-Dong P's Residence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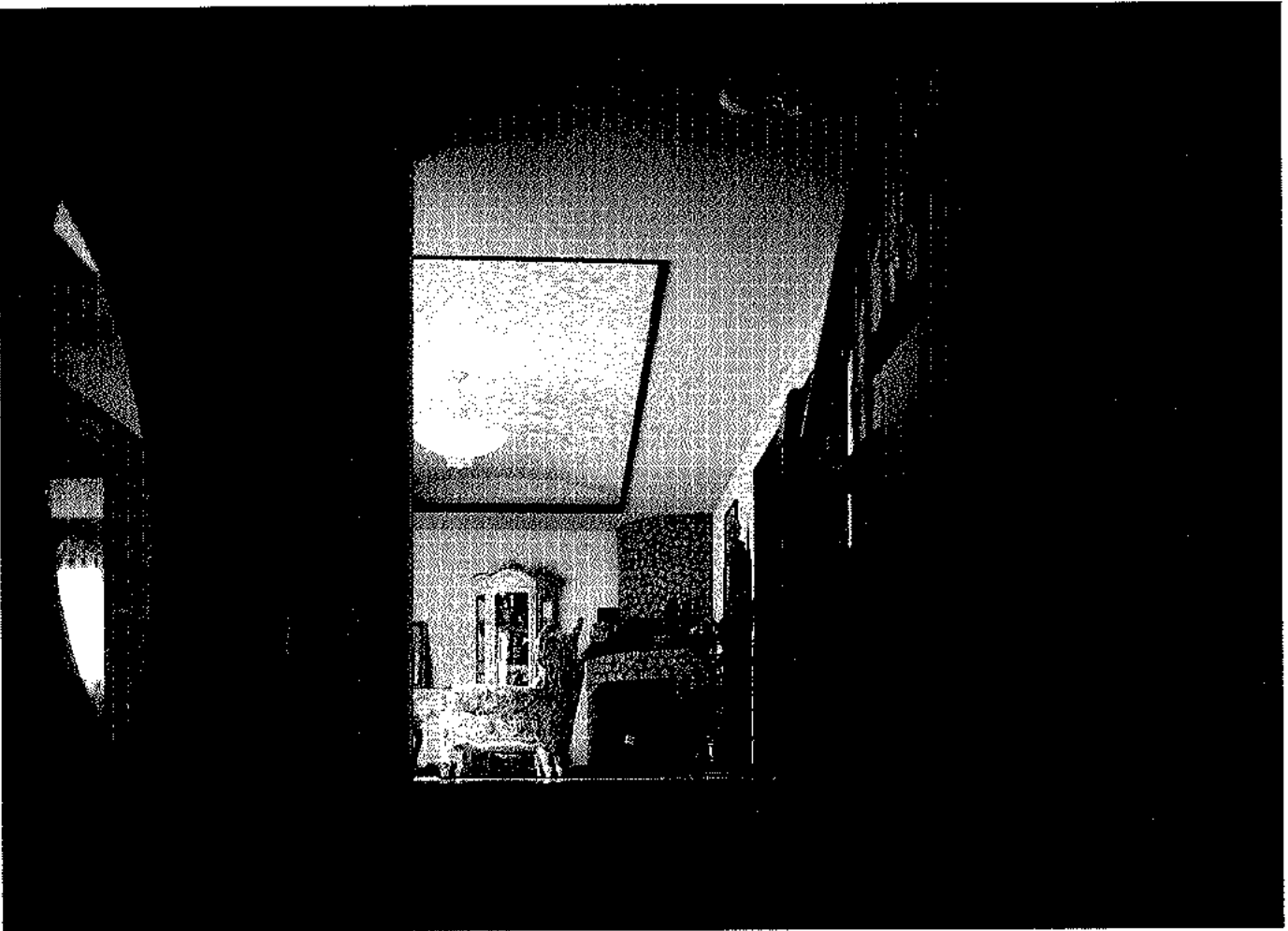
설계소요

후년이 정사전 대지-주변에 꽉 들어찬 경색된 집들은 도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뒷면의 낮은 대지 조건과 지하 주차의 출입 때문에 반층식 엇갈려진 맞물림으로 평면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상층의 볼륨이 다소 과중하게 표출되었다. 요즈음 건축주들의 빈번한 요구(?)와 기호가 맨사드풍의 그렇고 그런 집들이 유행병처럼 퍼져 있으며 그것이 당연히 좋은 집(?)같이 생각한다. 아무튼 타협된 그러한 형태와 육중한 볼륨이 2층 벽체를 부담스럽게 하였으며 꺾인 지붕이며 뽕족한 장문, 목재의 그늘림, 정두리 벽체를 획적으로 분할하는 수법 등으로 그 부담감을 줄여가는 작업을 해 나갔다. -가끔은 왜 이러한 무국적인 형태의 집이 선호(?)되어야 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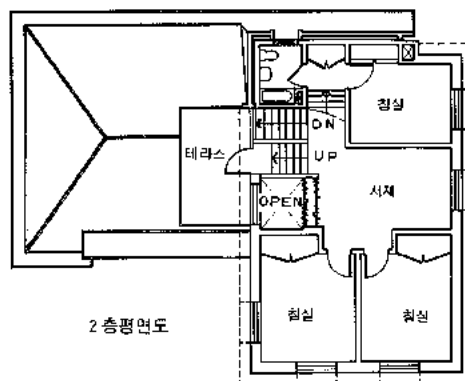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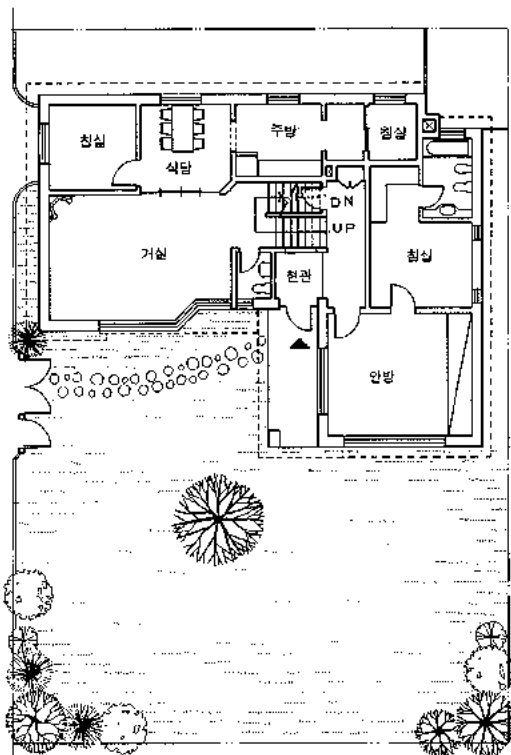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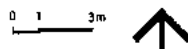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대지면적 / 503m²
건축면적 / 162.34m²
연면적 / 286.81m²



현관에서 본 거실



2층평면도



배치 및 1층평면도



三伏有感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 신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온대지방은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및 남미의 몇몇 열대에 위치하는 나라를 여행해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三伏之間같은, 어떤 곳은 우리의 三伏보다도 더 더운 곳도 허다했고 그나라 국민들의 태양에 그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색이나 개으른 꼴을 보고는 무의식중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게되고 우린 행복한 민족이로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우린 그들을 보고 개으른 민족들이니 낙천적인 민족이라느니 넷대로 말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무리한 이야기 밖에 안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부지런한)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해도 별 수 없이 그들과 같은 생활을 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피상적으로 개으른 민족이니 낙천적인 민족이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 뜨거운(연중) 무더위 속에서도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시대에는 위대한 文化를 이룩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대자연의 악조건하에서도 文化를 쌓아 올렸던 그들의 조상들의 피나는 노력이나 인내력에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을때가 가끔 있다.

三伏이란 立春에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그 24계절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뜨거운 약 30일간을 10일씩 初·中·末伏이라고 하고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 여러 지방마다의 歲時風俗이 각양각색으로 있고, 더우기 이때면 그 지루한 雨季(장마)가 겹치는 때도 있고 장마가 끝나는 때도 있다. 이 장마가 끝난 다음의 삼복더위야말로 썩는듯한 불볕더위라고는 하지만 모든 농작물(특히 벼)이나 수목이나 잡초등은 인간보다도 더 고온이고 다습한 곳에서 더욱 무성하게 성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三伏之間에 모든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해의 풍흉자를 결정짓는 별이지만 견딜만 하였고 아주 농경민족에겐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태양은 뜨겁지만 하지만 장마때보다 습기가 덜해서 따가운 별이지만 견딜만 하다. 필자는 이런때만 되면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다. 중학생때 방학에 집에 와서 두메산골 농촌인 교향의 洞口的 원두막에 방화숙제 같은것을 들고 나가 뭉게구름 떠 있는 파란하늘을 보며 잘 익은 오이라도 먹으면서 자주 공상에 빠지곤 했다. 나는 장차 어떤 인간이 될까. 어떤 학문을 전공할까, 위인전이나 시집 같은 것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두메산골에서나마 맛 볼 수 있는 三伏을 지내곤 했다.

□ 바로잡습니다 □

지난 7월호 『일하며 생각하며』란에 게재되었던 “사회통념”의 원고는 張基成 / 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에서 張基成 / 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으로 바로 잡습니다.

초가를 잠자리때가 무수히 날아 다니고 붉게 물든 저녁노을을 쳐다 보면서 이유없이 눈물을 흘려본 일도 있다. 술퍼서가 아니었다. 고요한 시골에서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온갖 꿈도 꾸어보았지만 연령의 탓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곤 했다.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고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린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대개의 경우 三伏之間이라면 짜증나는 기억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었다. 어떤때 한낮 적은 나뭇잎 까닥하지 않는 무풍의 시간이 온 세상이다. 정지된, 그런 時空이 멈추고 참묵과 고온과 오직 따가운 태양만이 사정없이 내리쬐이는 농부도 일을 멈추고 소도 풀을 뜯지않고 부동의 자세로 조용히 입만 움직이며 반추만 하고 있다. 온 세상이 온 만물이 정지되어 있는듯한 참기 어려운 때인데도 엄습해오는 권태로움 같은 것은 왜 느껴지는 것이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나락이 익어가는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오묘한 대자연의 운행이여 이런때 곡식도 익어가고 나도 성장해 가는가 보다.

소름이 끼칠 정도의 고온속의 한낮에 갑자기 숲속에서 초가를 매미가 급속성 소리로 불어대는데도 세상은, 대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권태롭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시끄럽다는 생김은 안나는 것은 웬일인가.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점심전에 새침이 아낙네가 이고 뜰로 나오면 졸전의 상황은 일변하고, 식사는 끝나고 월침이 지나면 퇴약별 속에서의 반복되는 논 지심매는 일은 시작된다. 길 가는 행인도 없고 논밭속에서 지심매는 농부들의 무언이 기계적으로 시작될 뿐이다.

이런때 초가를 봉계구름에서 한바탕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농부들은 원두박으로 모여와서 담배 한대 피우며 소나기를 지내보내곤 묵묵히 논밭으로 들어간다. 내 고향의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몇해를 몇대를 이런 三伏을 견디면서 되풀이 하면서 살아 왔던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불평도없이 숙명처럼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15세 소년의 여류방학중의 고향에서의 삼복의 추억은 끝이 없다. 오스름 달밤에 모기불 피워 놓고 동구에 모여 이야기 꽃이 필때 한 소년은 풀피리를 만들어 구성지게 불어댄다. 아마도 동리처녀들도 어떤 기분으로 저 구성진 풀피리 소리를 들으며 잔일손을 놓지 않고 피리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금년 추수가 끝나면 출가한다는 건너집 이쁜이도 야릇한 기분으로 저 풀피리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소학교때 교과서에 “가을뜰 국화가 피어있는 들판에 앉아서 푸른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구절에서 선생님께 엉뚱하게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읍니다라고 당돌한 질문을 하던 소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70노인이 되어 지나간 미연 고향의 어렸을때의 한여름 三伏을 되씹으면서 미소를 지어본다. 그 불안과 슬픔없었던 때가 애타게 그리워진다.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한낮 들판에서부터 나락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조차가 요즈음 도시인들에겐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내 어렸을때 확실히 그 소리를 들었고 안들려도 믿고 날 이해했고, 이것이 문학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적이고 詩的인 글은 소학교 과소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당시의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은 확실히 낭만을 알고 있었고 인간적이였다.

문새들은 자유로이 넘나드는 38선! 여수선한 세계정세 속에서 그 언제인가 고향에 가 볼 수 있는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요즈음이다. 창밖에서 어린것들이 “고향에는 지금쯤 배국새 울겠네”라는 노래를 뜻없이 부르고 있으면 나에겐 눈시울이 젖어 오는 노래인 것을 어찌하랴.

아마도 오늘부터 장마가 끝난 모양이다. 무더위가 시작될 三伏之間이다. 추억을 되 씹으면서 70년을 건너온 삼복을 회고해 본다.

建築許可와 그 節次의 改善方案

李在玉

建設公務員教育院

1. 序

1989년 3월 건축허가통계를 보면 허가된 건축물의 동수가 20,035동이고 연면적은 9,168,685㎡로서 작년의 3월에 비해서 무려 140%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허가수는 매년 급증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행정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은 답보상태에 있어서 일선기관의 건축행정업무는 이제 처리능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민원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민원을 자기 스스로의 일일이 완벽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건축허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건축허가와 그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건축허가 권한의 이관방안

현재 건축허가 권한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

그러나 시장이나 군수는 건축에 관한 일반상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은 전혀없는 행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도면의 내용이나 시방서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함에도 시장이나 군수는 거의 모든 건축허가서류에 일일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물론 시장이나 군수는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는 대부분 하부조직내의 전문가가 하도록하고 시장이나 군수 스스로는 최종확인적 의미의 서명만을 하는 것이 판례화되어 있지만 권한의 행사에는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시장 또는 군수는 전문적인 기술사항까지 파악하고서 서명하려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 경우에 건축인허가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직 공무원은 이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자기나름대로 검토한

모든 기술적 또는 법적 타당성을 설명하여 이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부분적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두께가 각각 얼마이상이기 때문에, 열관류율이 기준치인 얼마 이하가 되어 열손실방지조치를 적절하게 한 건축물이어서 당해 건물의 허가 신청서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하자는 없다고 설명하였을때,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의 함수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리 많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굳이 이를 전부 이해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이해시키고자 할 때는 건축설계의 원론에서부터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의 직위는 건축계획원론을 기술직원으로부터 설명받고 있어야 할 정도로 한가한 직위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산적해있는 허가신청서와 각종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건축직공무원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예를들어 결재도중에 열손실방지조치는 되었느냐고 물었을때 벽체의 두께가 20cm이상이므로 열손실은 충분히 방지되었다고 대답을 하였다면, 건축술에 관해 비전문가인 시장 또는 군수는 두께가 20cm만 넘으면 사용되는 벽체의 재료나 단열재의 종류 및 품질에 관계없이 열손실방지는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부터는 결재를 하면서 우선 벽두께가 20cm를 넘는가를 확인해보고 만일 20cm가 넘지 않을때는 일단은 열손실방지조치가 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재검토의 자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문가인 기술직공무원이 건축에 관련한 비전문가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전문적인 용어나 사례를 사용했을때, 이 비전문성은 비전문가에게는 전문성으로 이해되어, 건축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문가의 비전문성과 비전문가의 전문성이 오류를 범할 소지를 없애고 건축에 관한 인허가업무의 능률을 제한된 전문인력으로나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만을 전담하는 건축허가전담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시의 경우는 워싱턴시를 남북으로 구획하여 북구 허가사무(Potomac Building North)에서 북구의 모든 건축허가를 접수처리하고 있고 남구의 모든 건축허가는 남구허가사무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각종 허가사무소는 주로 건축직공무원으로서 인허가등에 관한 사무경력이 10여년 이상된 기술자를 Building official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구역내의 모든 건축에 관한 인허가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Building official에 관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대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Building official이 지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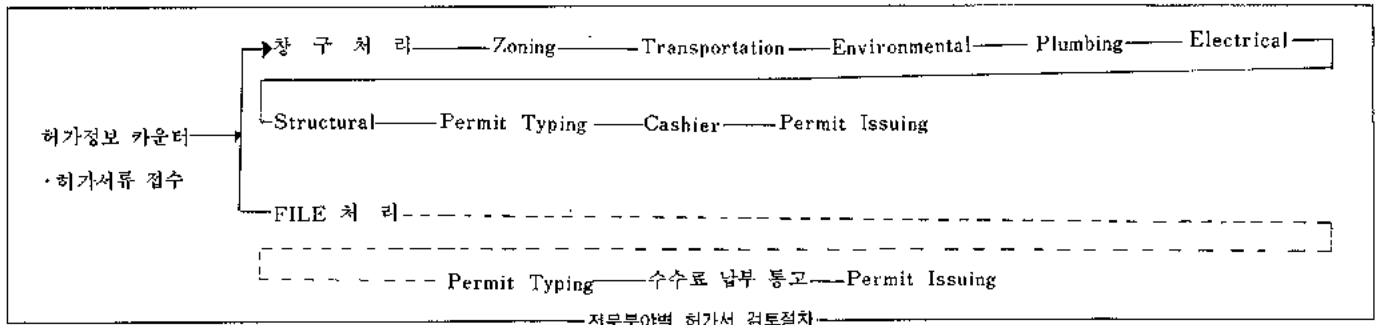
즉 건축허가사무소는 시 또는 지방정부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민원의 야기나 인허가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나 또는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도록 되어있다.

시나 지방정부에서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를 통해 건축인허가등에 관한 각종규정들을 개정해 주면, Building official은 개정된 규정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상위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허가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하여 이를 시정조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때문에 건축물의 인허가사업에 관련한 전술한 바있는 비전문가의 전문성이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에 의해서 인허가에 대한 전문성이 심화되고 행정의 능률이 향상되어, 제한된 전문인력으로도 방대한 량의 인허가를 단기일내에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실정을 감안할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행의 건축허가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와 독립적 관계에 있는 건축허가전담 기관에 조속히 이동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설되는 건축물의 인허가전담



기관은,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강북에 하나 내지 둘, 그리고 강남에 하나 내지 둘 정도를 배치하여 가급적 대형화하여야 전문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3. 허가절차의 개선방안

때로 Code official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Building official 밑에는 지역지구제나 환경또는 설비등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각각의 전문분야허가담당자(Permit Clerks)와 검사자(Inspectors)가 있으며, 이들 전문분야의 허가담당자의 서명이 있으면, 일단 그 분야는 거의 허가를 받은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Building official이 실제로 하는 일은 대부분 전문분야 허가담당자사이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건축물의 인허가서류의 검토를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당해 전문가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처리하고 처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거의 스스로 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책임만을 Building official에게 주고 전문분야의 허가권한과 책임은 분산시킴에 의해서 건축물인허가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비전문가나 비전문가의 전문성이 건축물의 인허가행정에 영향을 줄 소지를 제거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1은 미국에서의 상기한 바와 같이 전문분야별 허가절차를 도표화한 것이며, 전문분야별 허가절차에 대한 상세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 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우선 허가신청서류를 허가사무소의 허가정보카운터에 접수시키면 허가정보카운터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청서류에 누락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누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지시를 하지만, 누락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해 허가신청서류를 창구에서 검토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File처리를 할 것인지를 즉석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창구처리든 File처리든간에 처리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적절한 기간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어 허가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구에서 허가처리하는 것은 짧으면 그 기간내에, 길어봐야 신청 당일에 허가가 가능한 건물들이며, 단독주택이나 소형건물들은 대부분 창구에서 허가처리되고 있다.

창구에서는 표3-1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신청자와 전문분야별 검토자와의 면담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하나의 창구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0분 이내가 되고 있어서 웬만한 건축물은 2시간 정도만 지나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창구처리에 있어서는 하나의 Counter에서 당해 전문분야별 검토자의 서명이 있어야 다음의 Counter로 옮겨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Washington시의 Potomac Building North의 경우는 각 창구에서의 면담시간은 평균 6~7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의 맞먹고 있었다.

창구에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끝으로 법적 또는 기술적 하자여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즉석에서 허가서를 타이핑 해주는데 이것을 들고가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자리에서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모든 허가절차가 끝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창구의 검토에 있어서도 보완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보완이 이루어질 때 까지 허가신청서의 처리가 당연히 유보되며, 보완이 된 서류는 보완을 요구한 창구에서부터 다시 면담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창구에서는 선착순에 의해서 부여되는 번호순에 의해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허가창구의 질서 또한 정연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허가신청서류를 허가정보카운터에 접수시킨 결과 File 처리로 결정이 되면 신청자는 File 번호만 가지고 돌아야가야 한다. File 처리는 창구처리가 곤란한 건축물들을 허가처리하는데, File 처리도 창구처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전문분야별 검토자에 의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별 검토자는 허가신청자를 불러 설명을 듣기도 하고 보완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File처리는 창구처리와는 달리 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길며, 보통1~2주 정도 소요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몇개월을 소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File 처리된 건축허가신청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건축허가사무소는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검토가 끝났음을 통고하고 수수료의 납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와 동시에 건축허가증명서가 발부되도록 하고 있다.

창구처리나 File처리의 제도는 그 운영이 공개적이고 허가서의 검토가 면담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없고, 허가신청자가 신청서류의 처리에 대한 진행상황을 항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우리나라의 대민행정은 시작되지 얼마되지 않은 역사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건축물의 인허가업무에 있어서는 10여년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허가의 권한은 건축기술에 관한한 비전문가인 시장또는 군수에게 있고, 허가여부의 검토는 하위기술직 한 두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하위기술직의 수가 적음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보되어 있는 적은 수의 하위기술직마저 무허가건물의 단속이나 건축에 관한 각종 민원의 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겨, 신청된 건축허가 서류의 검토가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하여 허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허가 전달기관을 발족하여 여기에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가 보다 전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는 건축물이 더욱 고층화, 대형화될 것임을 감안할때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허가의 전문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과 절차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공항터미널을 바라보는 建築文化的 視点

View Point of Architectural Culture in Korea City Air Terminal

金洪基 / 홍익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by Kim, Hong-Kie



한국공항터미널

◆
金洪基

- 1956년 충북 청주 출생
- 홍익대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87신건축 국제공모전 3위입상
-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이며
- 동의대, 서울예술전문대 강사

1. 序

공간 이루어진 현상기술과 비평언어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핵심은 크게 전통 및 양식논리를 포함한 표현에 관한 문제와 삶과 삶의 변형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로 누적되어 있다. 상당수의 이러한 논의는 아직껏 비평적 定礎를 획득치 못한 채 상당한 우회를 거쳐야 할 논제들이며, 이즘과 양식논리에 대한 정신적 심화 속에는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기적 변모라든지 혹은 창조적 전환의 단계라 치부하지 않더라도, 비평자체가 현상의 발전과정과 전개를 밝히고 그 상황에 시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적 관점임은 고정불변한 것이다. 건축 프로그래밍에 있어 개념적 해결방법이 자리잡혀있고 양식상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보면 낱말의 비평이 갖는 당위성은 어느정도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터미널에 대한 건축적 의미를 해독함에 있어 수반되는 해석학적 관점 역시 문화로서의 건축이 시대에 따라 흐르며 행해지는 방법과 그 건축을 낳게 한 환경에 대한 리뷰의 한갈래를 초극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을 이끄는 제반개념 또한 발생론적 이해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건축문화의 상황에 준거하게 된다.

수사적 표현기능의 다양화로 표상되는 80년대 말미의 건축문화는 다각도로 조명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특질의 하나가 대규모 건축물의 축조봉이다. 올림픽이라는 대전세를 이 시기를 눈금짓는 일단의 매듭으로 할 때 -올림픽을 향한 국제도시로의 재건이 상징적인 퍼스펙티브를 조장했는지를 유보하더라도- 각종문화시설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재개발과 업무시설의 신축에 있어 대형화의 양상이 현저함을 목격하게 된다. 문화시설의 경우 한국성 내지 전통을 반영하지는 목소리가 고압적으로 있어왔고, 도심지 대형건물의 경우는 물적환경의

재구축에 따른 삶의 변형논리가 도시건축의 관행을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로 호소되었다.

공항터미널을 논함에 있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던져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된다. 첫째는 무역센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갖는 외연적 의미와의 맥락성이다. 개체와 군으로 이해되어야 할 공항터미널과 무역센터와의 관계는 슈퍼볼력이 갖는 「부분과 전체」라는 유형의 비평적 범주 속에 지평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공항터미널이라는 테마 속에 작동하는 인식구조에 관한 건축표현의 관계망에 대해 검색과 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의 범주를 돕기 위해 개략적인 공항터미널의 설계과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역정보의 제공과 무역활동을 지원해주는 무역회관, 우수상품을 전시소개할 종합전시장, 그리고 호텔과 백화점이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의 바이어들에게 전시상당 체질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목표로 올림픽에 맞추어 완공된 바있다. 그 마지막 연계작업이 최근 단지 서측에 완공된 공항터미널이다. 김포공항의 청원 이전을 전제로 하여 탑승객의 탑승수속이나 출입국 및 세관절차 환승영 기내품판매 등 각종 공항기능을 도심에 둬으로서, 이용상 불편을 보충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55층의 무역센터가 무역한국의 표상이라면 공항터미널은 무역센터의 관문이자 서브스테이션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일찌기 그 사례가 없기에 일본의 히코자키 터미널과 스기야 터미널이 시설계획상의 표본이 되었다는 공항터미널의 기본설계는 국제자명현상설계에서 당선된 닛겐세계이(日建設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역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회관 사무동과 종합전시장은 무역협회가 발주하여 닛겐과 국내설계팀(원도시, 정림)합동으로 진행되고, 반면에 공항터미널과 호텔 쇼퍼센터 등은 자공관계로 별도의 조직에 맡겨진다.

처음 닛겐에게 제출한 공항터미널의 기본설계안은 지하2층 지상4층이었으나

무역협회에서 별도조직으로 바뀌면서, 지하4층 지상7층 연건평 20,000평으로 늘어난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면서 국내설계조직인 일건에 의해 재차 기본설계의 골격이 다듬어진다. 아울러 모체가 되는 공항터미널 고유기능 이외에도 사무실기능이 추가되면서 기능이 분화된 복합건물의 성격을 갖게된다.

이와같은 건립배경을 통해보면 공항터미널을 바라보는 눈점은 미분화된 기능의 통합과정과 함께 앞에서 제시한 테마가 지니는 상징형식과 부분과 전체라는 컨텍스트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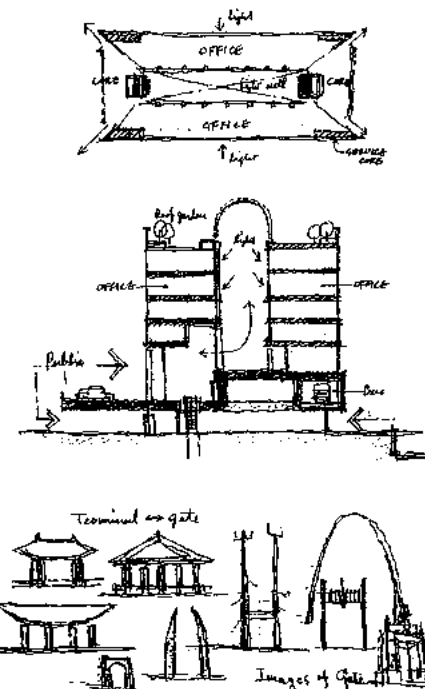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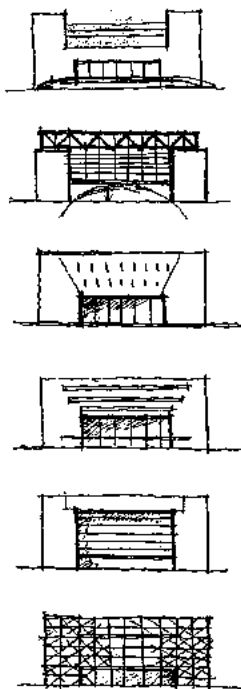
2. 상징체계와 인식구조

무역센터를 찾는 외국 바이어에게 있어 첫관문이자 마지막 관문이라는 게이트적 측면은 공항터미널로서의 독창적인 상징성과 아이덴티티의 표출이 미약하다는 견지를 넣기에 충분하다. 외관과 재료에 있어 무역센터의 타건물과 일관성을 갖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터이고, 테마가 갖는 강한 이미지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계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이 부여하는 빈곤한 건축이휘에 고심이 따랐을 것이다. 문제의 심층은 공항터미널로서의 시형식이 지녀야할 의미구조의 발현에 있다. 의미전달 혹은 의사표현의 체계로 건물을 형상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상징형식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이같은 논리전개는 항시 건축이 반드시 상징형식을 띠어야하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로 소급될 위험이 있고 상징과 비상징의 대립은 자칫 모더니즘 대포스트모더니즘 건축논리로 비화되기 쉽다. 컨텍스트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단지내의 여타건물과 비교해 볼 때 상징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도외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스캐치에 나타난 형상화 작업을 검색해 보면 그러한 논리는 선입견에 머물고만다. 「터미널=게이트」를 표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홍살문, 박공지붕의 대문, 당간지주 등에 대한 이미지 스캐치가



아트리움



입면에 대한 이미지와
아트리움에 관한
개념 스케치

그 증빙이다. 게이트를 표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포착해서 형태에 접목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유추라 한다면 유추의 목적은 어떤 의도와 결합된 상징성이 표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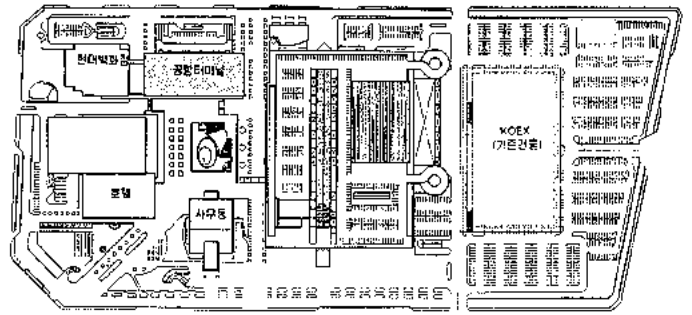
여기서 유추의 대상물이 예술의 전당에서의 부채나 갓, 올림픽 스타디움의 청자처럼 주로 전통과 관계되어 있음을 주시하면 상징의 목적개념은 결국 한국성을 담을려는 의도로 개진된다.(그러한 작가의 의도는 이미 84년에 제출된 무역센터 현상설계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작가는 조형해석에 있어서 독자적인 National-Identity의 표현으로서 당간지주에서 유추된 두개의 타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에 입각한 관습적이고 명시적인 유추대상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단지전체의 통합화된 디자인에 의해 궁극적인 어휘로 구상화되기 보다는 추상화로 구현된다. 실제 전후면 화사드에 나타나 있는 H형에 가까운 솔리드한 알루미늄 판넬벽은 홍살문에서 인용된 디자인으로 보여지나 게이트 내지 한국성의 이미지로 해독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 이유를 후기근대주의적 디자인을 통해 개개전물의 기호와 관점을 극도로 절제시켜 보편타당한 가치로 추상된데서 찾고자 할 때 그 디자인 전략은 어디에 두고있는 것일까? 현대건축에 있어 후기모더니즘 건축을 추종하는 작가의 논리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유추는 통속적인 키치(Kitsch)를 초래하며 자칫 해학적일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 보다는 암묵된 언어가 사용되는 시에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언어의 애매성(Ambiguity)을 적극이용 의미의 확산을 피하듯 유추의 추상화 작업이 건축본연인 미의 구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Rudolf Arheheim이 지적한 무의식적 상징으로도 해석되는 이 같은 모호성에 입각한 의미전달체계는 후기근대주의 양식을 특징지우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것은 포스트모던건축이 지나는 다중가치 내지 다의성과는 다른 가치중립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며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전체배치도



국제문화의 보편성이 지니는 불가피한 모순을 완화하려는 가치중립화의 표현이기도 하다.

관점에 따라서는 공항터미널과 같이 모호성에 입각한 단조롭고 기계미학적인 표층디자인이 도시 속의 활기찬 장소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와 함께 빈곤한 건축체험을 탓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동을 비롯한 강남지역의 도시환경 속에 급속히 침윤되어 나타난 탈근대건축으로 통칭되는 재현상을 볼 때, 공항터미널의 조형의사는 그와 달리 새롭게 조직된 도시성의 반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을 수 있다. 비록 탈근대적 성향이 표현영역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표현의 유희성과 공통언어의 결여에 의해 도시환경의 시각적 무질서와 수사학적 기능(rehetorical function)의 회복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고보면 공항터미널의 표층언어가 갖는 힘과 균제는 시각적 환원성을 불리이르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더듬어 본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역화국의 입지를 표상하는 무역회관이라는 건지에서, 한국성에 대한 호소라든지 구체적인 상징성의 설정보다는 시각적 환원성을 줄 수 있는 충격력(Impact), 즉 개체성(Originality)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구도가 외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논지를 모을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단지전체의 통합과 건물개체의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넷겐세계이의 초기목표는 오히려 백화점을 제외한 단지내 각건물을 세부디테일 까지 철저히 통합하는 쪽으로 굳어진 느낌이다.

공항터미널이 지니는 개체성 역시 폐쇄적 지역문화의 특성이 아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개방적 주체성으로서 후기근대주의 미학의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제미는 역으로 화사드의 구성형식에 있어서 문화적 컨텍스트가 관여되고 시각적 메시지를 지닌 개성있는 연출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3. 기능의 분화와 통합

집합건물이 지녀야할 외관의 통합적 질서는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한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러한 측면은 오히려 건물자체의 생명력을 실내공간에 부여하는 계기가 된듯 시각적 충격력은 내부로 반전되어 나타난다. 일차적인 시각적 충격력은 공공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에 기인한다. 최근 호텔및 오피스 빌딩의 하부나 상부에 으레껏 따라다니는 장식적공간이 아트리움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며, 조형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보다는 엉거주춤한 느낌과 함께 마지못해 달아놓은 오브제적인 취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공항 터미널에 적용된 아트리움의 경우 그 이용양태는 보다 적극적이다.

하지만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주요태마는 아트리움에 앞서 터미널기능을 수행할 주기능 처리와 함께 대지와 건축과의 일체화 작업에 있다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터미널 고유기능이 1-2층에 자리잡고 3층은 면세백화점, 4-7층은 임대사무공간으로 지하는 쇼퍼매장으로 할애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에 의해 야기되는 발생동선의 통합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항터미널이 위치한 대지는 종합무역센터의 서쪽도로를 주진입도로로 하고 있으나 단지 중심부의 광장 측 또한 주요접근 방향이므로 이들을 연계시키는 연결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했다. 또한 기능상 체크인을 위한 버스탑승 및 도착로비 부분으로 두개의 공간이 조가 되면서 상하로 연결되는 약간의 부대시설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해결방안으로 다중의 집합 양태가 이루어지는 두개의 로비를 두개층의 인공대지로 만들고 이들을 전체대지와 연결하여 광장의 일종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이 광장을 대지로 하여 그위에 겹쳐진 사무실 부분은 6개층을 관통하는 아트리움을 형성시켜 빛이 여러단으로 이어지는 광장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와같이 아트리움은 터미널 고유기능과

관련하여 전체를 단일체제로 규합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트리움이 출입구를 중심으로 정면에서 종축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항터미널은 남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1983년)와 같이 정면과 평행한 횡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축의 양단부에 각종덕트와 엘리베이터 코어를 비롯한 공용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중앙부 양측에 주기능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제반기능 등이 아트리움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역시 존 포트만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 아트리움 쪽으로 개방되어 있어 대규모 개방공간의 시각적 연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저층부만을 열대수목이나 실내환경 장식물을 배치하는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 공중 테크를 활용하고 매자닌층을 둠으로서 그 이용도를 매가시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공항터미널의 아트리움은 그 자체가 내부공간의 통합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nside out, Outside in」이라는 실내환경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도심의 병적인 페이스에서 벗어난 활력적인 장소임에 틀림없으며, 외관의 상징이 매체된 표정없는 얼굴과는 달리 풍부한 시성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기능을 담당할 1-2층의 제반시설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용양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서로 다른 기능의 층별구분배치가 일단 아트리움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여지나 복잡한 동선발생이 예상되는 공항터미널의 주기능과 미분화된 부수기능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혼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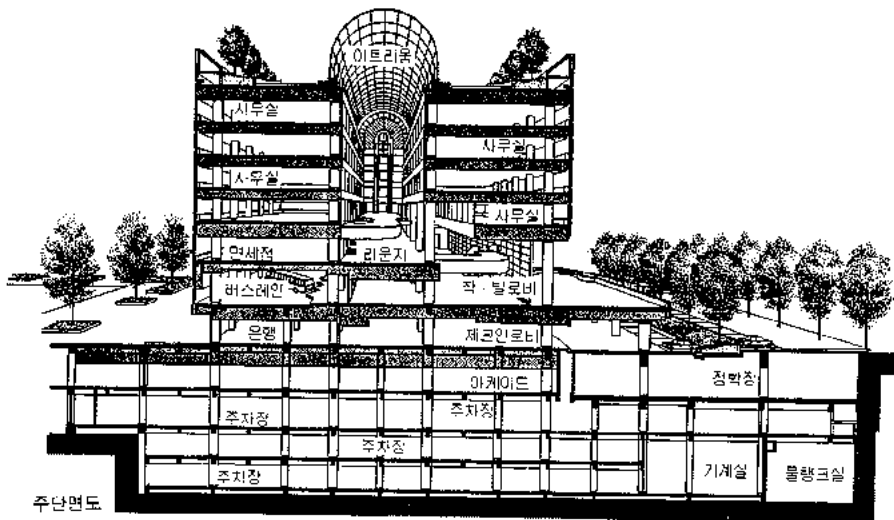
4. 부분과 전체—도시적 맥락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부분과 전체」라는 범주는 공항터미널 개체적인 측면보다 도시적 맥락에서의 접근을 요구한다.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논지를 빌려보자.

마틴 하이데커는 1954년 그의 논문 「Building Dwelling Thinking」속에서 보편적인 장소성의 상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2층에서 본 아트리움을 계단실



주단면도

유리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공간-장소의 현상학적 본질은 경계를 확실히 규정할 수 있는 성질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경계란 그 곳에서 무엇인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장소이며 그 존재는 확실히 경계지을 수 있는 영역에 의해서만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케네스 프램톤 역시 장소의 상실을 둔 현대도시에서 있어 저항의 건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하이데커의 논지를 모방하여 경계지워진 영토라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을 가정해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계지워진 장소와 그 형식을 인용한 것은 진보적인 도시문화의 발전은 지역적 규모(Super Block)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논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항터미널이 위치한 삼성동 일대의 슈퍼블록은 서울이라는 비대한 조직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하는 발판으로서 올림픽 스타디움과 인접하여 일면 적절한 장소성을 갖고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질서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보편적 형태미와 함께 개발의 거대성, 완결성, 용도상의 분리, 역사적 시간과의 단절 등 모더니즘적 이념과 도시관해 입각해 있는 무역센터의 개체군 들어 근대건축 이후 그러한 논리가 지역문화와 장소성의 상실에 대한 주범으로 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제기된다. 더우기 80년대 중반이후 시행된 재개발에 의해 도심 대형 프로젝트가 현대도시의 모든 문제점을 제거해주리라는 신념이 탈각된 마당이기에 그러한 의문은 더욱 남게되는 것이다.

그 원인을 비슷한 단지성격을 지닌 을지로 재개발과 비교해 볼 때 다음 몇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을지로 재개발과는 달리 공항터미널이 위치한 단지의 경우 도시로서의 조직이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도정에 있으므로 단지개발 성격을 규정할 기존 컨텍스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는 점이다. CBD 내부가 거대도시를 발전시키는 두개의 상징적 매개물인 고층빌딩과 도로망에 의해 단지의 성격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해, 그러한 제한에서 해방되므로서 단지성격 규명이 용이했다는 점이다. 익명적 형태의 건물이 무작위적으로 들어서 있는 인근지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지역적 차원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서 장소적 특성이 강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전체의 볼륨체계와 형태적 기호패턴의 질서가 존중됨으로서 단지전체가 강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센터의 테마타워인 사무동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수평성과 수직성의 부조화에 의해 단지전체의 균형과 동질성을 느끼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외장재의 기호패턴(동일 색상의 알루미늄 판넬과 반사유리)의 통합에 의해 사무소동과 진시동 공향터미널이 시각적으로 결속, 질서의식이 강조됨으로서 단지전체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각적으로 異化되어 있는 백화점에 있다. 공향터미널에 인접하여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은 양면의 허상적인 공허한 두개의 가공과 외벽의 진분홍빛 색상에 의해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어 보인다. 일면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답득이 가능한 처리나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과 함께 공향터미널을 다소 왜소하게 보이게 하는 주범이다. 공향터미널은 이러한 측면과 함께 사무동이나 호텔 같은 메가스트럭처와 대비되어 축소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양피와 화사드의 획정구성과 마감재의 대비적 혼용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에 의한 환경창출에 있다. 하브라켄이 환경과 건물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했듯이 환경은 무역센터의 질적가치를 제고시키고 경제지위진 영역으로서 장소적 형식을 부여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공향터미널의 배후인 선관가든을 포함한 중앙광장은 울지로 재개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로변에 있는 객건물들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공간으로

단지전체를 내부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강한 구심성을 띠고 있다. 어찌보면 무채색 회색공간으로 정태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공향터미널을 위시한 주변건물이 일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의 생활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앞으로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추적 공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활성화된 이용형태도 요청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새가지 측면에 의해 공향터미널이 속해있는 슈퍼블록은 모더니즘적 도시관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하이테크가 말하는 경제지위진 영역으로서 현존의 효과가 높은 확실한 장소로서 자리 잡혀있는 것이다.

5. 결어

형태의 형상화 작업이 작가의 독창적인 사유와 건축주의 요구와 부합된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고 기능을 조직화하는 어느정도 주관적 작업임을 볼 때 그 표현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는 확고한 틀을 건지하기 힘든 비평의 부재를 느낄 경우가 많다. 그것은 또한 논리적 비약과 편견, 객체화를 방해하는 모든 감정을 일소하더라도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체험하는가, 하는 행위 비평에 대한 성찰의 부재와 시각규범의 와해로 인한 정형논리의 부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런 연유에서 제공되는 건축개념과 작가의 창작사유를 내세운 부차적방안이 제현상을 해독하는 위안의 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 공향터미널에 대한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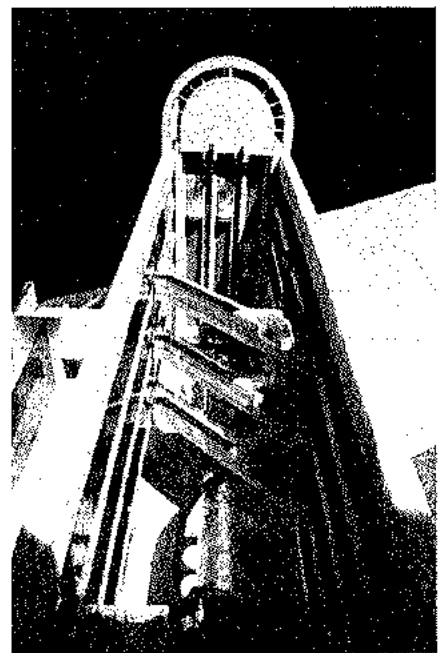
단위로서의 건물이 모여 집합형태(Collective Form)로서 도시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향터미널의 형태외사는 관주도 하에 고답적으로 나타났던 처마선이나 지붕강조라는 형식주의적 처리나 최근의 유행사조인 기교적 장식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적 환기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입지를 표상하는

게이트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유분방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문화적 콘텍스트가 고려된 표정있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동시에 단지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화의 상징적 표본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위용을 드러내 놓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부정적 시각도 잔재한다.

80년대 신축된 대형 프로젝트(63빌딩, 리키트원타워, 국제사옥)가 하나 같이 외국 설계팀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체적 의사에 입각한 자생건축문화에 대한 자성적 시각이 함께 뒤따르는 것이다. 또한 공향터미널이라는 특수기능 앞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공공적 인식과 접합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재고되리라 본다.



統一新羅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ia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uyng-Ho

4. 統一新羅시대의 일반건축

이미 論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대건축에 대하여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일반 주거건축의 형식이나 특성 그리고 건축의 가구형식 등이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안압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건축부재라든가 불국사에 남아있는 석조물, 또 신라 화엄경 불전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목조건축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문헌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것은 『三國史記』(屋舍條)에 기술된 귀족 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에 관한 조문인데 여기서는 귀족의 계급에 따라 방의 규모와 사용하는 장식 그리고 재료 등을 기술한 것이다. 전기(屋舍條)에는 건축제한을 둔 귀족계급의 층을 4개 층으로 나누어 기술했는데 기록을 보면 최상급 진골에서 6·5·4頭品까지 해당되는 계급마다 규제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했다. 이 내용을 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꾸미는 집의 규모와 사용재료, 형식, 意匠 등이고 다음 담장의 치장형식 그리고 문의 설치, 마춧간 발의 數, 기타 병풍이나 침상의 사용재료 등의 규제이다.

즉 眞骨, 6頭品, 5頭品, 4頭品 以下 순으로 규제되는 내용을 보면

- 1) 집에 대하여는 室의 크기가 각각 24尺, 21尺, 18尺, 15尺이 넘어서는 안된다 하였고 이들은 모두 지붕에 唐瓦(막새장식)를 사용할 수 없으며 5두품 이하는 獸頭(기와장식)를, 또 박공에 懸魚와 飛簷(부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목조 가구형식에 대하여 6두품 이하에서는 拱牙나 花斗牙(拱包)를 두지 못하고 4두품 이하에서는 藻井(우물천장)을 짜지 못하게 하였고 금·은이나 고급 金石으로 치장된 五彩의 단청을 금했다.
- 2) 기단과 계단에 있어 연마한 돌을 금하고 진골에서는 3층기단¹⁾을, 6두품 이하에서는 2층기단을 금하고 4두품 이하의 山石(가공석²⁾)으로 치장하지

- 못하게 했다.
- 3) 담장 설치에 있어 보와 기둥을 설치하지 못하고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 4) 문을 두는데 6두품 이하는 重門(重層이거나 景門)이나 동·서·남·북의 4방문을 두지 못하고 5두품 이하에서는 大門을 두지 못한다 라고 기술했다.
 - 5) 기타 장식물에 있어 병풍이나 자리는 수놓은 것을 쓰지 못하고 침상도 내모나 침향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³⁾
- 이상의 기술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통일신라의 목구조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의 唐의 문화영향을 많이 받아 건축 역시 삼국시대의 건축문화를 계승하는 외에 唐의 건축을 받아들인 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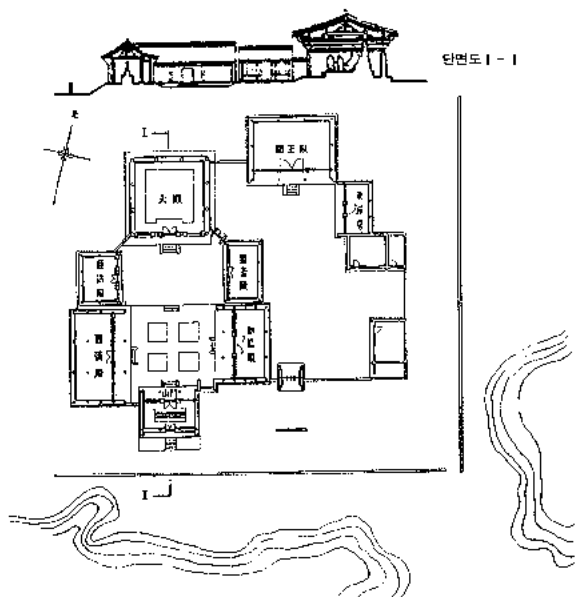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위의(屋舍條)記述로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중국에 실제 남아있는 西安 慈恩寺大雁塔 門眉石에 조각된 唐代 佛殿圖나 山西 五臺山 南禪寺大殿, 佛光寺正殿 등 현존하는 唐의 유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鳳停寺極樂殿이나 浮石寺無量壽殿, 유물로 남아있는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金銅三尊佛龕, 그리고 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佛殿圖와 불국사 다보탑의 석조 난간이나 안압지 출토 공포 부재 등 단편적인 자료들을 비교해 고찰함으로써 서로 상통된 수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건축인 佛經寺극락전이나 부석사무량수전 등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물론 세부적인 기법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 1) 주두와 소로에 심한 굽의 彎曲을 이루며 柱斗 굽받침이나 소로굽의 받침은 두지 않았다. (但, 부석사 무량수전은 받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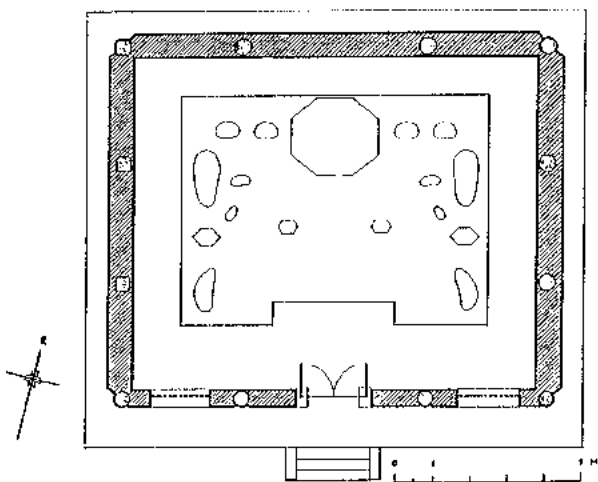
《屋舍條》記述의 主要事項 早見表

階級	建 物					石階	垣 牆			門	床材
	材 料	室의 長 和 幅	기와	목조 및 지붕장식	丹青		높이	구조	치장		
眞骨		24尺	唐瓦	懸魚 飛簷	金銀 鑲石 五彩	研磨된 階石 三重階		梁棟	石灰		玳瑁 沉香
六頭品		21尺	唐瓦	懸魚 飛簷 重拱 拱牙	金銀 鑲石 五彩 白鐵	研磨된 階石 二重階 巾階	8尺	梁棟	石灰	重門 四方門	玳瑁 紫檀 沉香 黃楊
五頭品	山楡木	18尺	唐瓦 獸頭	懸魚 飛簷 重拱 花斗牙	金銀 鑲石 五彩 銅鐵	研磨된 階石	7尺	梁	石灰	大門 四方門	
四頭品과 百姓	山楡木	15尺	唐瓦 獸頭	懸魚 飛簷 拱牙 藻井	金銀 鑲石 銅鐵	山石	6尺	梁	石灰	大門 四方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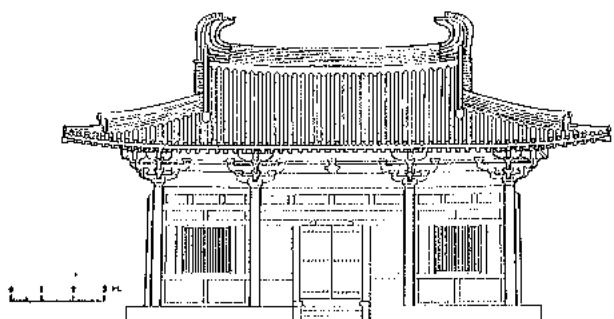
※ 上記 內容은 禁止 또는 制限 事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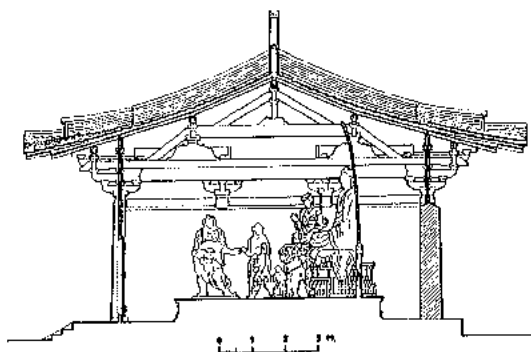
▲五臺山 南禪寺 배치도



▲오대산 南禪寺大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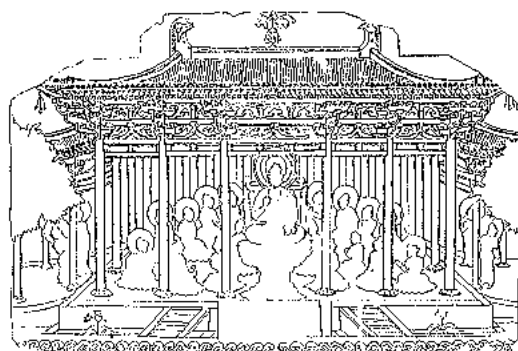
▲오대산 南禪寺大殿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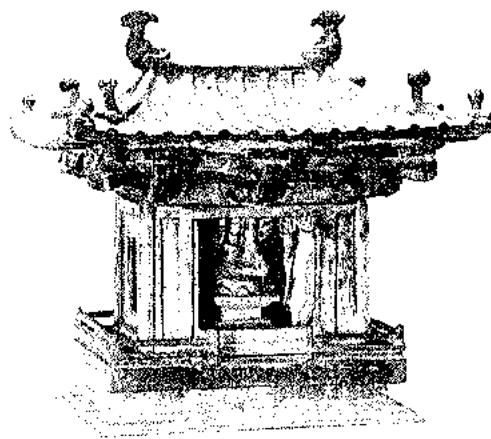
▲오대산 南禪寺 大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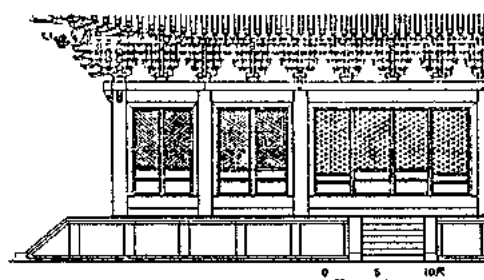
▲新羅 白紙 大方廣佛華嚴寺 佛殿圖



▲西安 慈恩寺 大雁塔 西門 門唐石의 唐代 佛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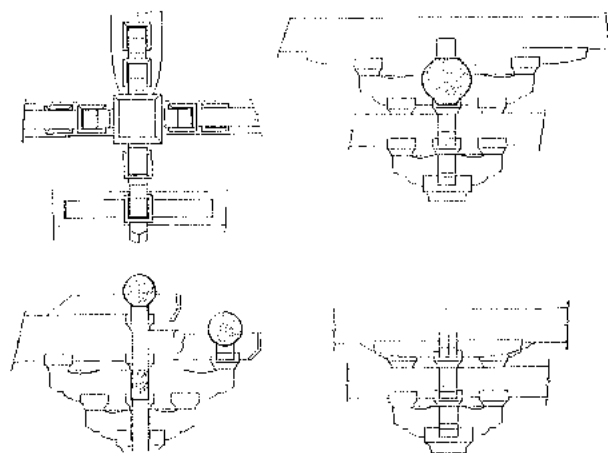
▲간송미술관 소장 金·銅三尊佛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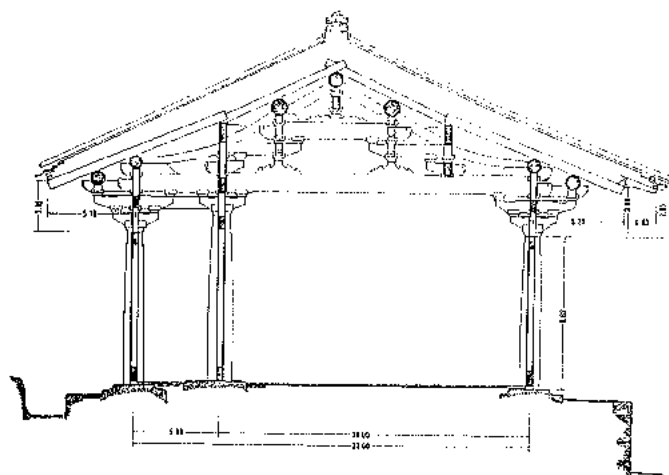
▲佛國寺 大藏殿 基壇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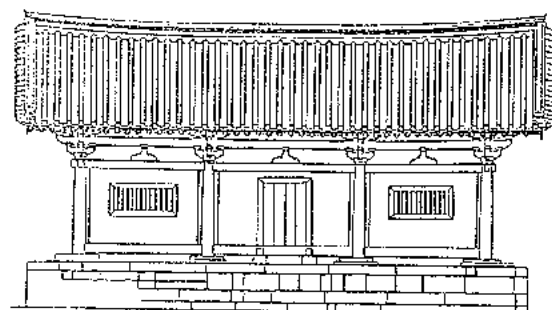
▲안동 鳳停寺 극락전 측면



▲安東 鳳停寺 극락전 拱包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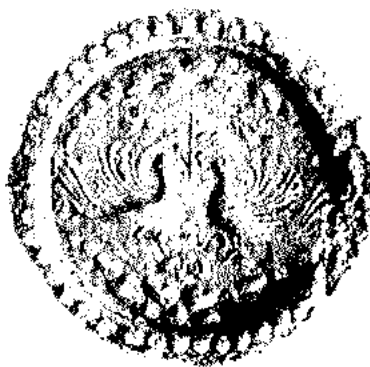


▲安東 鳳停寺 極樂殿 단면도



▲안동 鳳停寺 극락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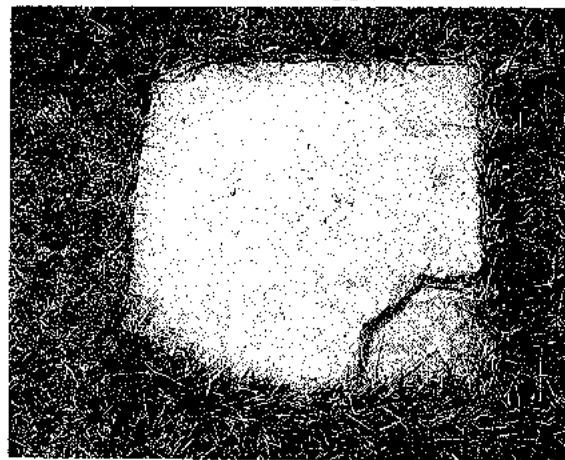
감은사지출토 ▶
수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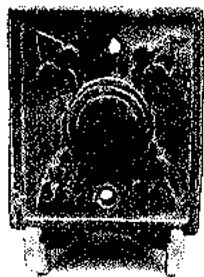


▼ 監恩寺止 기단초석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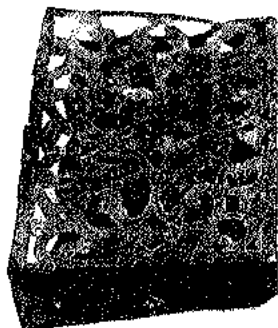


感恩寺址 희람지 초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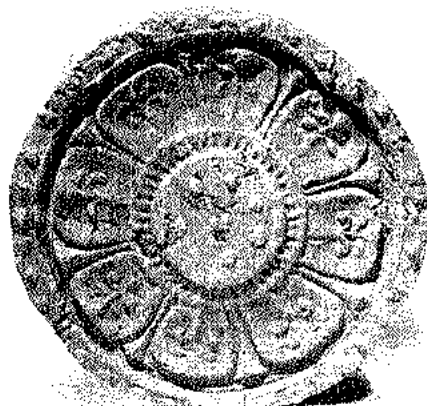
雁鴨池
출토 부연기와



雁鴨池출토 부연장식구



雁鴨池출토 당초문 모서리 기와



雁鴨池출토 연화문 수막새

- 두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 2) 공포는 기둥 위에서만 짜여지는 주심포계가 주류를 이룬 것 같지만 상기 금동불감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 공간포를 두어 화려하게 꾸미었다. 첨차는 그 끝이 위에서 直切하다가 밑에서는 3번 또는 4번 접어깎은 즉 소위 卷殺를 하여(위의 고려대 건축은 교두형이 아닌 쌍 'S'형임) 宋의 영조법식에 나타난 기법과 통하고 첨차의 짜임은 헛첨차 없이 주두 위에서 같은 모양과 규격의 첨차를 평면으로 보아 '十'자로 짜 중첩하고 一斗三升式의 行工첨차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補間包나 대공에는 '人'자형의 솟을합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 3) 下昂을 사용한 것 같으나 간단한 구조는 平身包를 많이 사용하고 하양은 두공위에서 짜 일본의 법류사 금당에서 볼 수 있는 하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으로 믿어진다.
 - 4) 기둥에는 엔타시스 즉 배흘림을 두고 있었던 것이나 이것이 당시 중국과 같이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 중간에서 체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3분의 1 높이에서 아래 위로 체감시켜

- 결국 下廣上簾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주형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고유한 선을 이룬 배흘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5) 기둥의 배열은 안압지나 황룡사지 등지에서 밝혀진 예로 보아 건물의 규모가 클 때는 內外陣 기둥을 배열하여 가구를 꾸미고 작은 규모일 경우는 통간으로 가구를 형성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 6) 평방은 없이 창방만을 두어 주심포계 가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장형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단장형도 사용했다. 이것은 현존 고려시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단장형과 비슷한 것이다.
 - 7) 창호는 울주 증산리 출토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불막이 살창과 판문을 혼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이나 일본의 현존하는 同代 건물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8) 옥개부는 부연을 갖는 겹처마를 사용함은 물론 맞배, 우진각, 팔작지붕 등이 짜여 지고 기와에 토수기와, 미구기와, 막새기와, 鬼面와, 바래기, 망와, 치미, 박공기와, 연목와 등 많은 종류의 치밀하고 화려한 장식외를 사용했고

- 부연이나 서까래 끝에 금속제 장식도 사용했다.
- 9) 건물에는 화려한 단청을 시문했고 특히 벽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졌다는 것은 기록이나 금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벽화편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술 외에도 난간이나 金具 등이 화려하게 치장되었음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일반건축은 기술상 최고경지에 달하였다고 믿어진다. 통일신라 말경 경주의 민가 주택건축은 초가지붕이 없이 기와집이 많았고 솟으로 받음 지으며 노래와 피리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다.⁴⁾ 또 35金入宅과 四節遊宅등의 귀족 주택이 화려하게 꾸미어졌음을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화덕을 실 안에 만들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놓아 먹었다.⁵⁾

□註□

- 1) 이를 계단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으나 필자는 기단으로 본다.
- 2) 가공하지 않은 石材는 냇돌을 사용함이 보통이다.
- 3)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第二 屋舍條.
- 4) 三國史記,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憲康王六年條.
- 5)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條.

탁아소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관하여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Day-Care Center

尹張燮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李晶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李榮漢 / 바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Yoon, Jang-Seob + Lee, Cheong-Kyu & Lee, Young-Han



▲성남 YWCA시범탁아소 정면

1. 서론

최근에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와 함께 직장탁아소로 출근하거나, 유아원으로 향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부쩍 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핵가족화 경향의 진전 및 1가족1자녀의 가족계획운동의 보급으로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졌다. 외로운 아이들이 같은 또래와 어울려 한 공간에서 뛰어 놀며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탁아소가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가고 있으며 따라서 탁아소건축과 시설이 유아교육의 새로운 터전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3세이하의 아동을 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는 극히 제한된 몇몇 새마을 유아원밖에 없어 탁아소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이 시설들도 유치원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유아교육시설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에 있다.

이와같은 실정에 비추어 장차 한국의 모든 실정에 맞는 건축 및 시설의 적절한 계획과 설계기준을 연구하여 시범적인 탁아소건축계획과 설계예를 제안하고자 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위해 먼저 한국의 유아교육현실을 조사분석하여 유치원교육이전의 유아교육단계를 담당할 그 교육시설 유형을 추출했다. 다음에는 탁아소시설에 수용되는 유아연령에 따른 활동발달특성과 체위특성을 분석하여 활동발달특성에 근거한 건물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체위특성에 따른 시설물치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안된 계획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범적인 탁아소설계안을 작성하였다.

2. 탁아시설의 개념 및 유형

1. 탁아시설의 연혁과 개념

우리나라에서 탁아사업이 시작된 것은 1921년 서울태화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한데서 기인하나 본격적인 탁아소의 형태는 5년후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등 2개시설에서 비롯된다. 탁아소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葉兒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는데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아동복지를 지향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됐다. 오늘날 탁아사업 및 유아교육에 관한 탁아소의 개념은 수탁보호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방적 기능 나아가서는 부모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탁아시설의 특성은 타교육시설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다. 유아교육은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교육법 146조에는 유아교육시설에서 적당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생활환경은 피난처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그 건축환경 자체가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아발달과 교육에 바람직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아의 생활환경과 공간이 준비 제공되어야하며 이 잠재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생활환경은 교사에 의한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교육보다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탁아교육 환경을 계획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2. 탁아시설의 유형

한국의 유아 및 아동교육시스템(출생후 6세까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기존제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유아교육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의 유형, 탁아연령, 운영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와같은 유형을 기준으로하여 탁아소시설을 계획설계하는

◆尹張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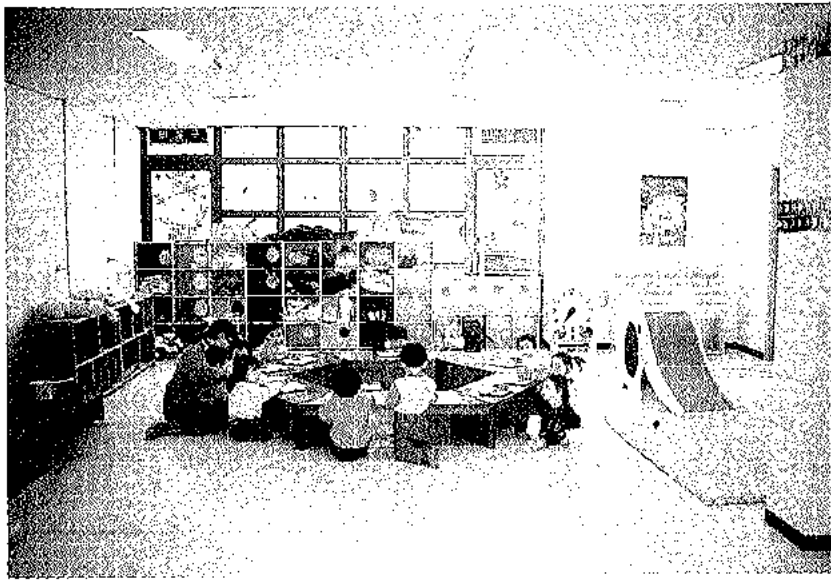
- 서울대 대학원 공학박사
- MIT 대학원 석사
- 현 서울대 건축학과 정교수
- 학술원 회원

◆李晶奎

-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
-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대표

◆李榮漢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립 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 현 바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시범탁아소의 유희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시설유형

탁아유형에는 크게 시설탁아(center day care)와 가정탁아(family day care)로 대별된다. 주경관씨의 「취업모에 있어서 경제활동 상태별 탁아소형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접근처 탁아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자중 47%가 접근처의 탁아소를, 34%가 직장부설탁아소를, 19%가 집에 와서 아기를 돌봐주는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리하여 취업모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유형은 접근처의 시설탁아이며, 이 선호경향은 앞으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증대될 것이다.

2) 탁아연령

현행제도에 의하면 유아교육시설별 수용가능한 유아의 연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4~6세를 대상으로 하고 새마을 유아원의 경우 만1~6세를 취원대상으로 한다. 김영모씨 등은 1983년에 각 시설별로 수용되고 있는 유아의 연령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1>에 의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에 다니는 전체 유아중에 만5세·6세의 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9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국민학교 취학 이전의 모든 연령을 취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만2~4세 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고 만5·6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93.9%로 나타나고 있다.²⁾

그리하여 유아교육시설의 운영실태에서 만5·6세를 위한 시설들은 수요·공급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현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유아교육시설들도 주로 5·6세아동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2~4세 유아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전혀 없으며 이들은 만5·6세를 위한 시설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고는 만2~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3) 탁아소 운영시간:

현재 확산되고 있는 가정탁아의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서 오전8시~오후8시까지 유아를 맡기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의해서 탁아시설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탁아시설의 운영시간은 유치원의 시간제 운영과는 달리 종일제와 시간제를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 유아의 신체활동발달특성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물학적 성장과 더불어 여러가지 발달과정을 거치며 산다. 에릭슨(Erikson)은 인간의 삶주기중 幼兒期를 제1·2·3단계로 설명한다. 유아기는 전체 인생중에 적은 기간인 만5세까지의 유아에 해당되지만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에서 다른 단계에 비하여 매우 빠르다.

제1단계는 유아가 주로 他律的인 보살핌을 요구하는 때로서 기본적인 신뢰감과 불신감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이며 제2단계는 주변환경에 대하여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제3단계는 만4·5세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이 幼兒期는 각 단계마다 여러 측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장발달이론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유아를 수용하는 탁아·교육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이와같은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유아의 활동발달특성

<표2>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활동발달특성을 분류정리한 것이다. 유아는

만2세가 되면 걷고 달릴수 있으며 배변도 혼자 볼 수 있고 서툴지만 수저를 잡고 식사도 한다. 놀이특성은 주로 혼자 놀면서 남의 놀이를 구경하며 아무곳이나 마구 그려댄다. 이 시기는 보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하는 단계로 생각되므로 시설을계획시 유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탁아소 운영에 있어 유아와 보모의 비율을 낮출수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만4세가 되면 보모의 도움없이 여러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게되고 만5·6세 유아와 활동특성과 거의 유사하게된다. 만4세 유아를 위한 탁아공간은 유치원의 내부공간과 유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모의 역할은 보호의 역할보다는 교육의 역할비중이 커지며 유아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 보다는 유아활동공간의 주위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3세 유아의 활동특성은 보모의 보호를 요하는 만2세 단계와 자립적으로 활동하는 만4세 단계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건물계획및 운영방식은 전후 두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아의 표준체위

공업진흥청에서는 1986년도에 한국인 체위 표준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아계층중에 0~36개월미만의 유아는 획득표본수의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36~72개월미만 유아계층에 대하여 분석했다. <표3>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신장, 어깨높이, 치골높이, 무릎높이, 앉은키는 남녀 평균치로서 상기 연구자료에

<표1> 유아시설별 유아연령의 분포

	2세	3세	4세	5세	6세	미상	합계
유치원				58.9	41.1		100.0(280)
어린이집	0.2	0.2	5.0	46.2	47.7	0.7	100.0(868)
새마을 협동유아원		0.5	7.5	36.0	56.0		100.0(144)
합 계	0.1 (2)	0.2 (3)	4.0 (53)	48.0 (618)	47.2 (610)	0.5 (6)	100.0(1292)

〈표 2〉 유아의 활동발달특성

연령	신체조절능력	배설기관조절	식사습관	낮잠습관	옷입기습관	세면습관	놀이 특성
0	6개월 • 도움없이 혼자서 몇분간 앉는다	• 기저귀를 쓴다	• 젓떼기 시작	• 낮잠시간 : 1시간 45분	• 입혀준다	• 씻어준다	
	12개월 • 혼자선다 •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 변이 나오는 것을 인식	• 스스로 식사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냄	• 오전 오후 각 1회			
1	18개월 • 걷는다 • 팔다리를 써서 계단을 오른다	• 배변 신호를 한다 • 기저귀가 필요 없다	• 컵을 들고 마시고 수저를 잡고 먹음	• 낮잠시간 : 1시간 25분 • 잠자리에 눕혀주면 곧 수면한다	• 모자 · 신을 자기가 벗는 것에 흥미를 갖는다		•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는 놀이를 한다 • 혼자 물두해서 놀거나 남의 놀이를 구경한다 • 온 집안을 뒤죽 박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그려댄다
	24개월		• 배변조절능력을 가짐		• 병어리장갑, 구두, 모자를 스스로 벗는다		
2	• 넘어지지 않고 달린다 • 한발씩 계단을 올라간다	• 누군가가 따라가 주면 혼자 변기에 배변을 한다	• 한쪽손에 컵, 접시를 쥐고 한쪽손에 수저, 젓가락을 잡는다	• 낮잠시간 : 45분 • 누군가가 옆에서 재워주기를 원하며 완구나 기타의 것을 잠자리에 갖고 간다	• 옷을 혼자 입고 벗고자 한다 • 신을 신을 수 있다	• 스스로 손을 씻고 행군다	
3	• 두발을 가지런히 하고 댄다 • 세발자전거를 탄다	• 팬티를 벗겨주면 혼자할 수 있다	• 젓가락을 잡고 놀리게 되고 헛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다	• 낮잠시간 : 30분 • 혼자자고 혼자일어 난다	• 양발을 신을 수 있다		• 운동기능과 언어가 발달한다 • 행동범위가 넓어지며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4	• 한발로 선다 • 걸음걸이가 성인에 가깝다	• 완전히 혼자할 수 있다	• 혼자서 완전히 식사	• 대부분 낮잠을 자지 않는다	• 앞단추를 건다 • 보자를 쓴다	• 이를 닦고 얼굴을 씻는다	• 친구를 만나면 반가운 표정을 짓고 웃으며 놀기도 한다
5	• 전신의 운동을 하고 동작이 기민하다 • 발돋움으로 걷는다	• 휴지를 사용하여 뒤통리가 가능하다	• 배식도 도울 수 있다		•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 머리를 빗는다	• 스스로 생각하는 상상적인 놀이를 한다 • 5명 정도의 친구들과 집단으로 역할을 정해 놓고 극적인 놀이를 한다

(표3) 유아의 체위 표준치

(단위: cm)

연령(개월)	신장(H)	손을 들은 높이 (1.33H)	눈높이 (H-11.0)	어깨높이	치골높이	무릎높이	앉은키	팔길이 (0.43H)
36-41	96.3	128.1	85.3	74.1	40.0	23.7	56.0	40.1
42-47	99.6	132.5	88.6	76.9	42.4	25.0	57.6	41.9
48-53	103.2	137.3	92.2	79.7	44.3	26.2	58.9	43.7
54-59	106.3	141.4	95.3	82.5	46.5	27.4	60.2	45.0
60-65	109.1	145.1	98.1	85.0	48.3	28.4	61.3	46.1
66-71	111.5	148.3	100.5	87.0	50.3	29.4	62.5	47.3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보고서의 자료에서 제외된 손을 들은 높이, 눈높이, 팔길이는 신장과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장과의 비례관계로서 산정하였다.³⁾

4. 탁아소의 건물계획지침

1. 공간별 규모산정

탁아소를 구성하는 각 공간의 소요면적은 각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나 유아의 학급을 단위로 하여 산정하였다. 화장실의 면적기준은 대변기·소변기수에 의하여 설정하였으며 기타 실들은 m²에 의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표 4 참조)

2. 각 공간별 건축계획지침

1) 보육및 유희실

• 아동생활의 중심공간이며 되도록 자상 1층에 두도록 하여 비상시 피난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직접 운동장이나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한다.

•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 정방형보다 유리하다. 각 영역의 구분은 행위별로 구성된 개별실로 이루어 지는 것보다 연령에 따라서 영역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각 영역은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아 각자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행위를 보모가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느 정도 공간의 위요감을 조성하도록 계획하도록 한다. 위요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린이나 가구를 이용하거나 벽색, 조명, 바닥감재 등을 달리하여 영역구분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 바닥재료는 목재, 고무, 플라스틱타일, 리놀륨등 탄력있는 재료나 카페트가 좋으며 벽재료는 다공성재료나 부드러운 나무로 하여 소음을 흡수하고 계시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문은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개폐시 유아의 충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문하부를 투시형으로 한다. 문을 여닫이형으로 할 경우 유아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복도 쪽이나 동적인 활동영역으로는 열리지 않도록 한다.

• 창문은 오르내림창을 설치하고 상부창을 오르내림기로 하여 유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하부창을

오르내림기할 경우에는 내부에 안전 Bar를 설치하도록 한다. 창문면적을 마루바닥면적의 1/4이상으로 하고 전 창문 면적의 50%이상은 열수 있는 구조로 한다.⁴⁾

• 난방방식은 판별히팅방식이 바람직하며 라지에이터등을 설치할 경우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해야한다. 전기스위치, 콘센트등을 높은 곳에 설치하여 유아들이 콘센트를 가지고 장난하거나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이동식가구가 실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므로 바람직하나 쉽게 이동하지 않고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서랍달린 가구의 경우 서랍이 빠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화장및 세면실

• 화장실은 유아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장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유희, 보육실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유희·보육실에 인접배치하고 벽을 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출입문은 보모가 감시할 수 있는 높이로 하고 열쇠를 달지 않는다. 유아용 화장실과 성인용 화장실은 분리하여 배치계획한다.

• 대변기에는 각각 간막이를 설치하며 변기는 수세식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2·3세 유아용에는 안전벨트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진입공간의 바닥높이와 화장·세면실의 바닥높이를 같게 하도록 한다. 바닥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 유아의 지저귀, 외복등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시설과 오물처리할 수 있는 오물처리시설을 한다.

3) 취침실

• 만2·3세 유아의 경우 낮잠을 자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하고 인공조명시설에도 간접조명장치를 설치하여 내부가 어둡게 하고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한다.

• 긴 휴식이 필요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하여 유희·보육실 모퉁이에 침대등을 설치하여 다른 유아들과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되도록 한다.

4) 식사실및 준비실

• 종일탁아가 가능해야 하므로 최소한 점심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녁까지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또 중간 중간에 간식을 주어야 하므로 독립된 주방시설이 필요하며 보육·유희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 준비실에는 환기및 방화에 유의하며 외부로 부터 벌레가 침입하지 않도록 방사문을 설치한다. 식사실바닥은 청소하기 쉬운 아스팔트 타일이나 플로팅바닥에 비닐카페트를 깔아준다.

5) 보모실

• 보육·유희를 관찰할 수 있고 외부운동장과 주출입구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개인용품과 서류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수납공간이 필요하며 보모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도록 한다.

6) 복도및 계단실

• 복도에는 계단을 두지 말아야 하며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사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도벽의 모서리는 파내기하고 벽면의 돌출부분을 없앤다.

• 계단은 一字型계단방식보다 꺾임계단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단중간에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는 계단문을 설치하여 유아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한다. 계단의 뒀는 면의 앞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처리하고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 경사로는 꺾임경사로는 적당하며 경사로 중간에 수평바닥면을 길이 150m 이상 설치하여 유아들이 오르내릴때 설수 있도록 한다. 내부 경사로의 경사각은 1/2이하로 한다.

• 계단·복도·경사로 양측 벽면에는 유아용 손스침 난간을 별도로 설치한다.

7) 주진입공간

• 주진입공간에는 가능하면 단차를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단차가 발생시에는 경사로로 해결한다. 승강공간에는 차양계획을 하여 우천시에 편리하도록 한다.

• 주출입문에는 회전문 사용을 금지하고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이 바람직 하다.

주출입문 내부에는 유도차동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5. 탁아소시설물의 치수계획

1. 시설물의 치수계획기준

유아들의 신체치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연령별변화치수를 시설물계획시에 반영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이다. 시설물은 한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개인용과 여러 유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용 시설물은 그 개인이 속한 연령의 평균 체위에 의해서 계획되면 되지만 공동용 시설물은 각 연령층 모두가 만족되는 치수로 계획되어야 한다. 공동용 시설물은 그 성격에 따라서 만2세, 만3세, 만4세의 표준신체치수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문의 손잡이, 계단의 철편높이(riser)와 디딤판폭(tread)은 적정치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중간연령인 만3세 유아의 신체치수에 의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창대의 높이는 신장이 가장 작은 만2세의 유아도 탑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창대최고 높이를 정해야 된다. 시설물의 치수가 적정치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만3세의 표준치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최대 치수의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만2세의 표준치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 최저치수의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만4세의 체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5>는 이와같은 원칙에 의하여 각시설물의 치수계획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2. 시설물의 치수계획

상기의 유아표준체위와 시설물의 치수계획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시설물의 치수를 결정한다.

- 계단 철편높이(riser)와 디딤판폭(tread)의 적정치수

계단의 단높이와 디딤판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2R+T=S$ 가 있다. (S=보폭)

평균신장이 98cm인 만3세의 여자의 경우 보폭/신장=30.65%⁵⁾이므로 보폭은 30cm이다. 이로서 $2R+T=30$

어린이용 계단의 한계 경사각은 32°이다. $\tan 30^\circ \approx \tan 30^\circ = R/T$ 이므로 $R=0.58T$ 두 식에 의해서 $T=13.6$ $R=7.9$ 이며 디딤판폭은 13.6cm보다 커야 하고 단높이는 7.9cm보다 낮아야 한다.

• 문손잡이의 적정높이

문손잡이는 만3세 유아가 최대의 힘을 발휘하여 물건을 끌어 당기기 쉬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 높이는 $0.6H^{(7)}$ 로서 $0.6 \times \text{신장} = 0.6 \times 98.0 = 58.8$ 이다.

문손잡이의 중심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8.8cm위치에 설치한다.

- 직립시 손스침 난간의 적정높이

이 높이는 문손잡이의 적정높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변기의 안전손잡이 적정높이

이 높이는 사무용 책상높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0.4 \times H = 0.4 \times 98.0 = 39.2$ 이며 바닥으로부터 39.2cm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창대의 최고높이

이 높이는 유아의 가슴높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표준체위자료에서 가슴높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어깨높이에서 5cm를 뺀 치수를 가슴높이로 가정한다. 만2세의 어깨높이는 69.6cm(이 치수는 만3세·4세 유아의 어깨높이를 직선보감하여 구함)그래서 $69.9 - 5 = 64.9$ 로서 창대의 최고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4.9cm로 한다.

• 시선차단 간막이의 최저높이

<표 4> 각 공간별 소요규모

실 명	규 모	비 고
보육및 유희실	4.8m ² /유아1인	
화장및 세면장	대변기 2대, 소변기1대, 욕조 혹은 샤워/학급	유 아 용
작 업 실	9.0m ² /학급	교사1인, 보조교사 2인
주방및 식당	1.0m ² /유아1인	
사 무 실	18m ²	교사 3인
화 장 실	대변기 2대, 세면기 1대	성 인 용

<표5> 시설치수의 선정기준

소유	항 목	만2세 유아	만3세 유아	만4세 유아	비 고
공 동 용	계단의 riser traser		●		
	문의 손잡이 적정높이		●		
	직립시 손스침 난간의 적정높이		●		계단, 경사로, 복도, 화장실
	변기의 손잡이의 적정높이		●		
공 동 용	창대의 최고높이	●			
	시선차단·전기스위치의 최저높이			●	대변기 사이의 간막이 보육· 유희실의 영역구분 간막이
	콘센트·전기스위치의 최저높이			●	
	창·문 안전유리의 최저높이			●	
개 인 용	足洗의 적정높이		●		
	물건을 꺼낼수 있는 선반의 최저높이			●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게함
	책상의 적정높이	●	●	●	
	의자의 적정높이	●	●	●	
	변기의 적정높이	●	●	●	
	선반의 최고높이	●	●	●	

〈표 6〉 책상·의자 및 번기의 높이

(단위 : cm)

	만 2 세	만 3 세	만 4 세
책상의 적정높이	$0.4 \times H = 0.4 \times 92$ = 36.8	0.4×98 = 39.2	0.4×104.8 = 41.9
의자및 번기의 적정높이	$0.25 \times H = 0.25 \times 92$ = 23	0.25×98 = 24.5	0.25×104.8 = 26.2
개인용 선반의 최고높이	$0.86 \times H = 0.86 \times 92$ = 79.1	0.86×98 = 84.3	0.86×104.8 = 90.1

이 높이는 $0.97 \times H^{(9)}$ 로서 H는〈표 5〉에 의한 만4세의 유아신장이다.
 $0.97 \times 104.8 = 101.7$ 으로 시선차단 간막이의
 최저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01.7cm이다.

• 콘센트·전기스위치의 최저높이

이 높이는 손을 들어 닿지 않는 높이로
 해야하며 만4세 유아의 체위로 결정된다.
 표-3의 자료에 의하여 만4세 유아의 손을
 들어 닿지 않는 높이는 139.4cm로서
 콘센트·전기스위치의 최저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39.4cm로 한다.

• 창과 문의 안전유리의 최저높이

이 높이는 콘센트·전기스위치 높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며, 창과 문에서
 안전유리는 바닥으로부터 139.4cm높이
 이상까지 설치해야 한다.

• 책상, 의자및 번기의 적정높이와
 개인용 선반의 최고높이

이 높이는 연령에 따라서 치수를
 계획하여야 하며, 각각은 $0.4H$, $0.25H$,
 $0.86H^{(10)}$ 로 구하여 진다.〈표 6 참조〉

6. 시범탁아소 시설계획사례

1. 인천 YWCA 시범탁아소

1) 건축계획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된

탁아소계획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인천
 YWCA시범탁아소를 계획설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탁아소는 산업발전과 함께
 여성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근로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아보호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범탁아소이다.
 유아의 대상인원은 60명이며 종사원은
 유급교사 4명, 자원봉사자 매일 10명씩(1주
 60명)으로 구성된다. 탁아시간은 시간반과
 중일반을 병행운영하며 시간제의 경우 오전
 9:00-12:30분반과 오후

1:00-4:30분반으로 되어 있으며

중일반의 경우 오전 9:00-오후

7:00(보호자가 올때까지) 반으로 되어있다.

대지면적은 786.9㎡이며 건축면적은

302.5㎡으로 건폐율은 38.38%로

계획되었다. 각층별 시설규모 및 기능은

〈표 7〉과 같다.

2) 배치계획

건물을 대지의 북측, 주도로변에 배치하고
 옥외유희공간을 대지의 남측에 조성하여
 옥외유희공간이 외부의 공동공간과
 분리되게 하였다. 주차진입동선과
 보행진입동선을 별도로 분리하고 옥외유희
 공간과 옥외주차장을 분리하여 유아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주진입구를 전면도로로부터 후퇴시켜서
 외부보행공간으로부터 진입시에
 전이공간을 형성하게 하였다.
 옥외유희공간에는 대지경계선을 따라서
 울타리와 조경식재로 유아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옥외주차장과 경계에는 관목을 밀식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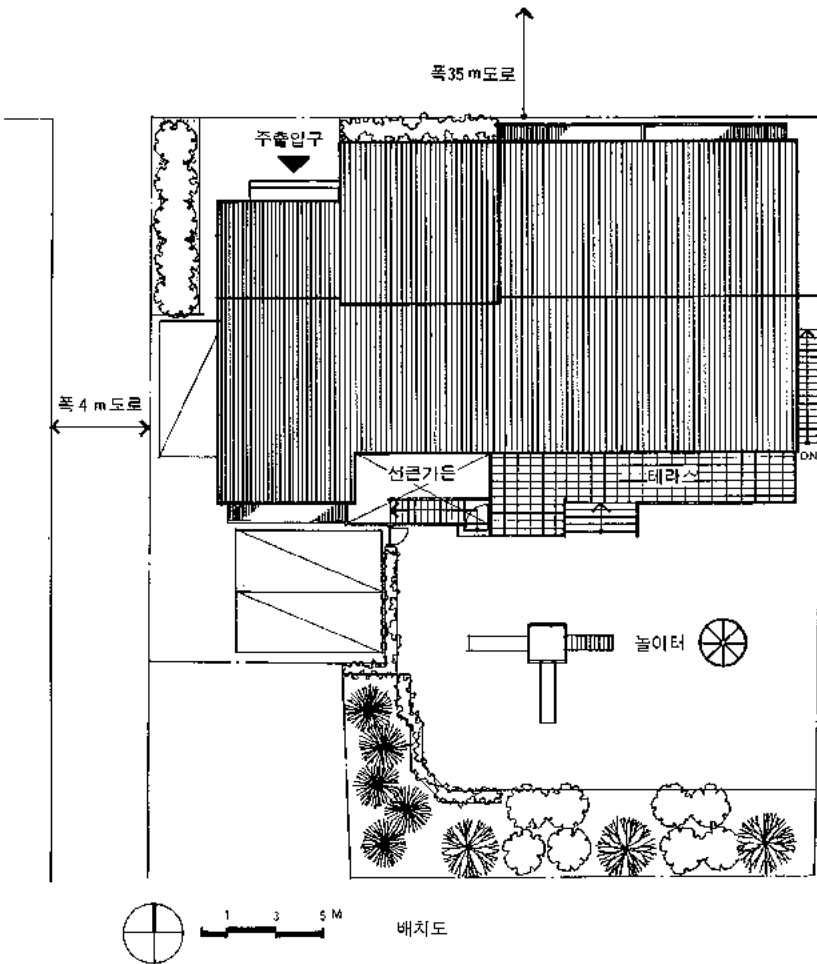
지하선큰가든으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는
 문을 설치하였다.

3)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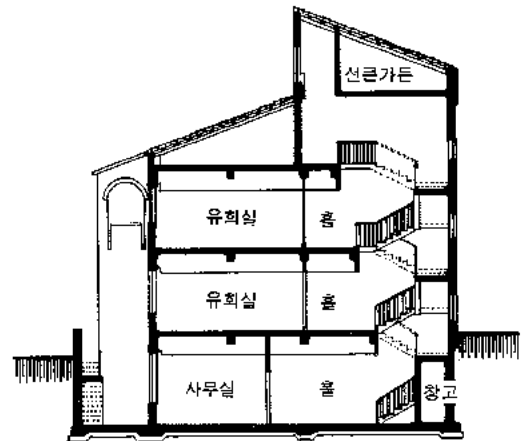
각 층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층별로 보육·유희공간을 남측에
 배치하고 이의 부속공간의 화장실, 사무실,
 작업실을 북측에 배치하여 소음, 열, 빛 등
 환경계획을 에너지절약형으로 하였다.
 주진입동선의 진입방향은 로비에서
 직각으로 꺾이게 하여 외부공간으로부터
 내부공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였다.
 로비에는 유모차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 계단실을 로비에 근접하여
 배치시켜서 2층으로의 동선이 1층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1층 사무실의
 위치와 내부벽창문의 위치는 로비와

〈표 7〉 인천 YWCA건축계획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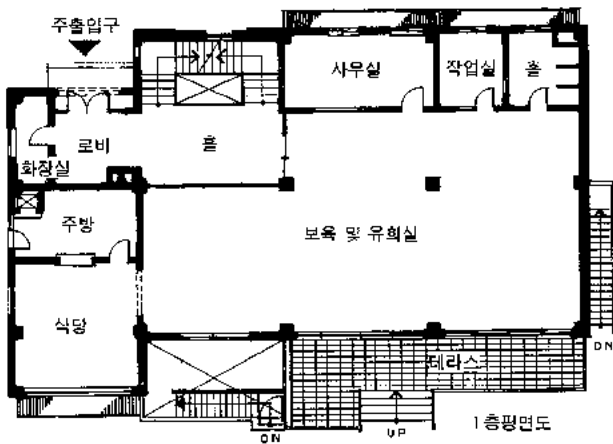
항		목	면	적(m ²)	
실 별 건 축 면 적	지하층 (275.5)	교 실		144.00	
		사 무 실		20.25	
		관 리 인 실		21.76	
		화 장 실		10.08	
		보 일 리 실		25.25	
		기 타		54.16	
	지상1층 (287.95)	보육및 유희실		144.00	
		유아용 화장실		9.00	
		작 업 실		9.00	
		주 방 및 식 당		59.40	
		사 무 실		18.00	
		성인용 화장실		5.40	
		로 비 및 기 타		43.15	
	지상2층 (285.52)	보육및 유희실		174.00	
		유아용 화장실		18.72	
		작 업 실		8.28	
		조 유 실		5.4	
		창 고 및 기 타		79.12	
	옥 탑 층				33.13
	대지면적				786.90
건축면적				302.05	
연 면 적				882.10	
건 폐 율				38.38%	
용 적 율				77.08%	
최고높이				13.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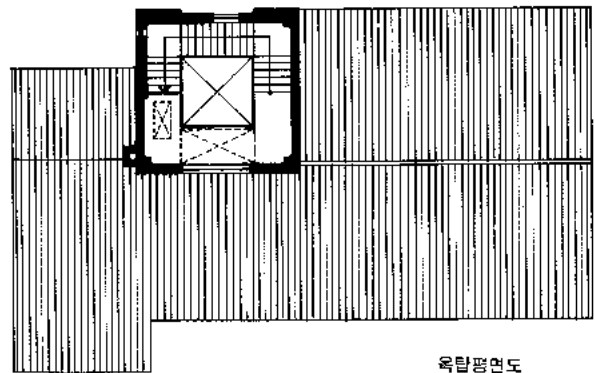
〈도면 1〉 인천탁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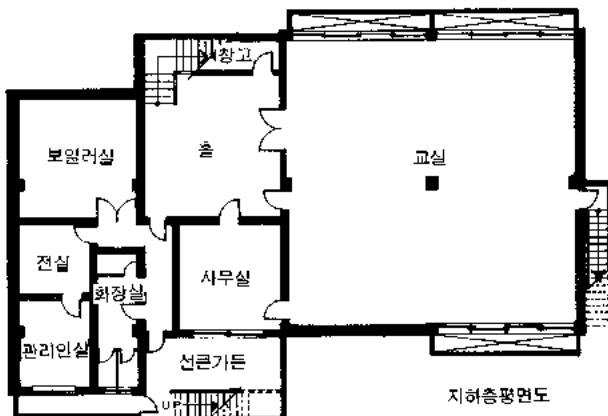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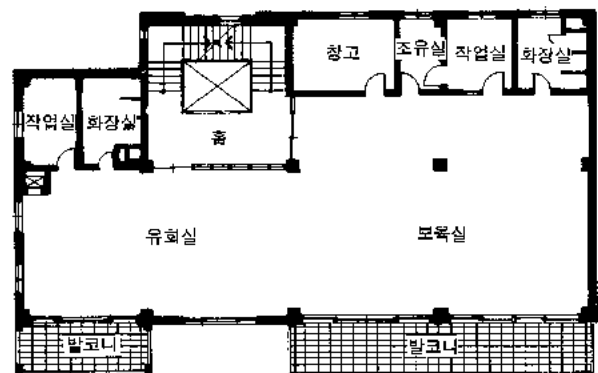
1층평면도



옥상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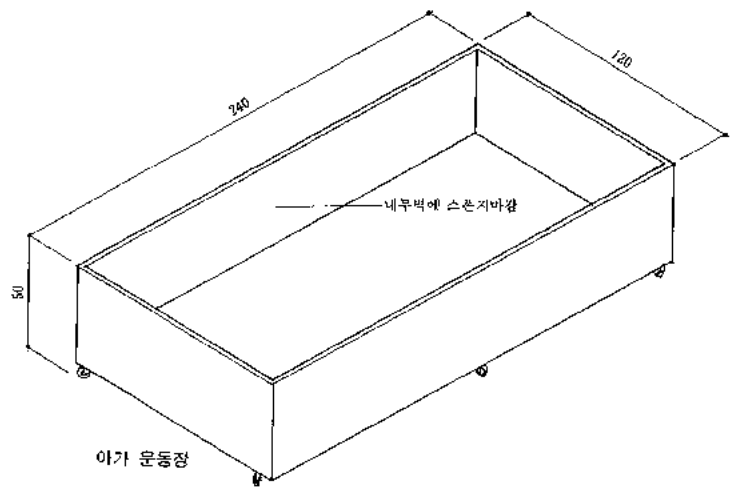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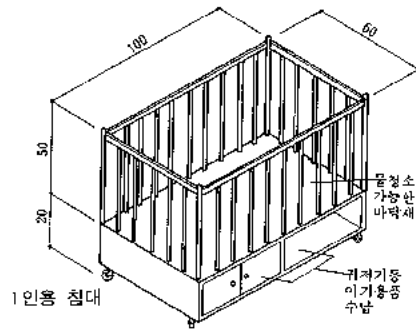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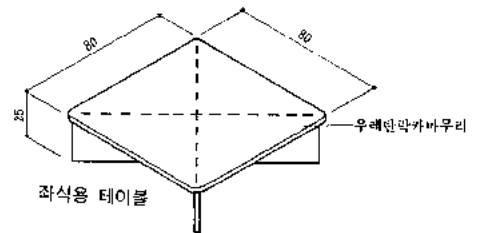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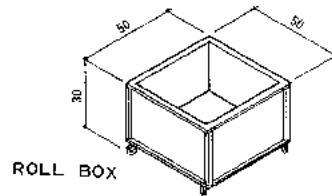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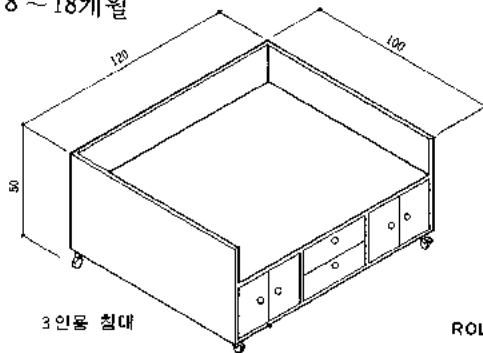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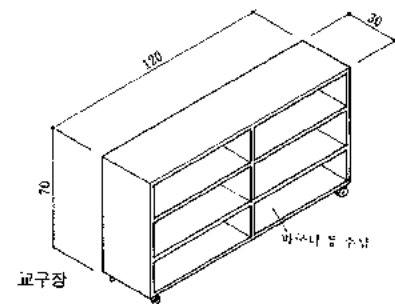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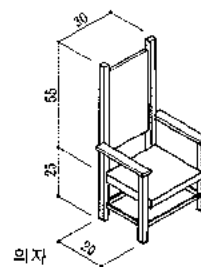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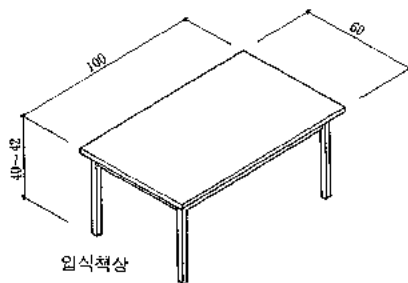
0 ~ 8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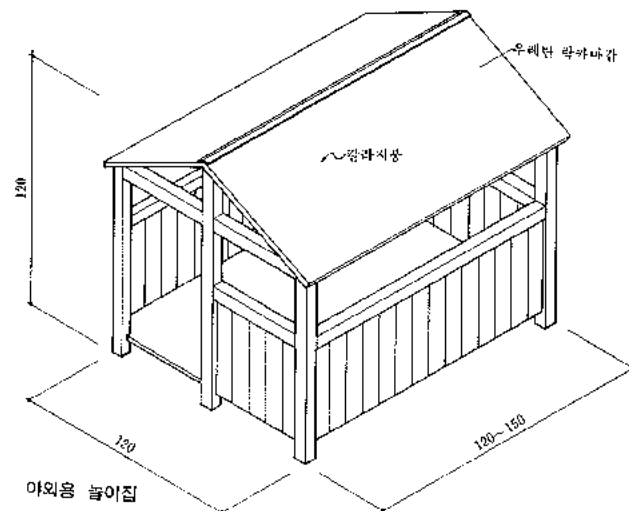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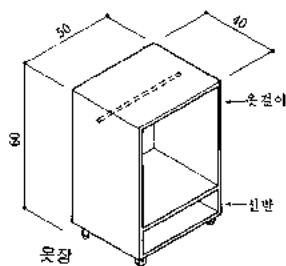
8 ~ 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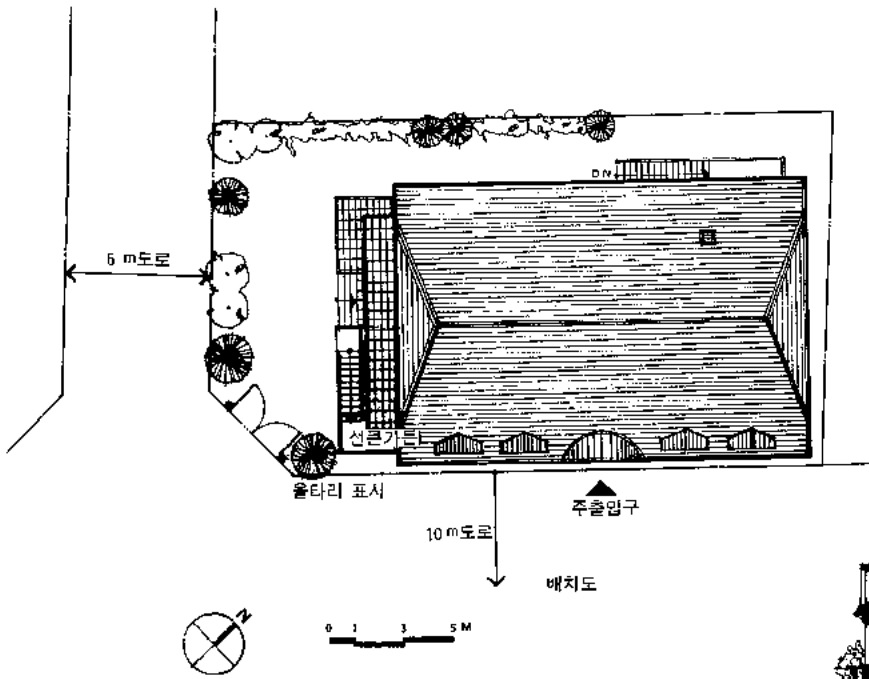
18 ~ 36개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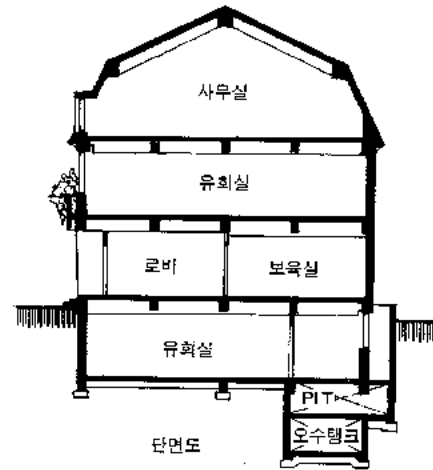
18 ~ 36개월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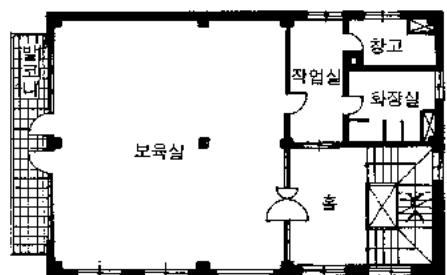
(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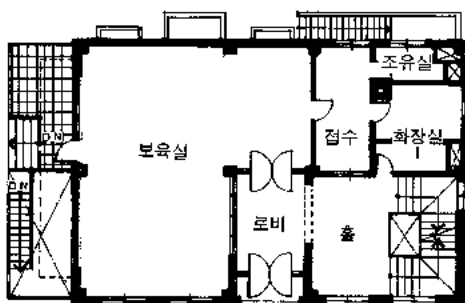
(도면 3) 성남태권아소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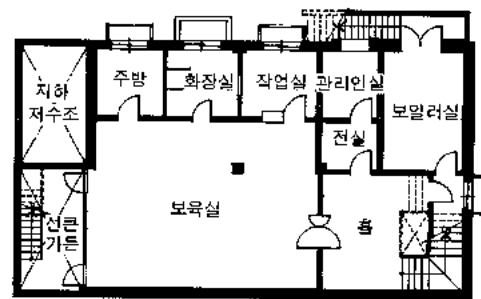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표 8) 건축계획계요

항목	면적 (㎡)
보육실 유희실	65.80
작업실	10.20
관리인실	12.00
주방	9.00
화장실	9.00
로비	18.00
계단실 기타	42.16
보육실 유희실	80.83
입수실	12.02
조육실	6.00
화장실	13.02
로비	17.77
계단실 기타	36.21
보육실 유희실	100.68
작업실	12.51
화장실	8.51
화장실	11.48
계단실 기타	34.06
사무실	108.25
화장실	9.96
계단실 기타	36.19
대지면적	343.50
건축면적	171.24
면적비율	652.48
건적률	49.88%
용적률	141.52%
최고높이	12.12m



지하층평면도



성남 YWCA시범탁아소



계단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방은 서비스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인접하도록 하였다. 지하층에는 자모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장래확장을 대비한 예비용 공간을 확보하였다.

4) 입면 및 가구계획

과도한 단일Mass에서 유아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도록 전체Mass가 분절되도록 설계하였다.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처리하여 유아들에게 집이란 이미지를 주도록 배려하였다. 벽면에서 벽돌 색상의 변화를 주거나 Blind Arch, 원형창을 설치하여 외관에 변화를 주었다.

가구의 치수는 5장 탁아소 시설물의 치수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되었다. 탁아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아용 가구중에 기본적인 가구에 대한 치수계획은 <도면 2>와 같다.

2. 성남 YWCA시범 탁아소

1) 건축계획개요

성남 YWCA시범탁아소의 계획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대상인원은 60명이며 종사원은 유급교사 4명, 기타 5명으로 구성된다. 탁아시간은 오전 8:00—오후 19:00까지 종일제로 운영된다. 대지면적은 343.5㎡이며 건축면적은 171.24㎡로 건폐율은 49.85%로 계획하였다. 각층별 시설규모 및 기능은 <표 8>과 같다.

2) 배치계획

주책공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대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대지의 북쪽으로는 단독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 인천 탁아소 대지에 비하여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 법적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놀이터로 쓰일 공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결국 건물은 남쪽도로에 근접하고 동쪽으로 최대한 밀착된 배치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3) 평면계획

남쪽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다소 여유있는 내부 진입공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서측에는 보육·유희실 등 주기능을 배치하고 동측에는 계단, 화장실 및 작업실 등 보조기능을 집중시켰다. 지하층은 서측 놀이터와 선관가든으로 직결되도록 하여 자연통풍,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2층의 보육·유희실 서측에 옥외 발코니를 설치하여 유아들의 옥외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4) 입면계획

중앙 출입구를 대칭축으로 하여 대칭적인 입면을 주조로 하였다. 지붕형태는 맨사르지붕으로 경사처리하고 삼각형 및 원형 돌출창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주택이미지를 가지도록 하였다. 서측입면은 진입시 식별되기 쉬우므로 넓은 창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갖도록 하고 3층부에는 반원형 아치창으로 하여 유아들에게 동화적인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다.

7. 결론

인간의 성격이나 지적능력 및 정서는 주로 유아기에 형성되므로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유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인간발달단계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유아교육체계에서 유아의 교육 및 탁아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은 연령은 만2세~4세 유아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교육적인 제도나 시설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탁아시설은 주로 만5세~6세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부수되어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만2세~4세 유아를 수용하는 본격적인 시설은 없으며, 이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적인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만2세~4세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활동특성 및 신체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이들의 활동특성 및 신체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탁아·보육시설의 건축물 계획지침과 시설물 치수계획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위에 제안된 탁아소 계획·설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범 탁아소 건축설계의 실제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된 유아의 활동특성 및 신체치수 등의 기존자료는 불충분한 점이 있었으므로 건축계획지침과 시설물치수 계획을 유도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탁아·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인간공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협동하여 종합적으로 이론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요망된다.

□註□

- 1) 주경란, 「취업모에 있어서 경제활동 상태별 탁아소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2.
- 2) 김영모외, 「한국아동복지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3)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 Vol3, 윤정섭 감수, p8
- 4) Decker & Decker,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A Bell & Howell Company, p66
- 5) 일본건축학회, 「앞의 책」 p29(신장과 보폭의 관계를 직선보감한 값)
- 6) 「앞의 책」 p24
- 7), 8), 9), 10)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 고정룡역, p28

□참고문헌□

- 김규성, 「유아교육론」, 기독교방송문화센터.
-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建築形態의 리듬

Rhythm in Architectural Form

金光鉉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Kim, Kwang-Hyun

1. 리듬의 意味

오늘날 리듬이라는 개념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의 건축 설계 작업에 있어서도 리듬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부수적으로만 취급될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고전적인 미의 장로에 속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형태 개념이라기보다는 먼 과거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리듬이란 오늘날의 건축 형태에 대한 의식 속에서 실제로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리듬이라는 개념이 쓸모없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리듬에 대한 의미가 변환되거나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리듬의 개념은 음악, 시학, 철학, 미술, 건축 등 여러 장르에서 되풀이되어 등장하였다. 그러나 리듬에 대한 예술적인 정의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추상적이다. 리듬의 어원은 rhein(흐른다)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크세노스(Aristoxenos)는 리듬을 「시간의 질서」라고 정의하였으며, 플라톤은 「운동의 질서」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원렘스(Edgar Willems)는 「리듬이란 운동과 질서 사이의 관계성이다.」(『음악적 리듬』)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리듬이란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運動」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근대 예술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리듬을 중심 테마로 삼는 것은 1920년대의 러시아 형식주의였다. 그들은 시의 언어에 대한 리듬을 단순히 부차적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統辭的인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한 사람이었던 오십 브릭(Osip Brik)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交替는 모두 리듬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交替하는 것의 성질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리듬이란 운동과 정의 특수한

표현이다.」(『러시아 형식주의의 논집』)라고 말함으로써, 리듬의 개념을 규칙적인 반복·순환 운동으로 설명하였다.

「리듬이란 유사한 것들의 更新이며, 分節的인 持續性을 갖는다.」(『리듬의 본질』)라고 말한 클라게스(Klages)의 말은 리듬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유사한 것들의 갱신이란 原型이 되는 반복의 단위가 변형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原型과 變形과의 관계는 리듬의 본질이 된다. 그림1과 같이 같은 音列에 10가지의 서로 다른 리듬을 가하면 각각 그 리듬의 차이에 의하여 뚜렷하게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가 될 것이다. 동시에 리듬의 본질인 규칙적인 반복이란 하나의 단위가 시간적인 진행에 따라 다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리듬에는 반드시 단위를 만드는 分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分節이 결합하여 전체를 구성해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持續이 있어야 한다. 한편 리듬을 요소의 규칙적인 반복·순환운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환이 어디까지나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힘 즉 兩極性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듬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격을 ①原型이 되는 단위에 대한 인식, ②原型과 變形과의 규칙적인 관계, ③반복, ④대립적 요소, ⑤시간적 관계와 이에서 비롯되는 運動의 의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2. 建築形態의 리듬

비트루비우스에 의하면 질서(taxis)의 數的·知的인 원리는 심메트리아(symmetria)에 의하지만, 그 질서의 형태적·시각적 원리는 에우리트미아(eurythmia)에 의한다고 보았다. eurythmia란 eu(좋은, 아름다운)와 rhythmos(리듬)가 합친 말로서, 「부분의 좋은 리드미컬한 배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建築十書 第1書 第2章』). 즉 「좋은 리듬」이란 음악에서는 귀에 듣기 좋은 음의 배열이지만, 조형에서는 눈에 보기

좋은 부분적 요소의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메트리아에 있어서는 건축의 형태가 양적으로 규정되고 이성으로 이해되지만, 에우리트미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질적으로 규정되고 감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에서 두 원리는 상호보완적인 것이었다.¹²⁾

에우리트미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요약하면 심메트리아의 질서에 현실적인 작용(시각적인 외관, 건물의 용도, 대기등의 환경과 같은 장애 요인)이 가해질 때, 심메트리아를 깨면서도 그 작용을 효과적으로 살려 미에 도달하는 실천 원리이다(예를 들어 시각적인 보정을 위해 모퉁이의 기둥을 굽게 한다든가 페디먼트의 아래 변을 곡선으로 약간 들어 올리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에우리트미아는 심메트리아의 내칭성에 대하여 反對稱力을 살려 미에 도달하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우리트미아는 심메트리아와 쌍을 이루는 개념이다.

동시에 에우리트미아는 리듬과 조화를 관련짓는 개념이다. 쇼와지(Choisy)의 해석에 의하면, 에우리트미아란 「리듬에 의한 조합이다. 즉 음악의 음표나 시의 음절과 같이 건물의 각 부분이 양을 갖고 그것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요소의 반복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정연한 數的 關係의 調和이자 관계의 리듬이기도 하다. 리듬은 보통 繼起性과 관계되지만,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에우리트미아란 同時性과 관련된 것으로서 調和의 개념에 가깝다.

한편 건축 형태에 있어서 리듬이란 크게 공간 속에서의 運動, 모티프의 반복, 기둥의 간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첫번째의 리듬이란 인간의 신체가 공간 속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형태의 현상적인 측면에 대해서이다. 슈마르조(Schmarsow)는 『藝術學의 基礎概念』(1905년)에서 조형상의 원리를 인체의 차원에 적용시켰다. 즉 인체의 상하의 높이는 비례를, 좌우의 폭은 대칭을, 전후의 깊이는 리듬의 범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형

- 그림 1> 동일한 윗줄에 적용된 리듬
 그림 2> 리듬의 일반적인 개념
 그림 3> 「어느 사원의 퍼스펙티브」(피라네지)
 그림 4> 리듬의 전후 관계

원리 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리듬이다. 왜냐하면 리듬은 깊이 방향으로의 운동 속에서 대칭과 비례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듬에 있어서 轉移는 직물의 縱絲라면, 그러한 시간적인 경과를 차단하는 것은 橫絲이다.」 다고베르트 프라이(Dagobert Fry)도 역시 『고딕과 르네상스』(1921년)에서 르네상스 건축은 同時的으로 파악되지만, 고딕 건축은 인간이 운동함에 따라 繼時的으로 파악된다고 보고, 리듬을 공간 前後의 繼時的이며 동적인 조형 원리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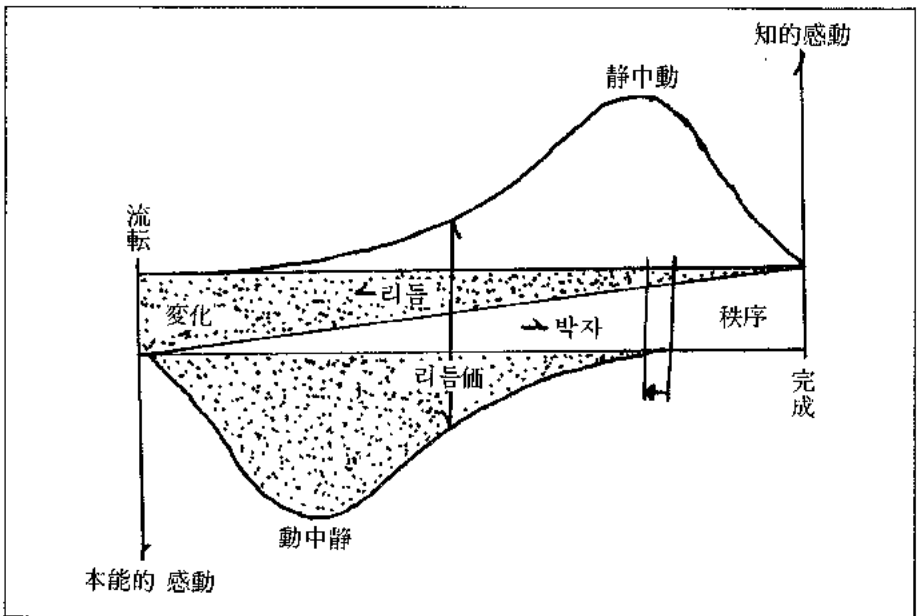
물론 이와 같은 리듬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며 이론적이어서 리듬의 실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이란 인체가 공간 속에서 運動할 때 나타나는 건축 형태의 규칙적인 분절을 의미한다는 것과(그림 3), 건축 형태의 리듬이 지니고 있던 의미가 확대되어 점차 시간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갔다는 점이다.

기다온(Giedion)이 『공간·시간·건축』(1941년)에서 말하는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時空間 개념도 사실은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 건축을 설명한 요아힘 페츨(Joachim Petsch)의 『블럭과 리듬』(Block und Rhythmus, 1970년)에서 보듯이, 근대 건축의 리듬은 폐쇄적이며 완결된 존재(블럭)와 대립되는 동적이며 시간의 개념을 가진 개방적인 공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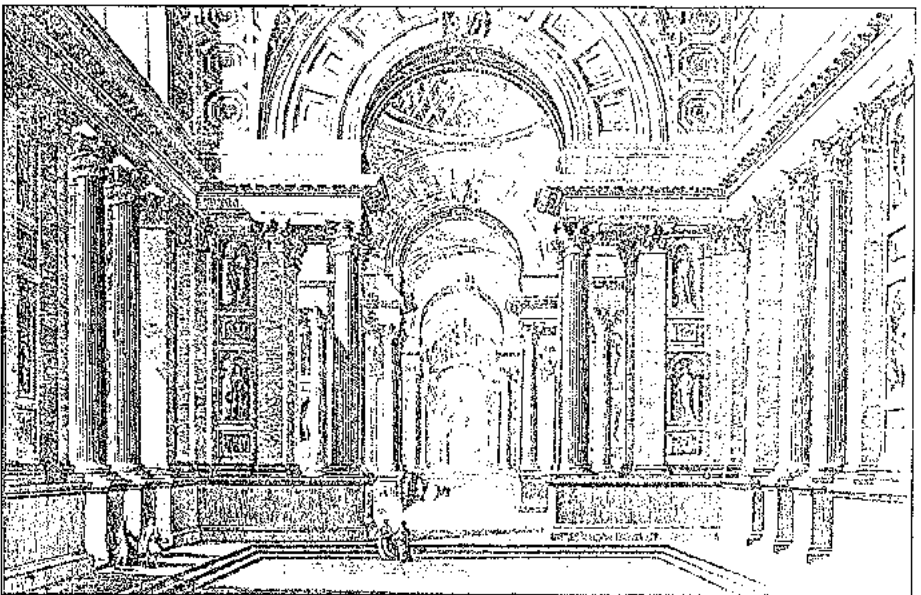
또 건축 형태의 리듬은 반복되는 모티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티프는 어디까지나 대립적인 형태의 兩極性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모티프에는 강조된 요소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단순한 포티코나 아치 또는 이들이 중첩된 것 뿐만 아니라, 실체/허체, 돌출/후퇴, 평탄/곡면과 같은 형태의 대립적인 성질도 포함된다(그림 4).

건축사가 파울 프랑클(Paul Frankl)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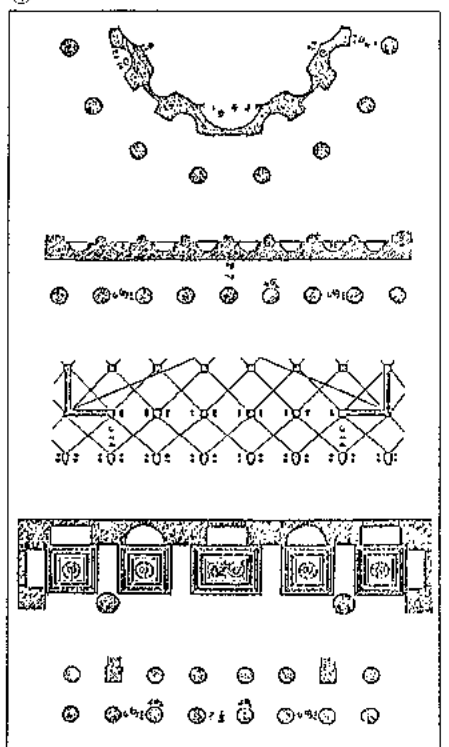
③



①



④



『建築形態の原理』(1914년)에서 건축 형태를 群과 列로 나누고, 群에 대하여는 부속 중심이 리드미컬하게 배열된 群과 리드미컬한 列 및 부속 중심이 리드미컬하게 배열된 列 등을 통해 르네상스 건축 형태를 附加의 원리로 분석하였으며, 이와는 대립적으로 바로크 건축은 반대로 分割의 원리에 의해 리듬이 소실되어 감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그림 5)와 같이 하나의 중심 공간 주위에 각 변에 대하여 동등한 부속공간이 부가되면 리듬을 갖지 못하지만, 산토 스피리토의 聖具室(그림 6)이나 산타 마리아 델라 파시오네(그림 7)처럼 서로 다른 모티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이를 리드미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列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렌체의 산 로렌초(그림 8)와는 달리 산 살바토레(그림 9)처럼 크고 작은 도움과 원통 보울트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리드미컬한 列이라 부른다. 그리고 아논치아타 교회(그림 10)는 도움 A에 대하여는 그 좌우에 원통 보울트 b가 배열되고, 원통 보울트 B에 대하여는 작은 세 개의 도움이 a a a의 리듬으로 배열된다. 산티 플로라 에 루칠라 교회(그림 11)의 경우는 보다 복잡하게 身廊 부분에는 B A B A의 리듬이, 그리고 側廊 부분 B에는 b a b가, A에는 원통 보울트 c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分割이란 분절된 부분이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附加와는 달리 보다 큰 전체를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는 공간 전체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부분은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프랑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형태 전체가 공간속에 놓여 있다는 감각, 다시 말하면 보다 큰 전체로부터 상호관입한다고 보는 감각 앞에서는 리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는...폭넓게 연속하는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게 된다.」²⁾

이와 같이 리듬이란 原形을 이루는 단위와 그에 의한 규칙적인 分節이 전체 조건이 되며, 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인식하는 의식속에서는 형태의 리듬은 성립되지 않는다.

건축 형태의 리듬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기둥의 간격(spacing)이다. 그런데 고전 건축의 리듬에서는 강조되는 요소와 그렇지 못한 요소의 상대적인 간격이 韻律의 단위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정한 형식을 결정해 준다. 예를 들어 모돌루스에 의한 고전건축의 기둥

배열(intercolumniation)과 신전의 형식은 다름 아닌 이러한 기둥 간격에 의한 리듬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림 12).³⁾

그러나 일반적인 파사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알베르티의 팔라조 루첼라이의 파사드(그림 13)는 배이의 간격이 A A B A B A A A (A<B)의 리듬을 갖는다. 이 때 리듬은 한 배이를 구성하는 필러스터의 간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필러스터라는 모티프 자체는 동일하다. 팔라조 델라 칸첼레리아(그림 14)는 보다 복잡하여 A B A B A B (A<B)의 리듬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기둥의 간격만이 아니라 창이 없는 베이 A와 창이 있는 베이 B라는 모티프 자체의 형상도 들어가 있다. 이처럼 기둥의

간격과 모티프의 형상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있는 예는 아마도 팔라조 베빌라쿠아일 것이다(그림 15). 먼저 배이의 간격은 A B A B A B A(A<B)이지만, 피아노 노빌레(2층)의 좁은 베이 A에는 3각형의 페디먼트와 궁형의 페디먼트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궁형의 페디먼트를 C라 한다면 리듬은 A B C B C B A가 된다. 다시 반원 기둥의 플루팅에 주목하면 그 플루팅의 회전 방향이 수직인 것, 좌회전인 것, 우회전인 것이 a b c a a b c a의 리듬을 이루며 나타난다. 따라서 이 각각의 리듬을 합하면 전체의 리듬은 a A b B c C a B a C b B c A a이라는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반복되는 모티프로서의 건축 형태의 리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①모티프의 차원, ②모티프의 관계, ③모티프의 주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조화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그림 16의 1은 D=2차원, P=선형, R=1(합동), A=분절, 접합, C=1, a a a a이며, 2는 D=2차원, P=중심형, 나선형, R=상사, A=분절, 접합, C=4, 3은 D=2차원, P=선형, R=1(합동), A=분절 접합, C=1 a a가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도식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르 코르뷔제의 리듬의 수법과도 관계가 있다).

모티프의 次元	[D] (dimension)	1차원, 2차원, 3차원
모티프의 關係	[P] (pattern)	중심형(群)·····동심원, 나선형 선 형(列)
	[R] (ratio)	合同(R=1), 相似(R≠1), 類似(R은 불능)
	[A] (articulation)	分節(분리, 접합) 重合
모티프의 週期	[C] (cycle)	C=1; a a a a a a C=2; a b a b a b C=3; a b c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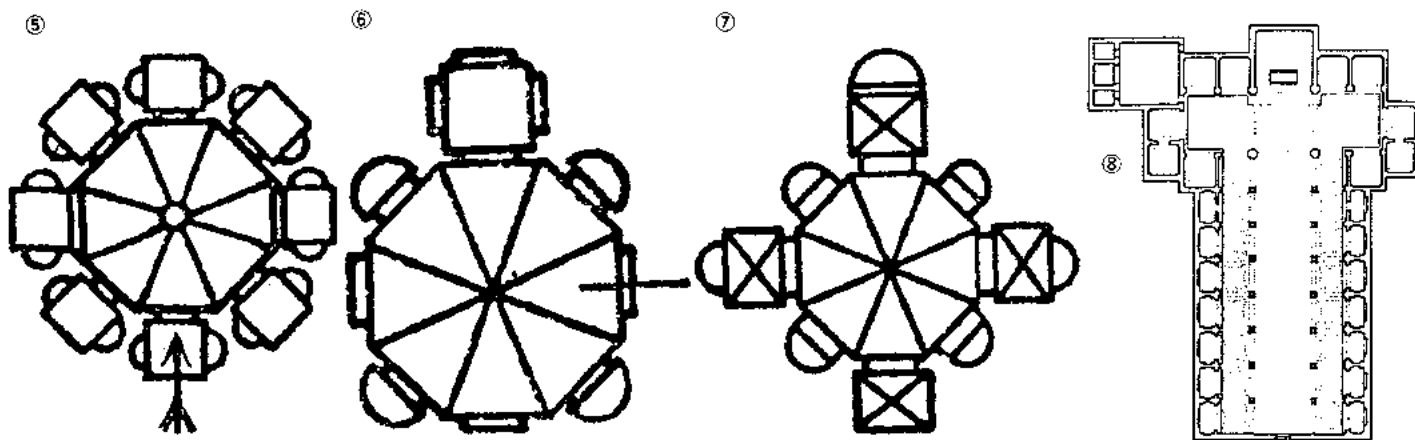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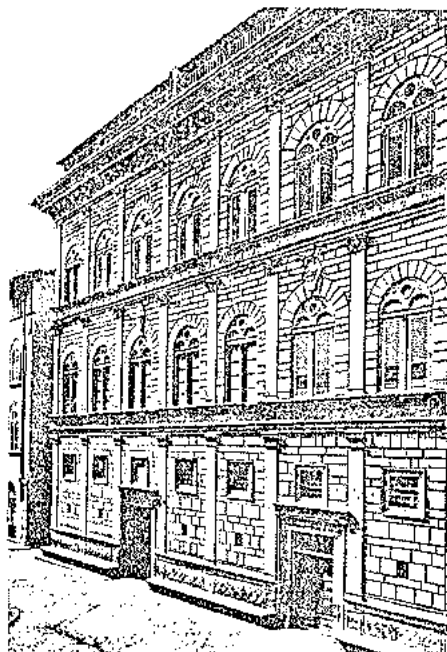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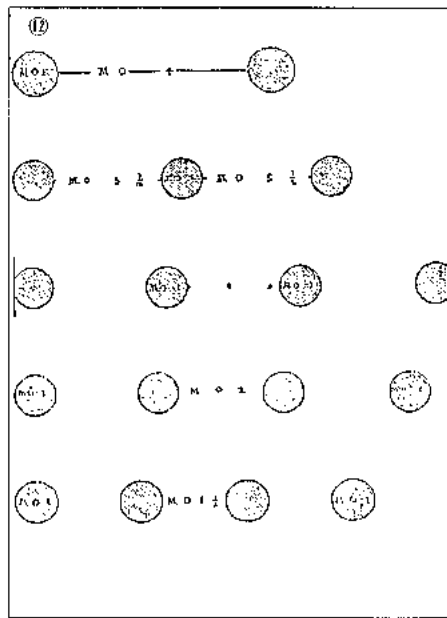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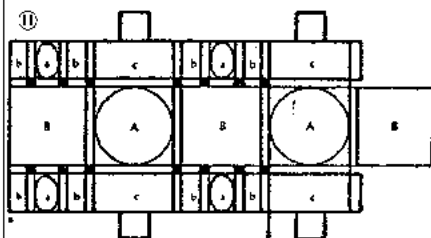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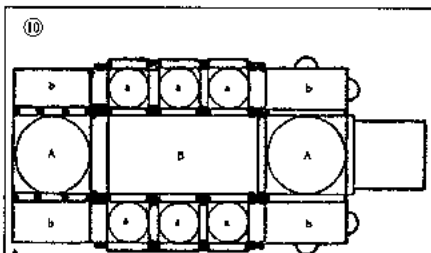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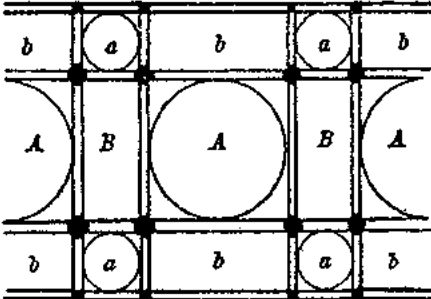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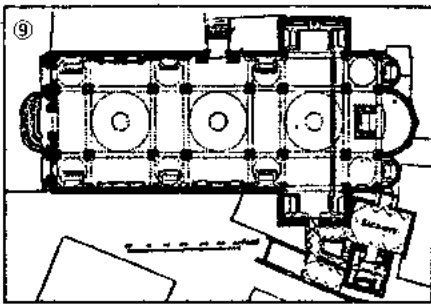


그림 5> 산타 마리아 안젤리 교회의 평면 모식도
 그림 6> 산토 스피리토 교회 聖具室의 평면 모식도
 그림 7> 산타 마리아 델라 파시오네의 평면 모식도
 그림 8> 산 로렌초 교회 평면
 그림 9> 산 살바토레 교회 평면 모식도
 그림 10> 아논치아타 교회의 평면 모식도

그림 11> 산티 폴로라 에 루칠라 교회의 평면 모식도
 그림 12> 각종 오더의 기둥 배열
 그림 13> 팔라쑈 투절라이
 그림 14> 팔라쑈 델라 칸첼레리아
 그림 15> 팔라쑈 베릴라루아
 그림 16> 모티프로서의 건축 형태의 리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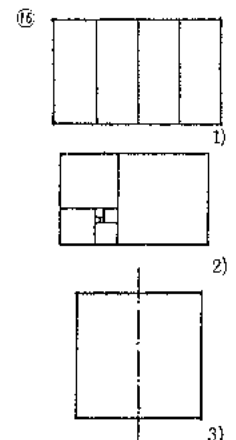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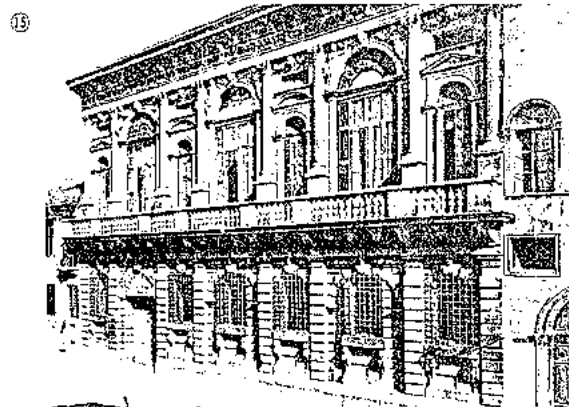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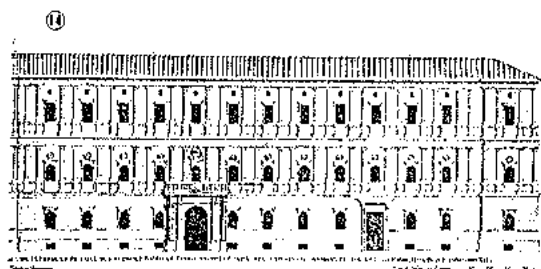


3. 近代建築形態의 리듬

근대 건축에서의 리듬의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인터네셔널 스타일(International Style)에 의한 規則性으로서의 리듬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未來派나 데 스타일(De Stijl) 및 러시아 構成主義에서 논의되는 力動性으로서의 리듬의 문제이다.

히치코크와 필립 존슨은 『인터네셔널 스타일』에서 그 양식의 제2원리로서 規則性을 들고 있다. 「골조 구조에서 支柱는 힘을 균등하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等間隔으로 배치되는 것이 통례이며 전형적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건물은 그 근처에 규칙적인 리듬을 갖는다.」⁴⁾ 이때 규칙적인 리듬이란 골조 구조로 실체화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리듬은 구조적인 이유에서 결정된다. 그 결과 이러한 규칙적인 리듬은 정방형이나 직사각형의 격자에 의해 3차원에 걸쳐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을 전제로 한 리듬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듬의 규칙성은 골조 시스템을 가진 전체에 적용되며,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의 단위는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그림 17).

콜린 로우도 지적하였듯이 공간의 流動性은 격자를 바탕으로 한 리듬의 산물이다.⁵⁾ 격자의 리듬은 골조 구조가 본래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하여 遠心的 構成을 조장하게 되며, 이 遠心的 構成은 건물의 중심을 소개하고 공간의 경계를 강조하여 긴장감을 만들어 내게 된다(그림 18). 한편 이러한 공간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기둥들은 공간 전체에 대하여 리듬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벽은 불규칙하긴 하나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공간의 유동성을 준다. 「분할 스크린의 독립성, 그리고 치수와 배치에서 나타나는 이 스크린들의 변화가 독립 지주의 규칙성과 대비된다.」⁶⁾



그리고 규칙적인 기둥과 불규칙한 벽은 다음과 같이 대비적으로 공존한다. 「눈에 보이는 지주가 기초적인 리듬을 가져다 주는 데 대하여, 스크린의 다양성은 말하지만 억제된 멜로디 또는 건축가가 바라는 서정을 만들어 낸다.」⁷⁾ 따라서 우리들은 근대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격자의 규칙적 반복성이라는 의미의 리듬은 遠心的 構成과 空間의 流動性 및 中心의 廢棄라는 중요한 형태 개념과 직결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건축 중요한 초기의 선언문은 새로운 건축의 조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리듬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조형주의는 그 구성의 리듬과 그 조형적 수단이 분명히 나타나는 상대성을 통하여 진리를 미로서 표현한다」나 「리듬은 순수한 관계의 표현을 상대화한다」(「신조형주의 회화」)와 같은 몬드리안(Mondrian)의 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채색된 사각형의 떠 있는 듯한 면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라면, 「...물체가 움직인다면, 時空間의 질서가 창조된다」(「근대조형예술의 미학적 요소」)는 테오 반 도스부르크(Theo van Doesburg)의 말은 리듬을 물체의 운동감과 같은 의미로 표현 한 것이다. (그림 19). 이러한 의미의 리듬은 바우하우스의 조형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로피우스는 리듬의 규칙을 바우하우스의 형태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水平線의 美學이 「비대칭적이기는 하나 리드미컬한 바란스」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⁸⁾ 그러나 그 형태적 리듬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未來派의 리듬의 개념은 이상에서 말한 동적인 의미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순수하고 조형적인 리듬, 물체의 구축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의 구축,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정적인 상태)이 아니라, 나선의

건축(원동력(dynamism)), ...환경의 완전한 융합과 면의 상호관입에 의한 물체」(「조형적 원동력」)라는 보치오니(Boccioni)의 입장은 이미 고전적인 의미의 리듬이나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규칙적인 리듬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의 운동과 역동성을 뜻하는 것이었다(그림 20). 그리고 未來派의 건축가 산탈리아(Sant'Elia)의 <다이내믹한 건축>은 리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이도 역시 「힘과 물체의 리드미컬한 분배는 정신 상태의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치오니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나움 가보(Naum Gabo)와 페브스너(Pevsner)는 「構成主義의 基本原理」(1920년)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요소로서 시간을 넣으려고 한다. 조형 예술에 있어서 진정한 움직임이 ...동적인 리듬(Kinetic Rhythm)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늘날의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적 리듬이다」(「현실주의 선언」)라고 단정하였다. 한편 라도프스키(Ladovsky)가 이끄는 Inkhuk의 건축 그룹은 構成主義者와는 달리 새로운 형태를 법칙화하기 위해 중요한 표현 수단의 하나로 리듬과 운동을 들었다(그림 21).

그 중에서도 構成主義의 이론적 지도자인 모이세이 긴즈부르크(Moisei Ginzburg)는 주목할 만한 리듬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건축에서의 리듬」(1923년)에서 리듬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건축 구성의 한 측면으로 보고, 리듬은 운동의 보편적인 역학이며 현대의 리듬은 기계의 운동에 있으므로, 기계에 잠재되어 있는 힘의 동적인 균형과 긴장감을 대상에 표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樣式과 時代」(1924년)에서는 「건축 양식의 체계는 ...형태 요소로 물질화된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동적인 리듬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단의 구성적인 특징에 따라 조직된다.」⁹⁾고 강조하면서, 베스닌(Vesnin)형제가 설계한 노동 궁전 계획안에 적용된 리듬을 독특한 백터로 분석해 보이기도 하였다(그림 22).

나아가 체르니호프(Chernikhov)는 「구성 요소의 <리드미컬한 구성>의 프로세스가 해결된다. 각 요소의 내용 관계, 그 조화적 관계, 모든 요소의 선택과 배치 등은 최종적으로 리듬의 설계로 이끈다. 리듬은 우리들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건축 판타지」, 1933년)라고 말했다. 즉 그에게 있어서 리듬이란 단순한 반복에 의한 리듬이 아니라 20세기 건축에 있어야 할 「관계의 리듬」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건축형태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였던 것이다.

또 그는 「建築形態와 機械形態의 構築」(1931년)에서 構築的 構成에 의한 리듬의 7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⁰⁾ ① 진동하는 리듬(동일한 형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그림 23의 1> 다른 형태로 얻어지는 리듬의 표정②), ②轉移에 의한 리듬(서로 다르면서 다양한 간격을 둔 요소들의 수직적 상승·하강③)과 수평적 전진·후퇴④), ③안정된 결합의 리듬(고정된 받침에 대항하는 운동⑤), ④중량감의 리듬(기념성의 기본⑥), ⑤層狀化의 리듬(수직·수평 요소의 높이와 길이가 일정한 확장비로 조합되는 리듬⑦, 8), ⑥擴張曲面의 리듬(곡면 형태가 단일한 운동을 나타내는 리듬⑨), ⑦耐力 모멘트의 리듬(요소와 배열이 받치는 하중의 조화에 의한 리듬⑩). 물론 이와 같은 리듬의 유형은 건축 형태의 리듬을 일반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構成主義는 고전주의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균형, 조화, 안정성, 통합이라는 구성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불안정한 구조의 관계와 공간에 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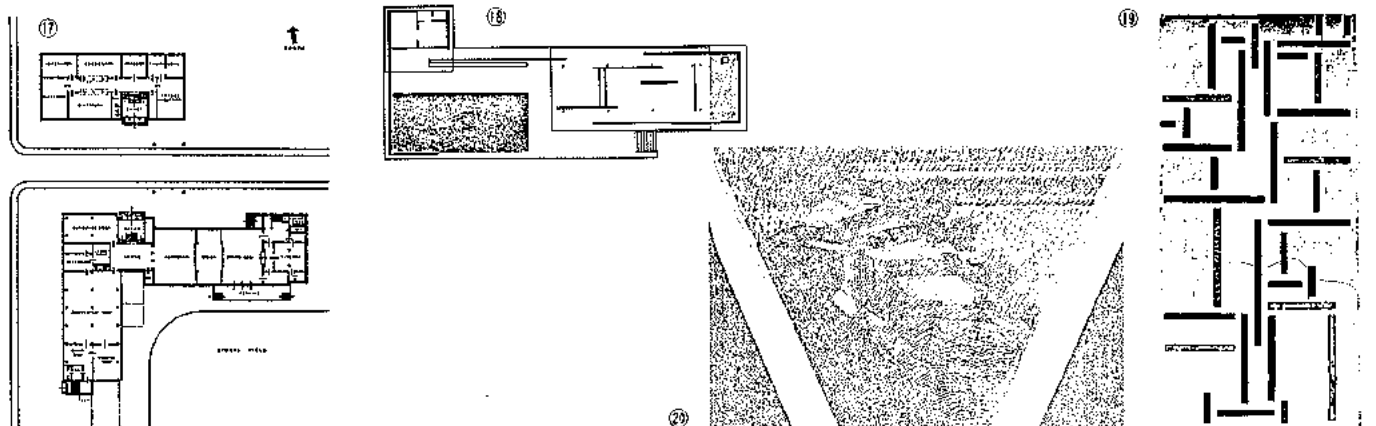


그림 17> 데사우 바우하우스 교사(그로피우스)
 그림 18> 바르셀로나 독일관(미스 판 데어 로에)
 그림 19> 「러시아 무용의 리듬」(테오 반 뢰스부르크)
 그림 20> 「인사의 리듬」(발라)

그림 21> 수직적인 다이내미즘, 리듬, 상관 관계 및 비례를 위한 과제
 그림 22> 노동 궁전 계획안에 대한 리듬 분석(간츠부르크)
 그림 24> 르 코르뷔제의 리듬의 수법
 그림 25> 「補償」을 나타내는 리듬의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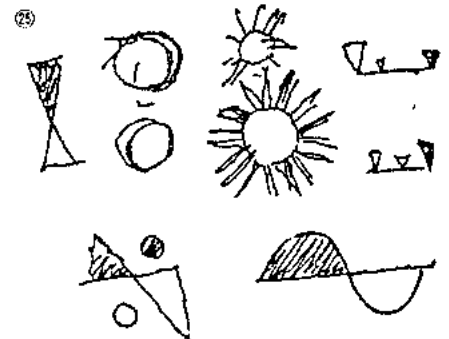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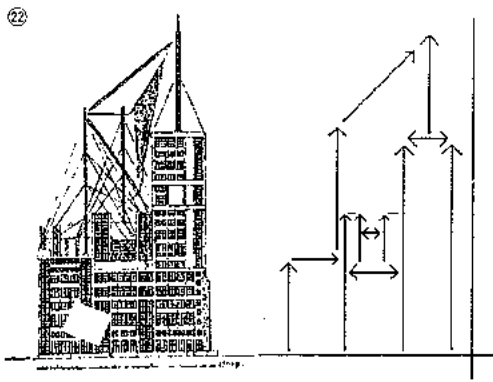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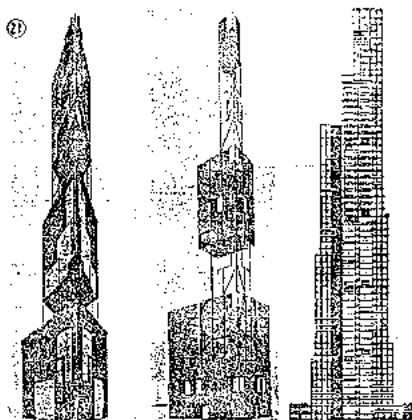
형태의 다이내미즘을 지향하였으며, 이 때 리듬은 이러한 지향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이처럼 근대 건축 형태의 리듬은 고전적인 의미의 형태의 분절과 그것들의 규칙적인 반복이 아니라, 리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와 변형 또는 순환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이른바 「運動」과 「流動性」의 의미로 확대 적용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부정하기 위한 力動性의 용어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건축 형태의 리듬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건축 설계의 중요한 기초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조형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 형태의 리듬을 분석하는 경우 이상과 같은 상반되는 의미와 이와 관련된 파생개념들을 포함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르 코르뷔제 建築形態의 리듬

르 코르뷔제는 「건축을 향하여」에서 건축 형태의 구성을 입체와 면, 평면과 규준선과 관련지어 말하였다. 그는 平面(plan)을 건축 구성의 원동력이라 보고, 平面에 있어서는 고유한 리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리듬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리듬을 비트루비우스의 심메트리아에 상당하는 건축 구성의 최고의 원리로서 위치시켰다.¹¹⁾ 「平面은 기초를 이룬다. 平面이 없으면 의도나 표현의 위대함도 없고, 리듬도 입체도 맥락도 없다. ...平面은 그 자체 속에 결정적이며 기본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같은 법칙에 따라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에서 보인 처방에 의하여 종횡으로 전개해 간다.」

리듬의 수법				
②4	反復	對稱	補像	抑揚
繪畫				
規準線				
스케치				
建築先例				
圖式				



그리고 이어서 그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리듬의 핵심적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리듬은 하나의 均衡狀態이며, 단순하거나 복잡한 對稱性이나 면밀한 평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리듬이란 방정식이며, 等質化(對稱, 反復)(이집트나 인도의 사원), 補償(역방향의 움직임)(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抑揚(처음에 발명한 조형적인 것의 展開)(성 소피아 사원)이다. 각각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본래는 하나의 목적, 리듬 즉 균형인 것이다.」(그림 24) 이처럼 그는 리듬을 均衡으로 정의하고 건축 형태 구성을 위한 가장 큰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리듬이란 等質化, 補償, 抑揚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르 꼬르뷔제의 이론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等質化〉란 대칭과 반복이라는 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수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분적으로는 정적인 반복이 강조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적인 균형을 가진 것이다. 「전체는 건축의 커다란 리듬은 동적이지만, 세부에 있어서는 통일과 확일을 갖게 된다.」(『모듈로 I』)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리듬은 단지 〈等質化〉로만 얻어진 정적인 상태에 대하여 변화를 주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 대립시키는 수법이다(이 수법은 그의 스케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25). 건축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공간과 허체, 빛과 그림자, 직각과 곡면과 같은 질적인 대비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잠재적인 대 대하여, 후기에는 대립하는 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형태 자체가 동적인 것이 된다(앞에서 말한 리듬의 兩極性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이것은 〈等質化〉와 〈抑揚〉을 연결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건축에 있어서는 대비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단순과 복잡, 큰 것과 작은 것, 강과 약의

요소로 교향곡이 만들어진다.」(『유르바니즘』)

〈抑揚〉(展開)이란 補償으로 얻어진 활력을 살리면서 전체에 조화를 주는 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수법이다. 이는 리듬의 수법의 최종적인 것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抑揚은 나선 형태였으며, 이는 황금비와 결합하여 「모듈로」로 이론화된 것이다(그림 26).

그러므로 그가 말한 리듬의 수법은 먼저 〈等質化〉로 정적인 내장과 반복을 만들고, 이에 〈補償〉으로 변화를 넣는 동적인 대비를 더한 다음, 마지막으로 〈抑揚〉으로 전체를 통제하고 동적인 균형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그가 平面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수법에 의해 만들어진 리듬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리듬은 극단적인 대칭은 부분에 한정되며, 전체적으로는 反對稱化를 지향한 것이다. 「정식화된 명확하며 이상적인 결론을 보이자. 이미 루이 14세 때 로제(Laugier)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전체에서의 혼돈...2. 세부에서의 통일성...」(『유르바니즘』) 그리고 그는 리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평면에는 처음부터 정해진 교유의 원초적인 리듬이 있다. ...리듬은 단순한 대칭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때의 ...평형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그의 리듬 이론은 비트루비우스가 말하는 심메트리아와 에우리트미아를 포함한 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듈로 I』의 「회화의 구성을 완성시킨 기준선」이라는 항은 이상의 리듬의 수법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여기에 보인 선은 1911년 아래의 나의 건축적인 작업과 1911년 아래의 나의 회화에 도입한 수법의 증거 자료로서 든 것이다. ...1은 A에서 〈직각의 정점의 위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자연히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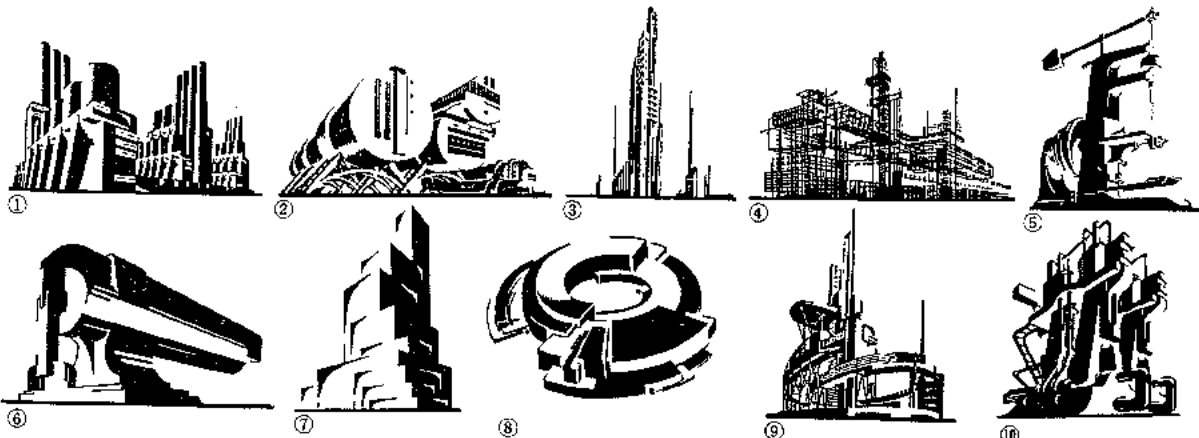
뒤인 1942년에 모듈로를 탐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의 선은 1929년의 그림으로 對數螺旋을 바탕으로 한 것. 3의 선은 정방형과 5각형을 합한 것. 3의 선은 6구형에 근거한다.」¹¹⁾ 그리고 이어서 그림 27의 회화와 분석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는 그림 28과 같이 도해해 보면 이상의 세 가지 기준선을 통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회화에서 사용된 세 가지의 기준선은 다음과 같이 「모듈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하학적인 작도의 순서와도 일치한다. 그림 29의 1에서 황금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방형의 대칭축이 나타난다(對稱). 2의 황금 구형에는 對數螺旋이 포함되어 있다(抑揚). 3과 같은 「직각의 정점의 위치」를 통해 면을 4분할한다(反復). 4에서 다시 직사각형을 대칭으로 분할하고 두개의 정방형을 만들어 낸다(對稱). 그 결과 그의 리듬의 수법은 「모듈로」에 그대로 적용되고, 대상의 부분으로부터 전체에 이르는 비례를 주게 된다.

또 「건축을 향하여」는 이같은 세 개의 기준선을 암시하는 스케치와 설명이 있는데, 이는 각각의 리듬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¹²⁾ 그림 24의 ①의 전체 구도는 기준선 1을 보이고 있으며(「바다의 선은 아키텐트레이브와 함께 구성된다」), ②는 오른쪽 신전을 초점으로 기준선 2가 나타나 있다(부분적으로 補償이 발견된다(「신전은 서로 양보하면서 풍차 문양을 만들며, 이것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③은 기준선 3의 5각형 위치에 산이 있고 벽면이 대칭을 구성한다(그러나 전체 구도는 비대칭화되어 있다. 「로마의 평원과 공명하도록 설정된 바닥, 산이 이 구도를 조인한다」).

이상과 같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르 꼬르뷔제의 설명을 요약하면 그림 24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 표는 회화에서 설명한 그의 算術的, 組成的, 圖形的 比例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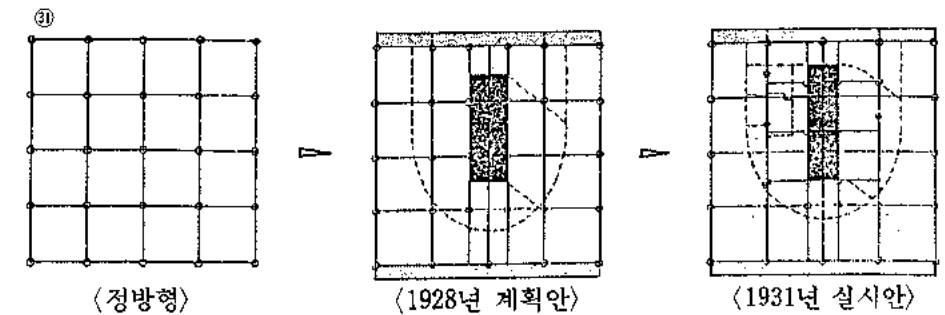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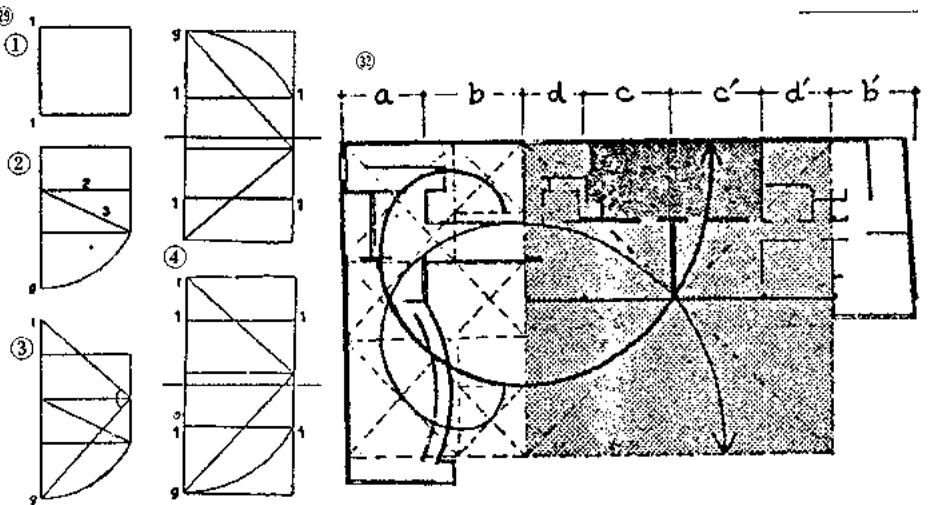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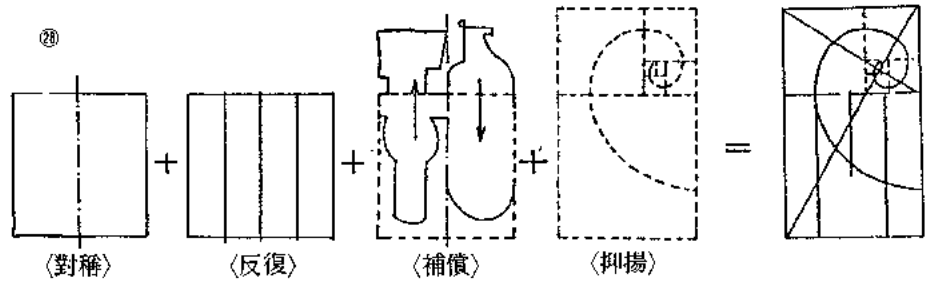
□ 그림 23 체르니호프에 의한 構造的 리듬의 유형
 □ 그림 26 표준선과 모듈로
 □ 그림 27 르 코르뷔제의 회화와 표준선의 통합
 □ 그림 28 그림 27의 분석

□ 그림 29 「모듈로」 적도와 표준선의 통합
 □ 그림 31 사보와 주택의 램프 계획
 □ 그림 32 라 로세 전제로 주택의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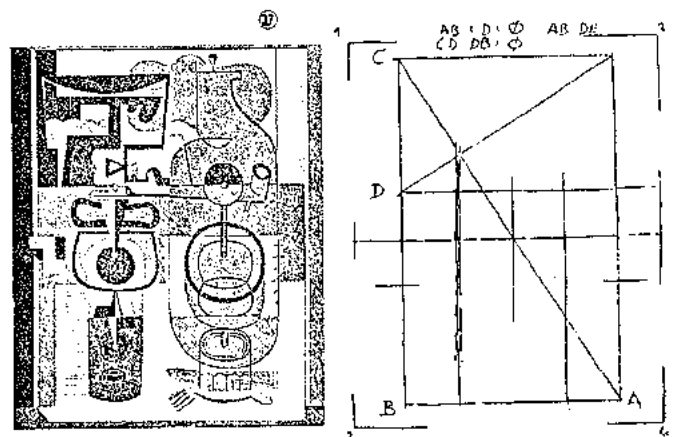
개념과도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並進對稱, 反射對稱, 擴張對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이러한 리듬의 여러 수법은 그의 건축 형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된 것일까? 르 코르뷔제의 설명이 그러하였듯이 기본은 좌우 대칭이며, 그 표현은 격자의 관계에 따라 $\langle aaaa \rangle$ 형과 $\langle abab \rangle$ 형으로 나뉜다(이하는 그림 30을 참조). 먼저 쿡 주택(Cook 1926년)은 각 변이 두 개의 배이로 되어 있으며, 대칭축을 강조하는 계단이 한쪽 배이에 치우쳐 있다. 이에 대하여 사보와 주택(Savoye, 1931년)은 전체를 $aaaa$ 로 만들고 중앙에 램프를 넣어 보다 정확한 대칭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램프에 의한 대칭형의 구성 때문에 기둥의 배열이 중심 부분에서 불규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28년의 계획안에서는 $abbbba$ 를 만들었으나, 1931년 실시안에서는 램프의 폭이 축소되고 기둥의 위치도 상당히 불규칙하게 배열되었는데, 이것은 규칙적인 격자 안에서 대칭형의 램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그림 31). 면직물 공장 경영자 협회 건물(1954년)은 $aaaa$ 로 되어 있어서 대칭축에 해당하는 스펠이 다소 넓기 때문에 이 유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대칭형을 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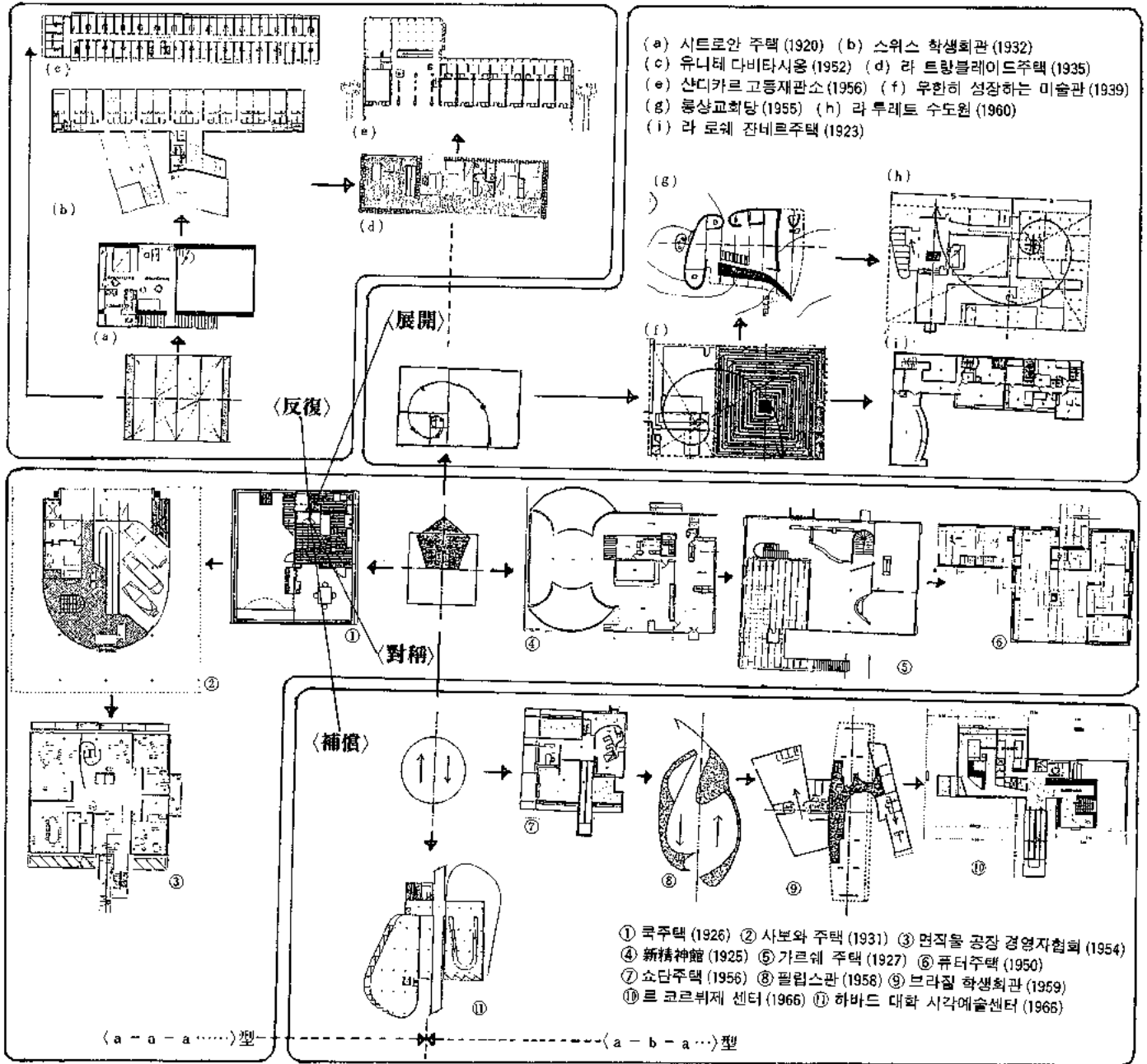
한편 $\langle abab \rangle$ 형은 위와 같이 대칭형이 규칙적인 격자 위에 놓일 때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精神館(1925년)의 주택 부분은 계단을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 $abab$ 의 리듬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왼쪽의 전시장 부분은 bab 로 역전시켜 놓았으며, 직선과 대비되는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다(補償)). 이어서 가스쉐 주택(Garches 1927년)은 전체적으로는 $ababab$ 이지만, 이것은 $abab$ 에 ab 를 더하여 비대칭형으로 만든 것이라고



②	3 차 원	2 차 원	1 차 원
	이 미 지	비 례	인 체 치 수



〈그림 30〉 르 코르뷔제 건축 형태와 리듬의 수법



볼 수 있으며, 이 aba 부분은 新精神館과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퓨터 주택(Futer 1950년)은 caba이지만 이것은 정방형의 평면에 주차장이 붙은 것이다.

이 대칭의 개념이 한 방향으로 확장되면 〈反復〉의 패턴이 얻어진다. 이에 해당되는 작품은 많이 있으나, 초기의 것으로는 시트로안 주택(Citrohan, 1920년)이 있다. 이 주택은 두 개의 정방형이면서 동시에 〈aaaa〉형이 된다. 이 유형이 시스터머틱하게 반복되면 스위스 학생회관(1932년)이나 유니테 다비타시옹(1952년)과 같은 수순한 베이의 반복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유형이 변형된 것으로는 라 트랑블레이드 주택(La Tremblade, 1935년)이나 산디가르 고등 재관소와 같이 Aaaa...형을 취하는 수도 있다.

〈展開〉를 나타내는 가장 흥미있는 작품은 라 로셰 켄네르 주택(La Roche-Jeanneret, 1923년)이다. 이 주택은 2, 3층에서는 abdc'c'd'b'이지만 1층에서는 abcd'd'c'b'가 되어 c와 d, c'와 d'가 서로 바뀌어 있으며, 오른쪽의 b'를 제외하면 황금 구형의 분할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 그리고 cc'의 절삭 부분을 통해 정방형의 대칭성이 강도되어 있다. 이 도식은 실제의 형상만 다를 뿐 가르셰 주택과 같은 리듬의 수법을 쓴 것이다. 또 무한히 성장하는 미술관(1939년)은 주건물은 정방형으로 스케치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된 평면이지만, 주변의 건물의 윤곽을 포함하면 황금 구형과 對數螺旋의 도식에 의한 것이다. 룡상 교회당(1955년)은 이러한 對數螺旋이 리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補償〉의 예로는 먼저 쇼단 주택(Shodhan, 1956년)이 있다. 베이의 리듬은 aaba로 되어 있어서 1층과 2층은

aba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3층과 4층은 램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방이 補償의 리듬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립스판(1958년)은 PC를 사용한 HP 셀 구조로 補償의 역방향의 움직임을 그대로 형태화한 것이며, 이 동적인 형태는 브라질 학생회관 1층 부분과 룡상 교회당과도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는 하바드 대학 시각예술센터(1964년)이다. 전체는 aaa...-a의 균등한 격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정방형이 겹쳐져 부분적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램프를 중심으로 역방향의 피아노 곡선이 補償의 리듬을 완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르코르뷔제 센터(1966년)는 abra의 리듬으로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램프를 축으로 하여 두 개의 정방형이 역방향의 힘으로 시프트되어 있다. 이상의 리듬의 수법과 건축 작품의 형태와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30과 같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리듬의 수법은 작품의 특징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며, 르 코르뷔제가 추구하였듯이 이 네 가지의 리듬의 수법들은 주목하는 형태의 레벨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품들의 전체를 설명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리화한 리듬의 수법들이 실제의 작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추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분석이 정당한 것이라면, 건축 형태의 리듬이란 적어도 건축가 르 코르뷔제의 경우 단순히 건축가의 이론을 수식하기 위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얼마나 작품 전체의 형태구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森田慶一: 建築論, 東海大學 出版部, 1979, p.168
- 2) Paul Frank: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MIT Press, p. 43(『建築形態의 原理』, 金光鉉 譯, 技文堂, p.86, 근간)
- 3) 金光鉉: 「建築形態에서의 數와 幾何學」(건축형태의 이론 ③), 建築士 8903 참조
- 4) H.R. Hitchcock and P. Johnson: International Style, Norton, 1976, pp.56-57
- 5) Colin Rowe: "Neo-'Classicism' and Modern Architecture", The Mathematics of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p.128
- 6) H.R. Hitchcock: 앞 책, p.87
- 7) Walter Gropius: "The Theory and Organization of the Bauhaus", Bauhaus 1919-28, ed. by Herbert Bayer,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75, p.28
- 8) Moisei Ginzburg: Style and Epoch, MIT Press, p.44
- 9) Chernikhov: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and Machine Forms, Architectural Design 54 9/10-1984, pp.70-71. 그리고 「건축 판타지」는 Process 26: Jacob Tchernykhov and His Architectural Fantasies에 번역되어 있다.
- 10)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raeger, pp. 46-49
- 11) Le Corbusier: The Modulor, MIT Press, 1971, pp. 213-215
- 12) Le Corbusier: 앞 책, pp. 178-179

호텔건축의 공간구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I)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gram of City Hotels in Korea

全東勲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교수

by Jun, Dong-Hoon

□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宿泊施設은 신라시대의 驛點이나 客主로부터 시작하여, 1962년 이후에는 국가적인 관광차원에서 支援育成한 결과 세계적인 시설규모와 서비스를 갖춘 대규모 호텔이 건립되고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을 이제까지는 단순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었을 뿐 어떻게 호텔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대적 호텔건축은 歐美에서 발생되어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世界化되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호텔은 서구적 양식으로서 대부분 日本과 美國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따라 한국실정에 적합한 모델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韓國 호텔건축의 現狀을 파악하고 機能과 役割을 충분히 수용한 호텔건축의 계량적인 계획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호텔을 중심으로 문헌고찰, 설문조사, 면적배분조사 등을 실시하여 한국 도시호텔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韓國의 都市호텔의 총체적 조사와 도시호텔의 선도적 입장에 있는 500실 이상의 특급호텔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概念變遷을 통해 현대호텔의 社會的對應으로 "Happy House" 이념과 기업이윤과의 균형이 建築計劃上的基本動機가 되어야 한다.

2) 현대 도시호텔의 機能構成은 宿泊部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空間, 다양한

都市機能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부(Public Area)가 요구된다. 관리운영부에는 서비스의 고급화로 人的서비스의 증대와(인간적 관계 중시) 운영서비스의 자동화 현상이 강조되어야 한다.

3) 현대도시호텔의 건축형태 및 공간구성을 분석함으로써 4개의

形態構成類型(內在形/Within Form, 結合形/Interlocking Form, 隣接形/Adjacent Form, 아트리움形/Atrium Form)과 6개의 內的空間

構成形式(客室部: 線形式/Linear Type, 塔形式/Tower Type, 아트리움/Atrium Type, 共用部: 콘코스形式/Concours Type, 홀形式/Hall Type, 콘코스+홀形式/Concours+Hall Type)을 體系의으로 고찰하여 建築計劃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4) 韓國 특급 도시호텔의 空間配分比는 客室空間 50%, 共用空間 31%, 管理運營空間 19%로 나타났다. 또한 收入空間은 51%, 非收益空間 49%로 나타났다. 規模計劃에 따른 면적배분공식은 $객실면적 = 0.36 \times \text{연면적} / \text{객실수}$ 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조사결과를 回歸直線式으로 구한 것이다.

5)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호텔에 관한 計劃方向과 다음 研究課題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計量的, 可視的 現象으로 구한 것으로서 이것은 호텔건축의 설계상 나타나는 非計量的 計劃資料와 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호텔건축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序論

1. 研究의 目的

인류는 고대문명의 개화와 더불어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현행을 시작하면서 머무를 곳을 찾게 되었고 1,2차 産業革命으로 교통이 발달되면서 호텔사업은 일종의 레저산업으로 변모되어 오늘날의 호텔건축으로 성장되었다.

1600년대 초 영국 글라스고우의 어느 대주교는 호텔은 "죽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언급하였고, 1700년대 사무엘 존슨은 "호텔같이 행복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호텔建築을 찬양하였다. 또한 現代에 이르러 심리학자이며 호텔 경영자인 리네 하트는 호텔을 커다란 幸福感和 歡喜를 맞이할 수 있는 "Happy House"로 정의하면서, 정신과 육체의 행복을 위한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호텔사업의 중요한 教育目標로 설정하였다.

1979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허만 칸은 "2000년에는 관광이 세계 제1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1985년 서머셋 위트스는 "오늘날 관광은 세계 GNP의 11.4%를 점유하는 세계 제1의 산업이 되었다"고 하였다. WTO(세계관광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1986년은 前年에 비해 관광수입이 9.6%가 증가되었음을 불매 觀光의 결정체인 호텔은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텔 건축은 歡喜와 幸福감을 주는 건축물로 인식되면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투자의 80% 이상이 건물 등 시설에 투자되는 등 호텔建築計劃은 호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시설이 全無한 상태였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觀光産業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게 됨으로서 호텔건설은 官主導産業으로서 발생되어 기틀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민간기업에 의하여 시설이 대규모화되고

현대화 된 호텔이 경쟁적으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호텔건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따라서 호텔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오늘날, 기존에 건립된 호텔 건축을 綜合分析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호텔建築資料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建築計劃의 特性을 比較分析하고, 호텔이용자, 경영자, 연구자들의 주관적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대규모 호텔건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目的이 있다.

2. 研究 內容 및 方法

한국 대규모 도시호텔건축의 空間構成(Space Organization)과 空間配分(Space Program)에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한 본 논문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대규모 특급도시호텔 13개로 한정하였다.
- 2) 호텔건축에 대한 논리적 배경으로서 호텔건축의 概念, 傾向, 形態, 空間構成에 관한 내용을 문헌고찰하여 정리하고 외국의 대규모 도시호텔의 공간배분과 공간구성을 조사하였다.
- 3) 우리나라 대규모 도시호텔의 建築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13개 호텔의 形態, 空間構成體系 및 各部 面積을 實査하여 다음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 (1) 호텔의 形態, 空間構成體系 정리
- (2) 호텔의 各部 面積比
- (3) 호텔의 收入과 空間配分關係
- (4) 객실을 기준으로 한 各部 空間配分 및 호텔의 規模

- 4) 호텔건축과 관련된 이용자, 경영자, 연구/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호텔건축에 관한 주관적 의식을 설문지를 사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호텔의 現況問題와 호텔건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 (1) 對象者別認識比較

- (2) 計量的 현황과 認識比較

- (3) 호텔建築設計의 主要點 추출

- 5) 수집된 자료는 K대학교 컴퓨터 센터의 VAX 11-780시스템에 설치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電算처리하였다.

- 6) 자료분석에는 빈도수 X^2 검증 回歸分析, 因者分析등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II. 現代 호텔의 概念과 課題

숙박시설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현대호텔의 原流를 파악하고, 과정에서 나타난 그 유형의 분류와 성격의 정립은 현대 호텔에 나타난 특성이자, 현대의 사회적 배경속에서 나타난 이용자의 동향, 그에 따른 건축동향은 서로 밀접한 관계속에서 새로운 호텔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係時的으로 나타난 오늘의 호텔 개념과 사회적 동향은 새로운 호텔의 性向을 나타내며, 그 현상을 과제로 하는 것이 현대의 호텔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보아 그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1. 宿泊施設의 變遷過程

인류는 고대문명의 기화와 더불어 위험하고 불편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변혁으로 여행의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이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은 레저산업으로 변모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숙박시설은 자연발생적(민간, 개인)인 것과 제도적(국가, 공공단체)인 것이 主體가 되어 변천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질적, 양적으로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宿泊施設 變遷課程을 시대적으로 고찰하면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宿의 시대(産業革命前)
- 2) 호텔의 貴族化時代 (19세기 후반)

- 3) 호텔의 商用化時代 (20세기 초중반)

- 4) 호텔의 多樣化時代 (20세기 후반)

1. 宿의 時代

1) 宿의 發生

문헌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5세기경에 현대의 호텔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적 숙박기능이 나타난다. 그 예로는 리조트유형에 속하는 그리스 스파(Greece Spa), 로마 스파(Rome Spa) 등 온천지 휴양 숙박시설이 발생했으며, 특히 로마인들은 잉글랜드, 스웨스랜드, 중동아시아에 광천 휴양지를 두고 개발하였다.

시티호텔 유형에 속하는 카라반 사리(Caravan Sary)는 중앙 아시아에 정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앞마당에 짐마차를 두고 숙박시설을 둘러싸게 한 것이며, 칸(Khan)은 여행자의 숙소로서 성곽내에 있었다. 로만맨션(Roman Mansion)은 공무집행자와 여행자를 관리하는 숙소로서 로마길을 따라 설치되었으며 리베라(Rivera)는 페니시안(Phenician)과 그리스(Greek)여행자들이 사용한 숙박시설이며, 보당하우스(Boarding House)는 구라파에, 쿠리어 스테이션(Courier Station)은 몽고에서 사용된 숙박의 기초로 볼 수 있다.

2) 宿의 成熟 課程

문헌을 보면 숙박시설의 명칭은

- 호스픽 (Hospic),
- 호스피타러 (Hospitaler),
- 로만하우스 (Roomain House),
- 차이나몽고리아 (China Mongolia)의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 쿠리어 스테이션 (Courier Station),
- 일본 여관,
- 유럽피안 인(European Inn),
- 모나스틱 인(Monastic Inn),
- 잉글랜드 인(England Inn)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C.1100년경부터 유럽에서는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에 대한 자유와 권리로 인해 숙박시설은 점차



발전되었고(Switzerland Three King Inn은 지금까지 경영되고 있음), A.C.1400년경, 프랑스 법률은 호텔 기록부에 대한 규칙을, 영국법률은 인(Inn)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A.C.1500년경부터는 유럽인들의 스파가 칼스바드(Carlsbad)에서 부활되었으며, 새로운 역마차의 개발로 영국에 6천개의 인(Inn)이 설치되었는데 아치(Arch)형 입구와 안마당을 둘러싸는 형태로 객실이 배치되었으며 앞부분에 부엌과 업무용 방과 뒷부분에 조용한 방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최초의 여행자용 인(Inn)이 생겼다.

A.C.1600년경에는 좋은 위치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유럽에서 현대적 호텔의 성격을 가진 숙박시설이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시포트인(Seaport Inn)이 각 도시에 생겼다(예 : Yarmouth Inn Village Inn Tavern).

A.C.1700년경에 미국에서는 클럽하우스와 온천지가 발달하고(Pennsylvania Yellow 온천, Virginia의 White Sulphur 온천), 영국에서는 클럽하우스(Boodle and Coventry Club House)가 개장되었으며, 최초의 복합용도로써 숙박시설(Vendome)이 파리에 생김으로서 숙박시설이 집회의 기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 칼라이스(France Calais)의 데시엔(Dessien)과 코렌트 가든(Corent Garden)은 초기의 대규모 인(Inn)으로 숙박규모가 대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3) 特徴

宿의 발생기는 서양에 있어서

B.C.500년경으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위한 사절단을 접대하기 위하여 迎賓館과 경유지 숙소, 상거래, 종교적 왕래, 귀족들의 온천휴양으로 그 운영은 국가나 종교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시설은 빈약하였고 시행의 불변과 不安定性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成熟期로 들어오면서 이용객은 宗教的, 經濟的 動機로 뚜렷한 시행목적을 가지며, 운영자 및 운영방침의 성격은 자선사업단체 또는 국가가 社會的 義務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었다.

시설규모로 볼 때 대개 소규모의 것들로서 초기에는 숙박 이외에 식사제공이 제외되었으나 후기에 와서는 숙박, 식사, 집회의 성격을 가진 현대의 호텔건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들이 나타났다.

2. 호텔의 貴族化時代

1) 호텔의 胎動

호텔의 어원적 근원은 맨션(Mansion), 스파(Spa), 호스피스(Hospice), 리베라(Rivera), 캄포나(Compona), 호스피타리(Hospitaler), 인(Inn), 터빈(Tavern)으로 현대 호텔이 생성되기까지 많은 명칭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간추려보면 호스픽(Hospic), 호스피탈러(Hospitaler), 인(Inn), 호텔의 順으로 오늘의 호텔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스피탈(Hospital)이란 현대에서 병원으로 통칭되며 사전적 의미로 "A Place of Shelter and Resort for Traveler"로 원시적 숙박시설의 기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텔과 병원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호텔 발생의 시대적 배경은 숙박시설의 융성기인 13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영국의 인(Inn)이 크게 발달하여 왔으며 경영 형태는 소규모의 家內企業形態이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아르러 절대왕권제하에서 특권 계급층(왕족, 귀족)의 영빈용의 호화스러운 객실, 고급요리와 주류, 세련된 서비스등을 완벽하게 하는 私交場所로서 이용되면서 18세기말 처음으로 불란서에서 호텔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19세기 독일의 온천지 바덴바덴에 세워진 바디쉬 호프(Der Badische Hof)는 복원층의 휴양호텔이었고, 19세기 중엽 철도의 발달을 배경으로 스위스를 비롯한 구라과 명승지에 특권계급과 유산계급을 기반으로 한 리조트호텔이 생겼다. 그와 함께 불란서, 독일 등 대규모 호텔이 구라과 각지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호텔의 자본은 왕후, 귀족, 특권유산계급 또는 국가자체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투자한 그랜드 호텔로서 호텔의 貴族化 時代가 전개되었다.

2) 호텔의 貴族化時代

(18世紀—19世紀 産業革命 以後)

1790년대, 산업혁명은 영국을 위시한 구라과, 미국에서 호텔의 발전을 자극했으며, 휴양지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라과 각처에서 휴양지 호텔이 건설되었고 미국에서도 사라토나(Saratona)등 온천지가 휴양지로 개발되었다.

1800년대, 증기선이 진수됨으로 교통이 용이 육로와 해로에 다각적으로 발달됨에 따라 영국의 로얄호텔이 플라이마우스(Plymouth)에 생겼다. 화려한 호텔은 주요 도시에 건설되었고, 초기 휴양지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강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인상적인 클럽 하우스는 휴양지 호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호텔의 시설변화를 보면, 1800년경에 보스턴 엑스체인지 커피하우스(Exchange Coffee House)는 최초로 중앙홀을 도입한 호텔이었으며, 1820년, 보스턴의 트레몬트(Tremont House)는 실내화장실, 객실의 자물쇠와 식단메뉴를 갖춘 호화로운 도심호텔이었다. 호텔 전체에 가스등을 설치한 것은 뉴욕의 홀트호텔이며, 1840년경 뉴욕의 55번가 호텔은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설치하여 수직동선에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1880년경 뉴욕의 에베레스트(Everest) 호텔은 최초로 전기등을 일부 설치하고 그 후 뉴욕주의 사가모(Sagamore) 호텔은 모든 객실에 전등을 설치하였다. 뉴욕의 첼시(Chelsea) 호텔은 최초의 거대한 주거용 호텔이고, 플로리다의 폰세 드 레온호텔(Ponce de Leon Hotel)은 최초로 철근콘크리트 고층구조로 건설되었다. 캔사스시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은 모든 객실에 욕실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런던의 사보이호텔(Savoy Hotel)은 극장, 예배당, 인쇄소, 세탁소등을 함께 갖춘 최초의 호텔로서 현대 호텔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1890년대에는 최초의 아트리움형 호텔로서 미국 덴버의 브라운 팰레스(Brown Palace) 호텔이 구조의 발달과 함께 건립되었으며, 또한 뉴욕시의 아스토리아(original Waldorf-Astoria) 호텔은 그 당시 가장 높은 17층의 호텔이었다.

뉴욕의 네덜란드 호텔에서는 모든 객실에 전화를 설치했다. 스위스에서는 최초의 호텔학교인 에콜 호텔리(Ecole Hotelier)가 개설되었다.

오늘의 호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루이14세(1643~1715)시기에 건설한 베르사이유궁전이라 할 수 있다. 상류계급(왕후, 귀족, 성직자)의 사교장으로서 근대 19세기 호텔건축형식과 서비스방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서 19세기의 호텔은 그 이용자가 주로 特權的 富有階級으로 투자자의 관심은 사회적 명예로서, 운영방침의 성격은 왕후 귀족 취미지향으로, 독립적 대규모 조직을 갖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시설을 이루었다.

3) 特徵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든 교통수단의 발달(해상, 철도교통)과 과학기술혁신은 호텔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엘리베이터의 등장, 고층구조, 전기, 전화 통신시설의 설치와 욕실 설치의 호텔건축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시대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도 호텔학교가 설립되고 규모가 확대되며, 미국을 위시한 새로운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이용객이 증대되어 기업 체산을 중시하게 되어 그 결과 경영기술이 정비된 현대 호텔의 胎動의 基盤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3. 호텔의 商用化時代

1) 社會的 背景

19세기말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기선, 증기기관차, 통신기능, 교통, 정보전달의 혁신을 통해 경제적 활동이 증대되어 인간의 여행수요도 날로 증대되었다. 主 利用者는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의 商用旅行者, 觀光旅行者, 地域住民들로서 低料金 時代로 돌입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호텔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2) 成熟過程

1900년경에는 현대호텔의 동선체계를 갖춘 호텔들이 등장하였다(Buffalo의 Statler). 1910년경에는 최초의 정규 대서양 횡단 비행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상업용호텔(Rochester의 Kahlar Hotel, 뉴욕의 Grand Central Terminal Hotel)같은 초기 복합용도호텔이

나타났으며 뉴욕시의

펜실바니아(Pensylvania) 호텔같이 2천2백개의 객실을 갖는 초대형 호텔이 탄생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현대호텔의 1차 붐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조성되었다. 또 호텔경영을 위하여 미국 코넬대학에 호텔 경영학도가 설립되었으며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와 로얄 하와이안(Royal Hawaiian)이 호놀룰루에 세워져 관광 휴양지호텔이 나타났다.

또한 사무소용 호텔이 최초로 보스턴 스탈러(Statler)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시카고의 스티븐(Steven) 호텔은 2천7백개의 객실을 갖춘 가장 큰 호텔로 개장되어 대성황을 가져왔으나 금주령과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호텔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40년 세계 2차대전 후에도 몇몇의 호텔이 건설되었는데 라스베가스의 프라밍고(Flamingo) 호텔은 최초의 카지노호텔로서 개관되었고, 기타 각지에 많은 호텔이 건설되었다.

3) 特徵
이용자는 일반시민과 업무여행자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호텔과 여러 유형의 호텔이 나타났다. 건축에서는 호텔객실의 標準化, 시설 서비스의 組織化, 호텔건축의 動線體系 확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능과 구조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건축이 활발해졌다. 경영측면에서는 薄利多賣의 이윤추구, 경영 시스템의 확립, 경영의 체인화 운영시스템을 가진 호텔전문 기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Sheraton, Holyday Inn등)

4. 호텔의 多樣化時代

1) 社會的 背景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와 더불어 경제성장과 대중여행이 조성되어 1950년대에는 2차 호텔건설 붐이 조성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일본, 독일등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국이 탄생됨으로 다양한 요구에 의하여 호텔기업은 상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고 1970년대는 석유파동으로 경기침체는 있었으나 대중여행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1970년대에 보잉707이 출현함으로써 호텔건설은 더욱 활성화되며 1980년대에 3차

호텔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

2) 成熟過程

1950年代, 제2차 호텔 붐이 대중여행증가(특히 대서양 횡단비행 서비스)에 의해 조성되면서 휴양지 개발, 카지노호텔의 발전(Lasvegas)등, 관광자원의 확대와 소비의 미덕이 소생되었다.

1960년대, 미국에는 2만 3천개의 호텔과 4만개의 모텔, 170개의 체인점이 경영되었으며 구라과 각지에는 휴양지가 개발되고 각종 집회장소로서 호텔이 기획되었다. (Boston의 Sheraton Hotel은 복합용도 호텔로 최초) 선 안토니오(Sun Antonio)의 힐튼 팔라시오 데 리오(Hilton Palacio de Rio) 호텔은 P.C공법으로 건축모듈을 이용한 최초의 호텔이다.

1970년대, 보잉747 항공여객기의 등장으로 호텔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월트 디즈니랜드(Walt Disney Land)는 호텔 오락여행센터로 개장되었다. 오일폭동에 의한 중앙아시아에 대규모 호텔개발과 호텔서비스를 받는 화려한 콘도미니움이 개발되고 최초로 스위트호텔(Suite Hotel)이 개관되었다. 미국 아틀란타(Atlanta)에는 호텔건축으로서 가장 높은 70층의 피치트리(Peachtree)호텔이 완공되었다. 중국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개방됨으로 국제 호텔전문가들의 개발 참여가 활발해져 호텔산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장 유망시 되는 기업으로 대두되었다.

1980年代, 제3차 호텔 붐이 조성되면서 호텔의 특별한 유형이 개발되고 시장조사에 의해 혁신적인 호텔이 건설되었다.

年代區分	主利用者	投資家の 關心	經營方針의 性格	施設의 性格	組 織	建築的 特性
宿의 時代, 18세기(여행현상의 발생과 더불어)	경제적, 종교적, 동기에 따른 여행자	자선사업	사회적 의무	독립소규모	최저한의 필요조건 의 화고	단순숙박 건축
호텔의 貴族化, 時代(19세기 후반)	부유계급 특권층	사회적 명예	왕후, 귀족, 취미 지향 부가 가치의 증대	독립대규모	설비시설 의 비능률	건축공간의 장식화
호텔의 商用化 時代(20세기초 기부터)	商用여행자	이윤추구 (중소자본)	코스트지향형 코스트의 대중화	체인화 경영합리화	시설설비의 표준화, 합리화, 간소화	객실의 규격화, 건축기능의 합리화 추구, 고층, 대형화, 호텔건축의 정형수립
호텔의 多樣化 時代(20세기 후반)	商用여행자 관광여행사 지역주민	다양한목적(대자본의 투입) 국민복지 (공공투자 의 증대)	가치지향성 경영의 다양화	체인조직과 독립 시설의 공존	시설의 범용화 새로운 이용형태 개발 설비의 자동화	객실의 다양화 형태 및 공간의 이용과 규모의 다양화

공항호텔, 회의소, 스위트(Suit)호텔, 휴가 빌리지(Village), 헬스스파(Health Spa), 해안호텔, 스키로지(Ski Lodge), 타임셰어링(Time Sharing), 콘도등 휴양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카지노호텔이 발전되어 각 지역에 성행되며 컨벤션(Convention) 호텔과 고가의 호텔이 등장했다.

3)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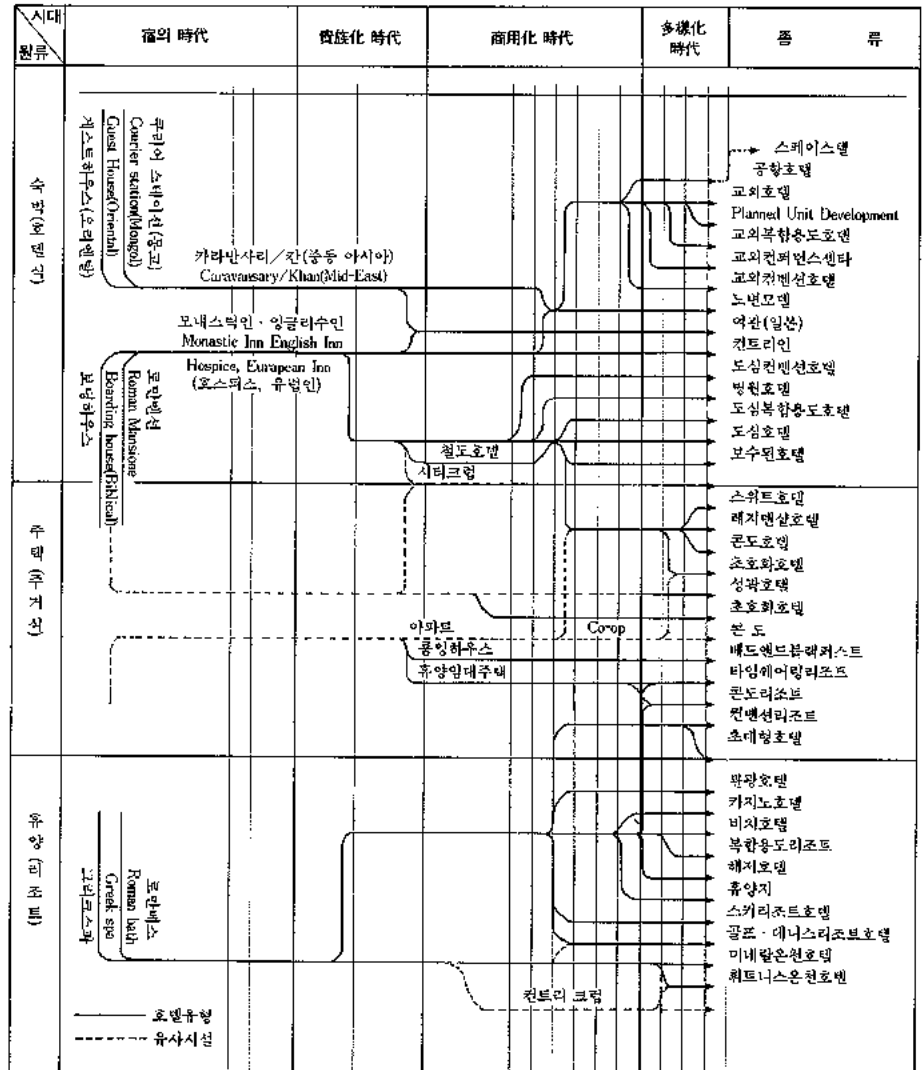
주 이용자는 商用旅行者, 觀光旅行, 地域住民들로서 모임장소로 이용되며 다양한 목적에 적응하는 호텔이 개발되면서 대자본가들의 자본투입과 국민복지시설로서 공공투자도 증대되고 있다.

운영방법상으로는 경영의 다각화와 價値指向形으로 유도되어 체인조직과 독립시설이 공존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형여행과 이벤트창출로 고객유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5. 小結

이상과 같이 호텔의 발전사는 그 시대 社會文化的 尺度로서 나타났으며 그 개념은 고대의 숙박시설에 나타난 유형을 근거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경향도 그 原流에 입각하여 발전 변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개념변천과 그 발전과정(표 II-1) 숙박시설의 개념변천은 <표 II-2>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II-2〉 宿泊施設の 發展過程



建築士 設計作品 巡廻展

作品公募

본 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의 작품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아래 매년 건축사설계작품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전시회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출품작품

1986년부터 1989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 × 90cm (가로 × 세로)
2. 제작요령 /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폴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금지).
- 벽면에 간편하게 걸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 1 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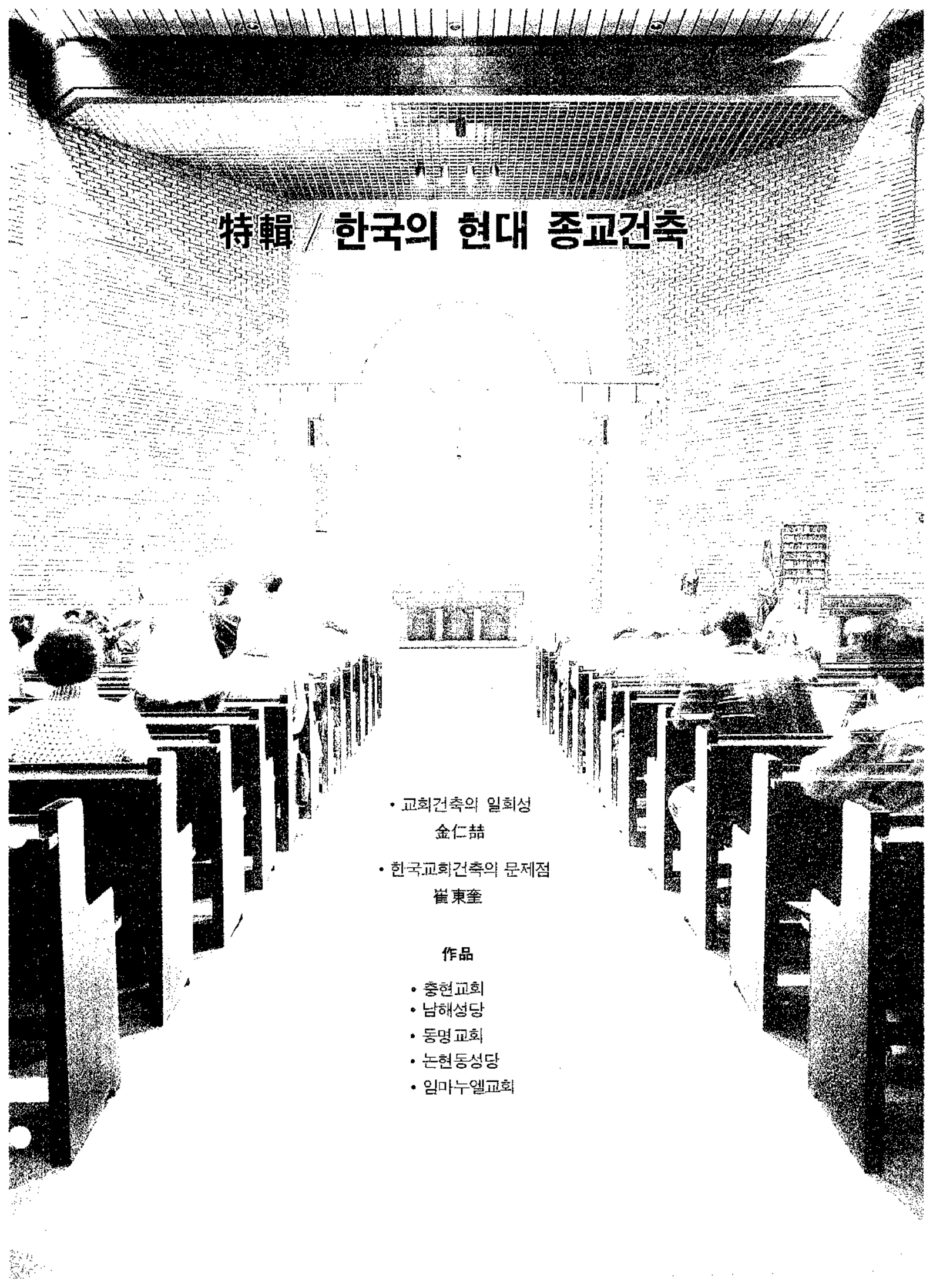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 · 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월 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 ·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패널은 9월 5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수상: (2) 협회장상
장려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제출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581-5711~4)



特輯 / 한국의 현대 종교건축

• 교회건축의 일회성
金仁喆

• 한국교회건축의 문제점
崔東奎

作品

- 충현교회
- 남해성당
- 동명교회
- 논현동성당
- 임마누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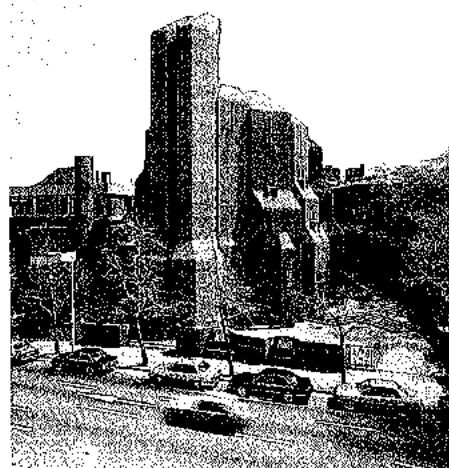
교회건축의 일회성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종교건축물은 당연히 신의 안식처이다. 아니 어쩌면 신에 대한 인간의 열망의 안식처이다. 여기서 신의 존재 유무를 다시 따진다는 것은 우매한 공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유신론자들은 인간 존재의 현존보다 신이 현존을 더욱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같은 극도의 추상성을 담아야하는 용기는 당연히 상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왔다. 그래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의 종교건축은 항상 당시대의 대표작일 수 있었다.

건축은 당 시대상황의 구체적인 표현체라는 진부한 명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건축은 항상 그 시대를 대변해 왔다. 그렇다면 80년대의 건축적 상황을 되돌아보기 전에 그 사회상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인가. 거창하게 정치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80년대가 정치적인 격랑의 시대였다느니 아니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시기 였다느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등의 온갖 매스컴정후군으로부터 한발짝 물러나 우리 사회를 소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곳은 이미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밤의 천국(?)에서는 히로뽕이 난무하고 이른바 신의 최후의 정벌이라는 에이즈가 급속한 속도로 우리사회를 잠먹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땀흘려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던 말인가.

이처럼 착잡한 심정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의 보루가 되고 있는 종교건축물들을 살펴 보노라면 조금의 위안을 찾을 수도 있을듯 하다. 하지만 필자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지 못한 관계로 어쩌면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토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수도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종교건축물은 당연히 신의 안식처이다. 아니 어쩌면 신에 대한 인간의 열망의 안식처이다. 여기서 신의 존재 유무를 다시 따진다는 것은 우매한 공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유신론자들은 인간 존재의 현존보다 신이 현존을 더욱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같은 극도의 추상성을 담아야하는 용기는 당연히 상징성을 최고의



▲경동교회



▲양덕성당

가치로 삼아왔다. 그래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의 종교건축은 항상 당시대의 대표작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시대이어서 인지 종교건축은 은행이나 사무소, 호텔등보다도 대우를 못받고 있다.(여기서 종교건축이라함은 교회와 성당을 지칭한다. 불교와 이슬람교등의 종교건물들이 이번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순전히 필자의 게으름 때문이다.)

명동성당으로 시작된 우리의 교회건축 역사도 벌써 한세기를 과거속에 묻어버리고 있다. 그후 필자가 보기에 교회건축은 김수근의 마산 양덕성당이 등장하는 70년대 후반까지 거의 정체현상을 보인다. 얼마전



▲명동성당



▲관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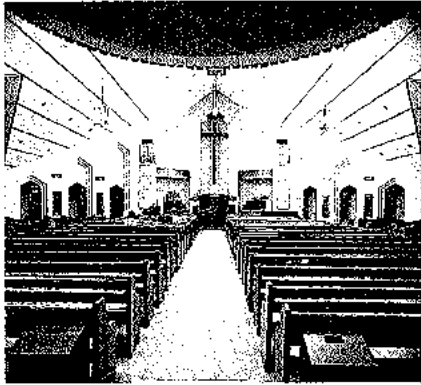


▲신천동성당

우리 모습을 둘러본 일본의 건축평론가 우에다 마고도씨는 한국의 풍경으로 인상적인 것 세가지를 들었는데 첫번째는 새벽 이른 거리에 나섰을때 여기저기에서 빛을 발하며 돌아가고 있는 이발소의 색등이 아침의 가라앉은 분위기에 묘한 생동감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청계천 상가나 주택가에서 본 화물운반용 자전거의 프레임이었다고 한다. 세련된 스포츠형이 아니라 짐을 실을수 있도록 보강된 강건한 형태가 주는 느낌이 하도 강해서 하나 사 갖고 싶었다고 한다. 세번째가 교회의 십자가였는데 도심지와 주택가, 심지어는 아파트단지내에도 빠지지 않고 보이는 십자가의 군상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더구나 시골의 마을을 돌아보면 그 십자가의

위치는 한결같이 마을의 중심이거나 마을을 내려다 보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축의 형태는 한결같이 박공지붕과 첨탑, 붉은벽돌과 아치의 조금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한눈에 교회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딕양식의 첨탑교회가 우리의 교회건축을 80년동안 지배해 온 결과다. 신화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인 해석이나 표현보다는 기독교의 영구불변한 규범의 양식이 우선한 결과이며 그것은 지금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하튼 한국 현대건축의 파이오니아였던 김수근선생은 일련의 적벽돌연작(양덕성당, 경동교회, 불광동성당)을 통해 교회건축의 상징적인 표현력에 대한 가능성을 함차게

보여주었다. 한때 고트프리트 뵘의 교회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김수근선생은 그동안 금기로 여겨져 왔던 교회건축의 원형(prototype)에 과감히 도전하여 그후 보다 다양한 표현의 교회건축이 가능하도록한 업적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김수근선생과 같이 일가를 이루었던 김종업선생에게는 종교건축의 작품이 눈에 띄이지 않는 점이다. 김수근선생의 경우에도 그분의 작가적 경력을 감안할 때 종교건축과의 인연은 상당히 늦은 편이고 수도 그리고 많지않다. 그래서 그런지 그후의 교회건축은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선 교회건축에 관여하는 건축가의 저변이 무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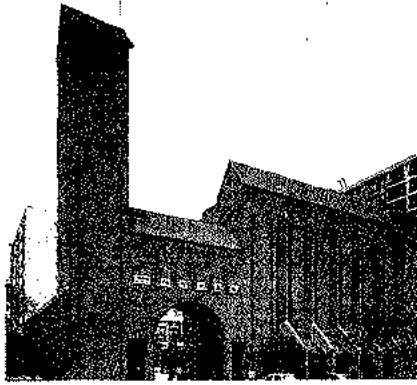


▲개포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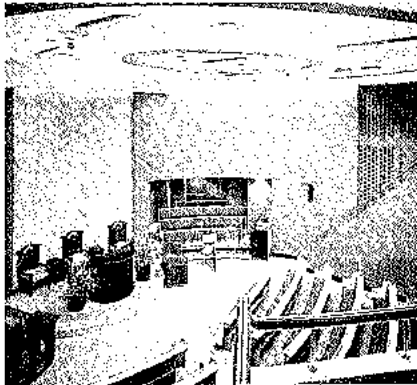
좁기 때문인듯 하다. 대개 교회는 건축주가 일종의 협의체일때가 많다. 따라서 웬만한 독심이 아니고는 그들의 복잡한 요구를 하나의 오브제로 빚어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하다. 더구나 교회자체가 비영리단체인 관계로 공사비나 설계비의 마련이 한마디로 세월이다. 그래서 대개는 교회건축에서 진을 다 빼고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필자가 손대었던 동명교회도 설계, 시공 과정에서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준공을 이루지 못한채 있고 김기석씨의 학봉교회도 아직 공사중에 있다.

결국 80년대의 교회건축은 10여명의 뚝심 좋은 건축가들이 이끌고 갔다고 봐야 한다. 그중에는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이미지화한 김기석의 학봉교회, 성당을 지하로 끌어내리고 유리 벽돌이 강렬한 대비효과를 강조한 황일인의 사랑의 교회, 곡선형의 제단부와 역삼각형의 본체를 드라마틱하게 연결시킨 정점건축의 전주서문교회, 비둘기를 추상화한 성인수등의 개포동교회, 고전적인 심메트리를 고집하면서 천주교연작(명동세벨, 대구세벨성당)을 빚어내고 있는 김원, 노출콘크리트를 과감히 채택해 곡면의 환타지를 연출하는 정기용의 공향동성당, 그리고 최근 현상설계를 독점하면서 양극적인 성당연작을 연출해내는 김중섭, 김영섭등의 활동이 80년대의 수확으로 꼽힌다.

필자가 보기에 아직 한국 교회건축은 형태상의 문제를 논의할 단계에 와있지 못한듯 하다. 다시말해 어떤 건축의 경향을 분류, 평가하기에는 그 다양함의 깊이가 아직 성숙의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개의 역작들은 일회적인 표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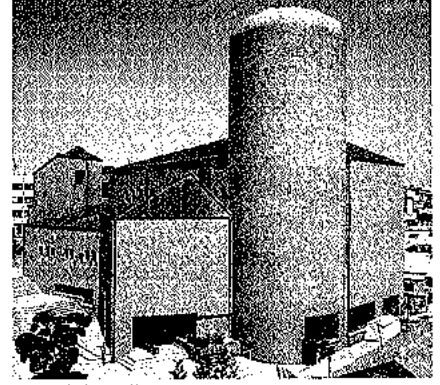


▲사랑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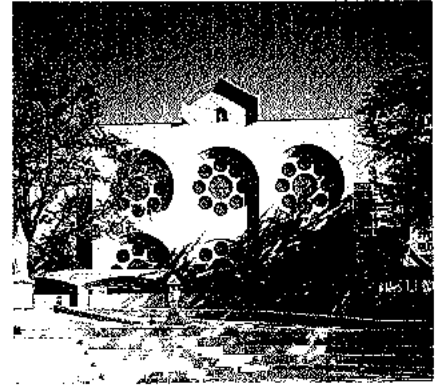


▲동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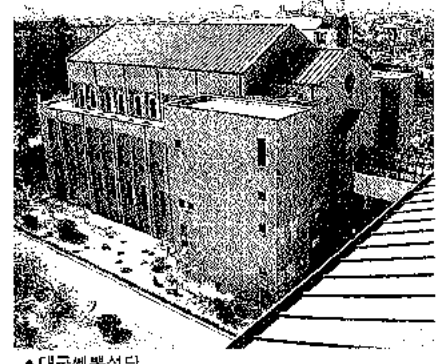
머문채 방법론의 단계로 발전되어 가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성급한 교회건축은 뚝심있는 작가들의 노력, 즉 다양한 표현의 개발과 그것의 방법론화라는 과제를 부채로 남긴채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현사회의 우려할만한 도덕과 윤리의 타락현상에 건축도 일조한 것이 아닌지..... 흔히들 건축작가로서 종교건축을 다루어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종교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기대되는 추상적 상징성에 대한 호기심내지 매력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주거건축이나 상업건축, 산업건축 등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작가의 조형적 표현에 대한 자유가 가능하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서문교회



▲명동세벨성당



▲대구세벨성당

성급한 기대는 지나친 표현의 과장이나 공간성의 해석에 앞서서 결정되어 버리는 조형적 의지가 남용됨으로 해서 건축의 본질적인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가장 흔한 건축으로 되어있는 종교건축을 일회적인 임기응변으로 처리할때는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형태를 만드는 작업에서 부터 의미를 만드는 작업으로 우리의 연필이 다르게 움직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때라 믿는다.

한국 교회건축의 문제점

崔東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건축

본인이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교회의 1회 예배시 수용 인원을 1,000人~10,000人까지 요구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2,000人 이상 들어가는 교회는 일단 대형 교회라고 생각이 된다. 이 커다란 공간이 단지 예배용으로만 사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및 교인들의 문화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음악, 연극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겸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지 100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초기의 건축 양식과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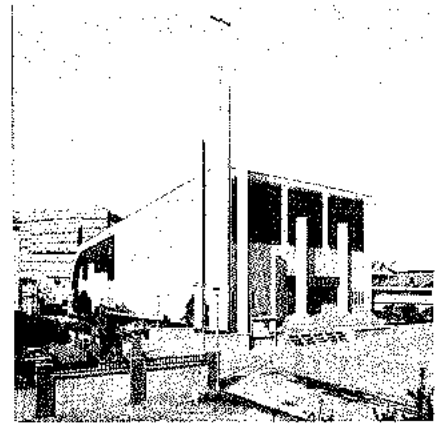
본인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등의 교파와 다른 몇개의 교회 설계를 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꼈던 점과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토지가격이 교회 조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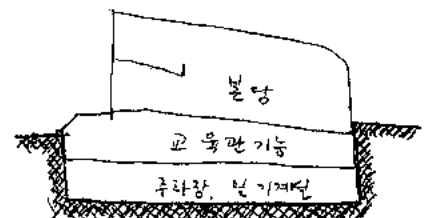
본인이 설계한 교회들은 서울 및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땅값은 증산지와 변두리가 모두 비싼 형편이다. 어렵게 마련한 대지위에 건축주들은 건폐율, 용적율을 최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만은 꼭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층 건물의 맨 윗층에 또 상업지역이라면 10층 정도의 건물 맨 윗층에 교회가 위치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예, 새로나 백화점의 상동 감리교회)

그러나 그렇게되면 교회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구별할 수 없게되어 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나 장로들(건축위원)도 이점을 잘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처럼 짓자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껏해야 3층 정도로 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땅이 넓고 값이 싼 외국의 경우는, Ground Level에서 그대로 빌딩으로 Access 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문턱이 없다(Easy to get in)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꼭 1층 이어야 된다고 하는 곳이 은행과 점포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고정관념 이다. 따라서 1층(본디)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다음 그림(1)은 본인이 설계한 S교회 단면이다.



▲소망교회



* 층을 1.5m 정도 들어 올렸다.

→ 교회 단면

▲소망교회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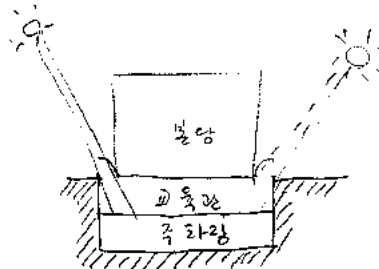
소규모 대지에서의 교회 건축

여기서 작다는 의미는 토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대지에 비하여 수용하려는 신자수가 많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확보한 대지위에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종류는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이다. 좁은 곳에서는 별수 없이 한 건물에 통합이 되기 마련이다. 또한 지하실에 본당을 두려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100평~200평 정도의 좁은 대지에 3m, 4m 후퇴 건폐율 50%를 적용하다 보면 신자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규를 피하여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며 지상에서는 주차장등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상부의 층량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실 본당 내부에 어쩔수 없이 기둥이 노출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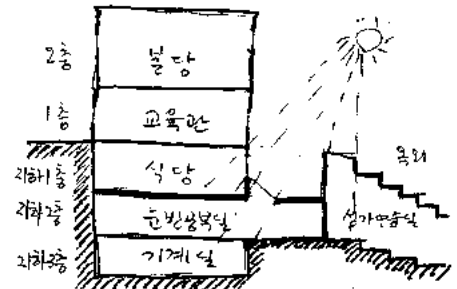
지하실의 이용과 채광 환기

토지의 가격 및 전세율로 인하여 최대 용적율을 찾기 위한 지상의 몸부림은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앞에서 말한바 있다. 따라서 교육관의 기능(대지가 넓지 않은 경우)에 자연히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채광과 환기가 필수적이다. 적용 사례를 보면, S교회의 경우 지하층에는 최대한 햇빛이 들어가게 하였다. (그림2)

상시 근무자들이 있는 곳은 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의 대공간은 오히려 기계 환기의 구역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하실은 통념상 환기 채광 습기의 문제점이 언제나 있는 곳이므로 설계자는 좀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채광 환기 등의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S 교회 단면도



S 교회 교육관 단면도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종탑의 기능

(그림2) 소망교회 단면도

종탑은 문자 그대로 종이 달려 교회의 여러 행사에 그 소리로 의식을 고조시키는 역할과 또한 교회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소음으로 규제 받게 된 후에는(흡사 상대가 제거된 공동주택의 강아지처럼) 종없는 종탑이 되었다. 뽁뽁히 들어찬 건물속에서 교회 자체가 높아져서 그 위치를 알리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다. 중세시대 고딕식 교회건물들이 높이 경쟁을 하다가 무너진 사례까지 있는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 꽤 오래된 편이다.

교회음향

교회음향은 옛날 고딕식 건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그래서 교회 사제들의 외도적인 High Voice는 저음시의 공간으로는 강론을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취한 호구지책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 음향학의 기술적 발달에 힘입어 필요한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끔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가 회중에게 골고루 살들리게

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교회 건축에서의 음향설계는 필수적인 것 같다. 그러나 설교와 또한 음악 예배등은 서로 필요로 하는 폐적 殘響 시간이 조금 다르므로 설계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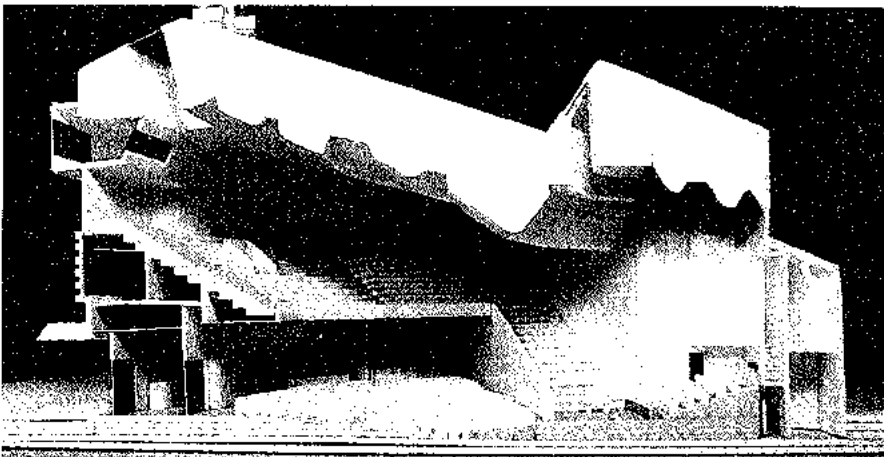
또한 이 점은 예배 공간의 모양으로는 부적합한 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점 건축가의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형 교회 건물의 미래 예측

본인이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교회의 1회 예배시 수용 인원을 1,000人~10,000人까지 요구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2,000人 이상 들어가는 교회는 일단 대형 교회라고 생각이 된다. 이 커다란 공간이 단지 예배용으로만 사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및 교인들의 문화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음악, 연극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겸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회가 교인들 생활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도 기여하게 된다. -위에 요약한 내용들은 물리적인 사항들을 주로 기술하였는 바 종교의식이나 심리적인 면의 파악 및 해결은 각 건축가의 고유 권한이므로 생략하겠다.

* 대전 "D"교회의 단면모형

-예배기능이외에 음악회, 연극, 영화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충현교회

Choong-hyun Church

崔煥 (기본설계) · 崔東奎 (내부설계)

Designed by Choi, Hwan & Choi, Dong-Kyu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 19,944m²

건축면적 / 3,629m²

연면적 / 13,564.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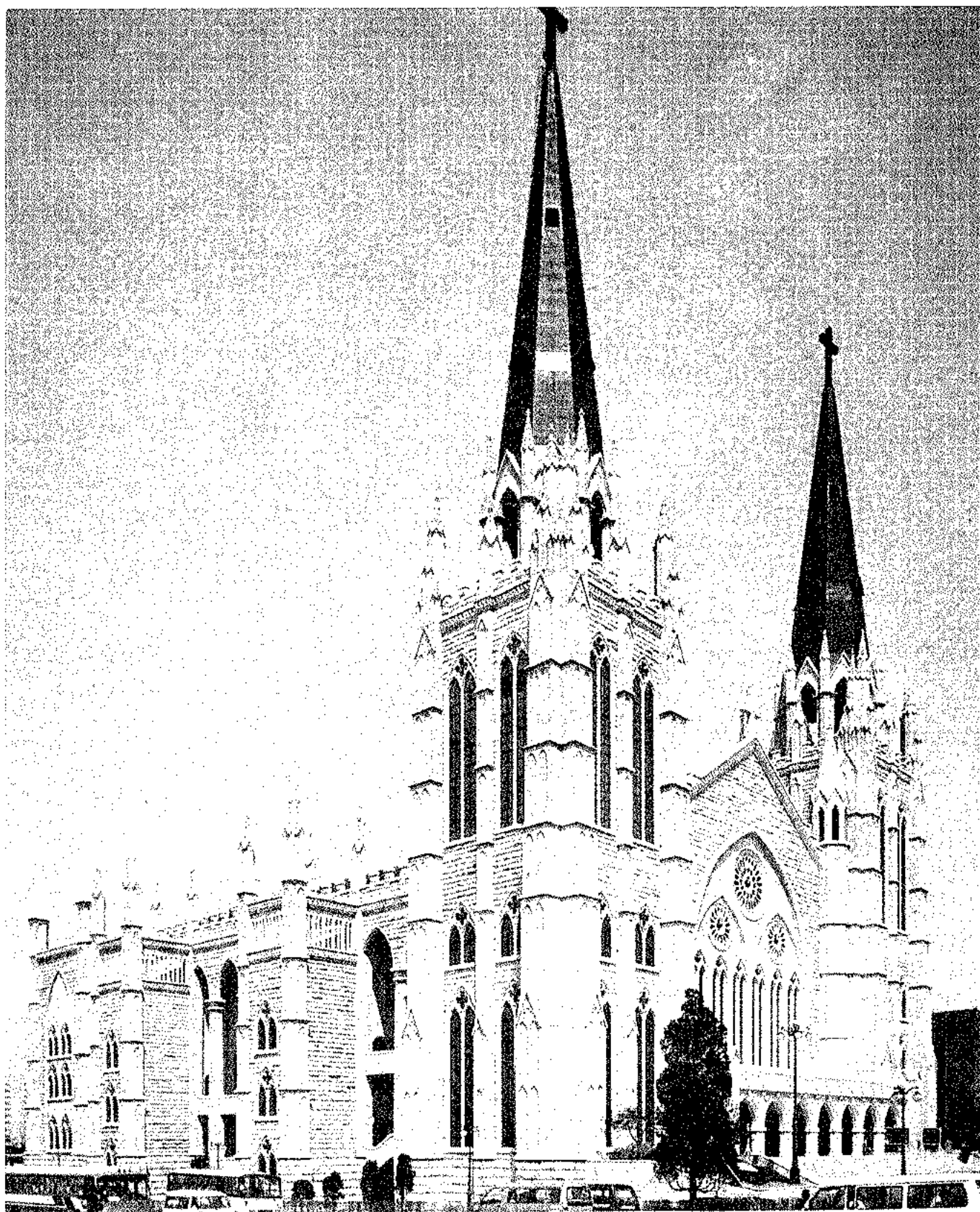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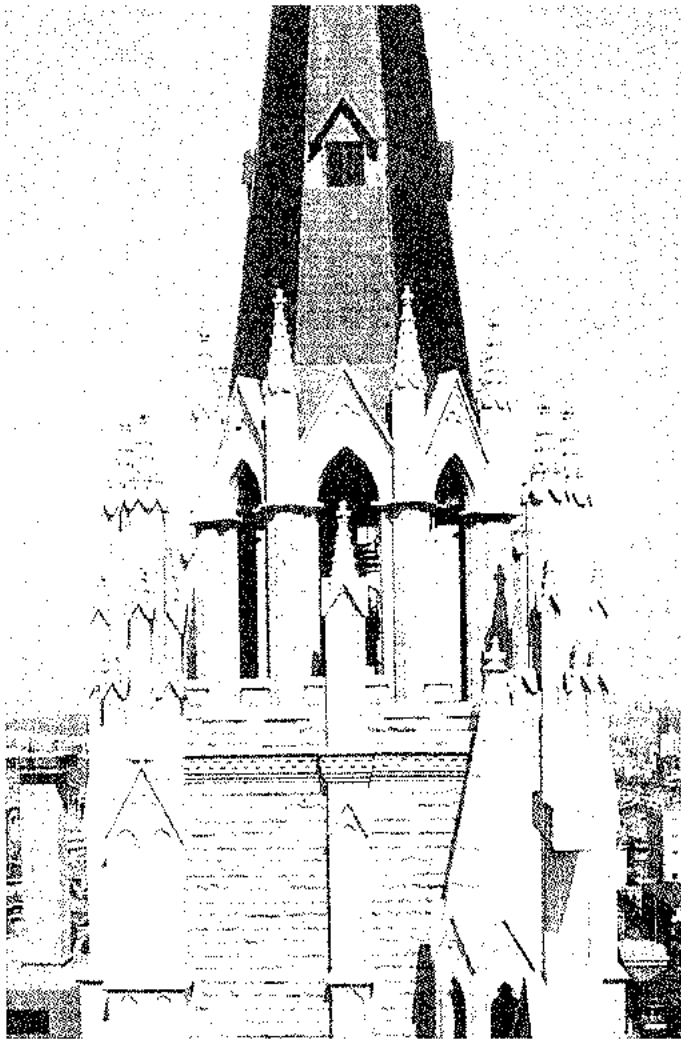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 화강석 (가평석)

내부마감 / 벽 - 난연흡음 섬유, 목재리브

바닥 - 피. 브이. 석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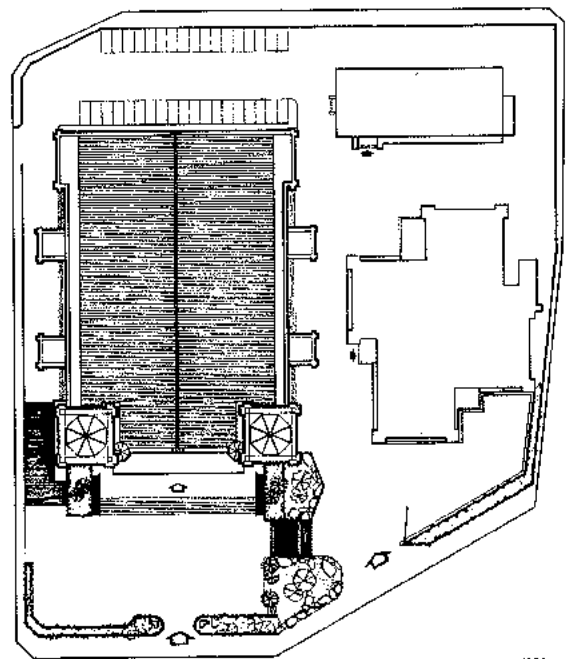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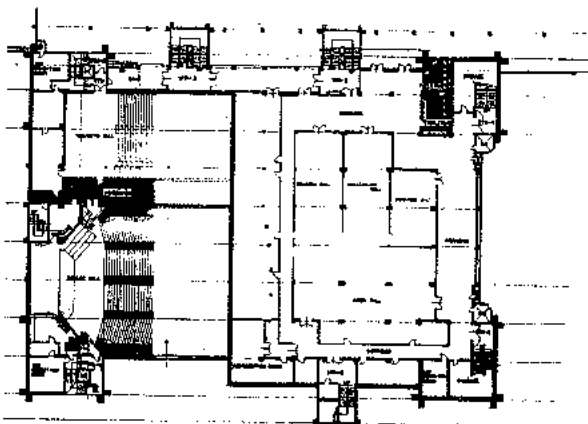
종탑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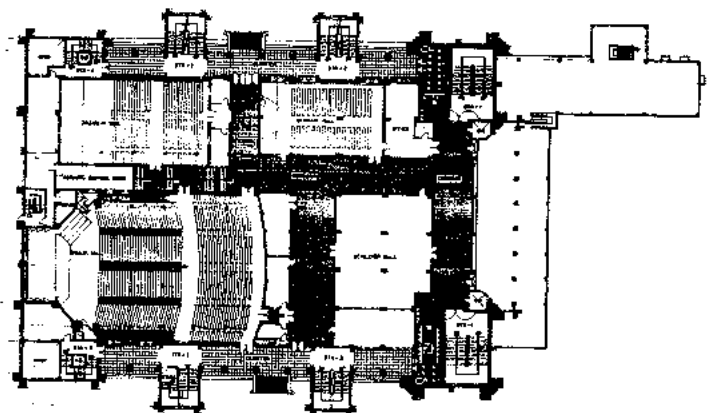
계단실 사이의 주랑과 3층클로이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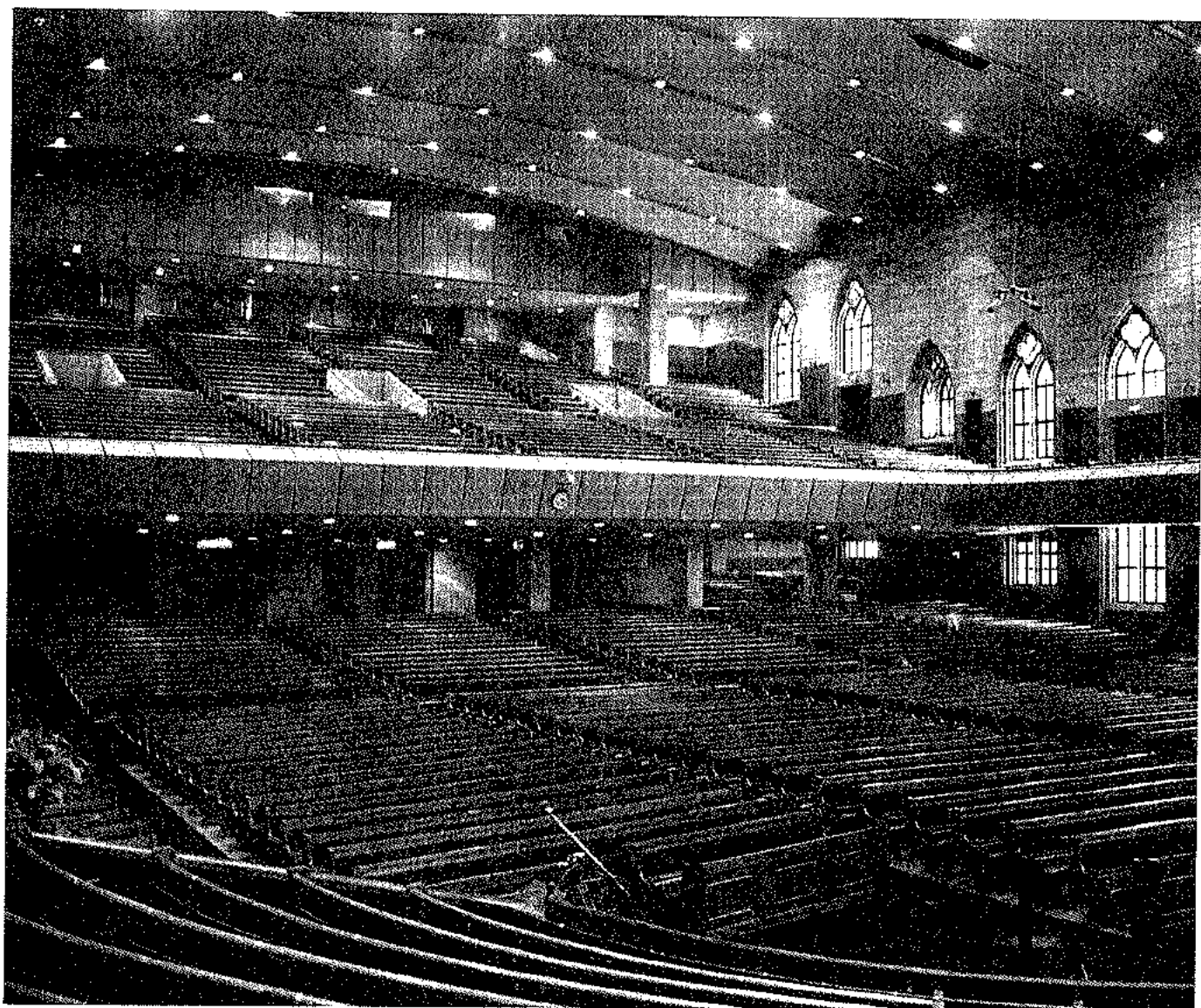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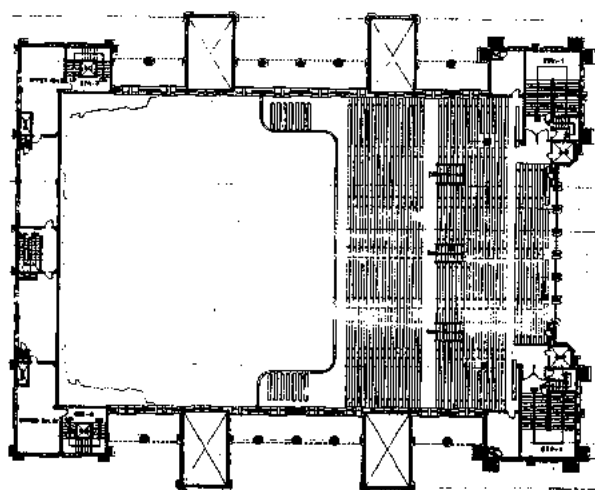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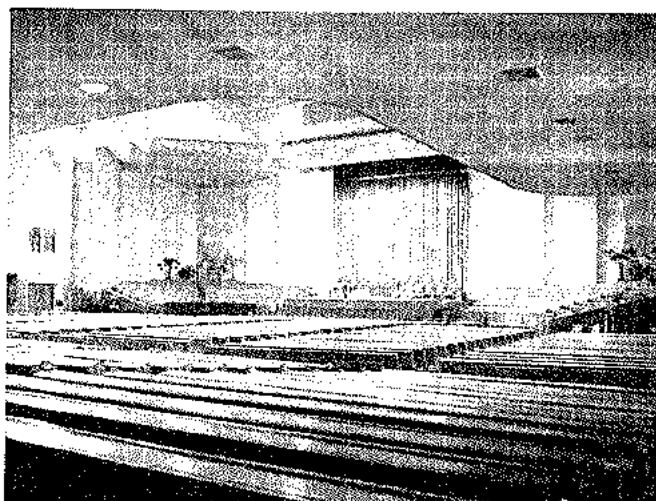
2층평면도



본당내부전경



4층평면도



설교단측 본당내부

남해성당

Namhae Catholic Church

鄭求殷 /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Koo-Eun

대지면적 / 4,800m²

건축면적 / 509.54m²

연면적 / 744.17m²

건폐율 / 1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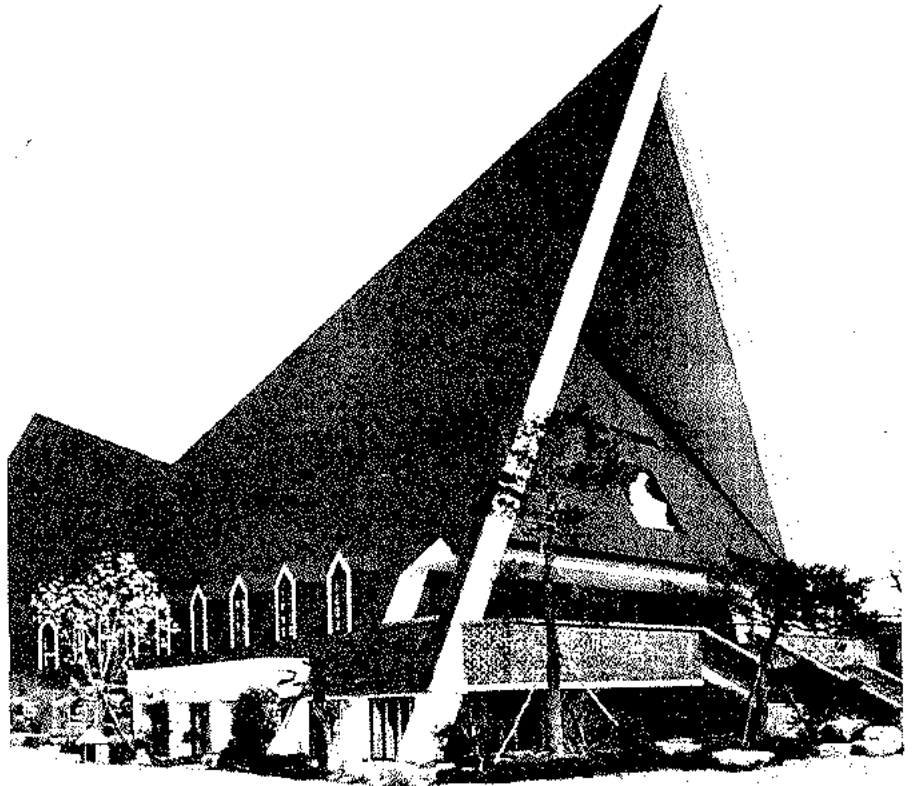
용적율 / 15.5%

계획의 주안점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는 본 성당은 자연적인 사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건물이 점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지형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뒷산의 능선축을 계획축으로 하여 성당을 위치시켰다. 그리고 전체조건에 따라 주출입구는 남측으로 하고 사제관을 하부에 두었으며, 성당은 상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계획과정에서 주안점이 되었던 것은 전면에 대한 외관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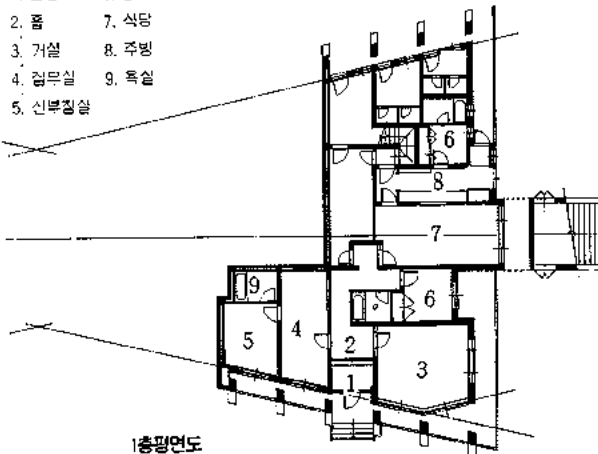
외관계획

대지를 안정감있게 지배할 수 있고 절대여로의 상층을 나타내고자 삼각형의 순수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좌우측면에 가파른 경사지붕을 대담하게 솟아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경사지붕을 따라올려 상호보호작용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시선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에 순응할 수 있는 형태를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성당건축의 기능에 따라 전실·신도석 제대·제의실부분을, 각각 다른 크기의 삼각팔이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의 단순 매스로 연결하여 역동적인 기하학의 형태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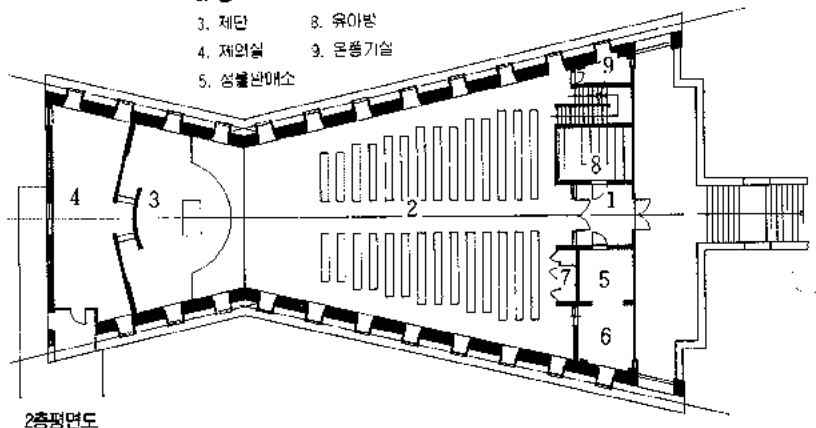
남측전경

- | | |
|---------|-------|
| 1. 현관 | 6. 출실 |
| 2. 홀 | 7. 식당 |
| 3. 거실 | 8. 주방 |
| 4. 침실 | 9. 욕실 |
| 5. 신부침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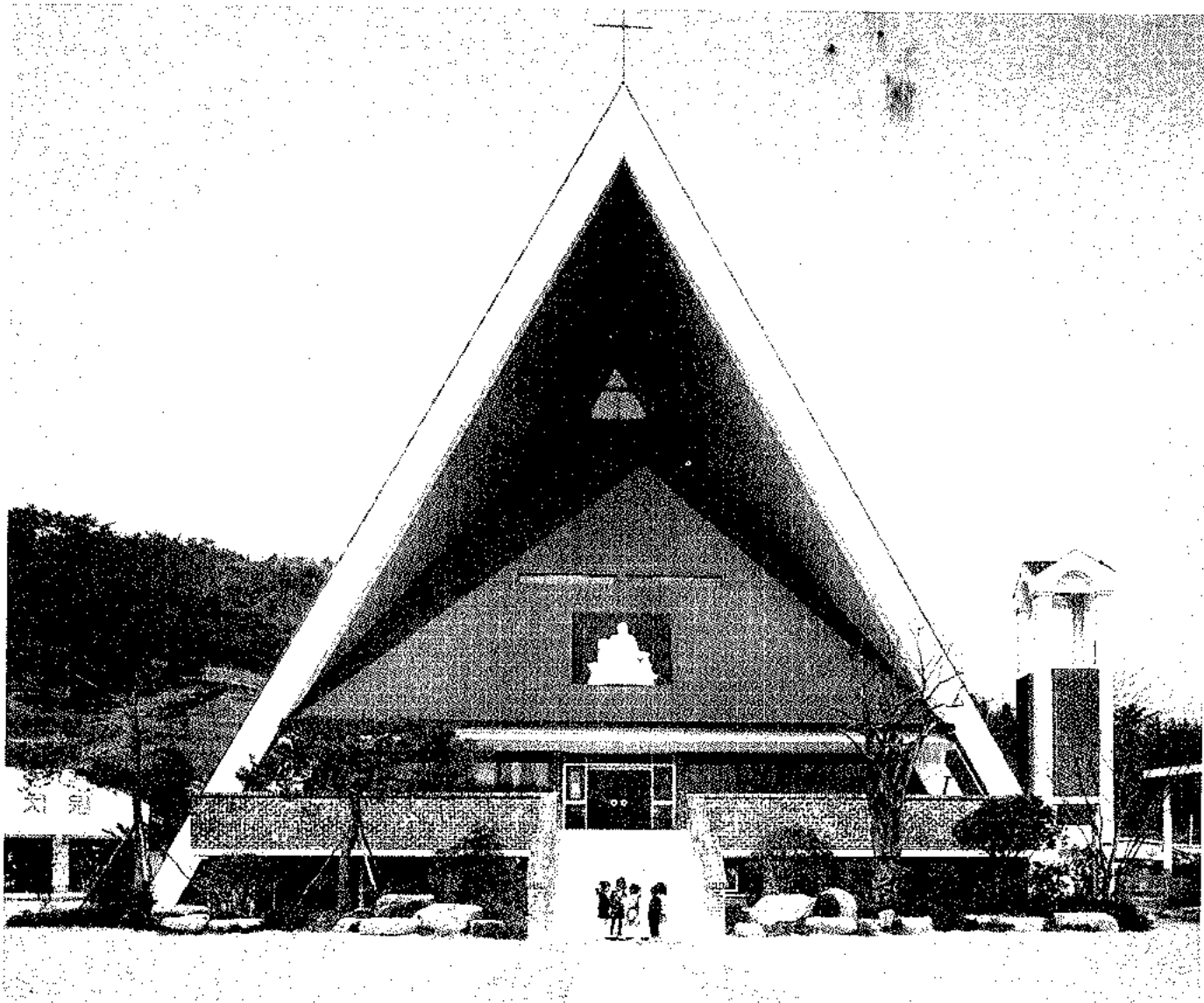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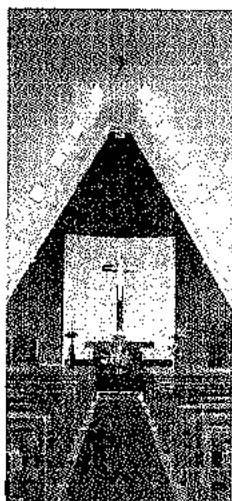
- | | |
|----------|---------|
| 1. 전실 | 6. 사무실 |
| 2. 신도석 | 7. 고해소 |
| 3. 제단 | 8. 유아반 |
| 4. 제의실 | 9. 운동시설 |
| 5. 성물보관소 | |



2층평면도



주출입측 파사드 전경



제대



제대부 상부천장

동명교회

Dongmyong Church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785번지
대지위치 / 483.48m²
건축면적 / 171.38m²
연면적 / 990.25m²
건폐율 / 35.45%
용적율 / 96.6%

■ 설계소묘

첫째로 가능한 최대한의 예배공간을 요구함으로 해서, 건축적 볼륨이 확대되고 그로인해 기존의 질서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부조화, 일조권, 가시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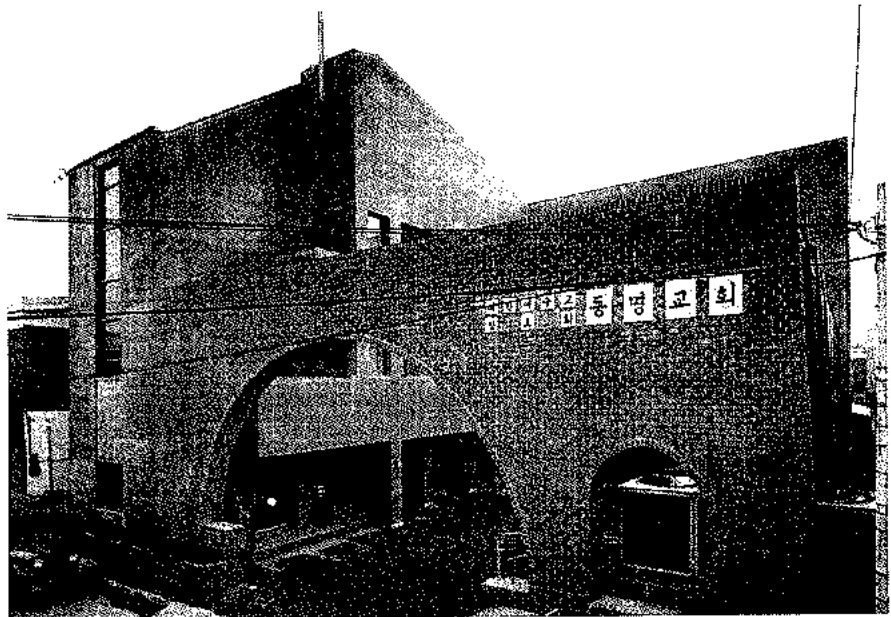
둘째로 예배행사 등에서 필수적인 음악과 가도 등이 주변에는 소음공해로 피해를 주게된다는 문제,

세째로 다수의 군중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됨으로서 일어나는 번잡함이 기존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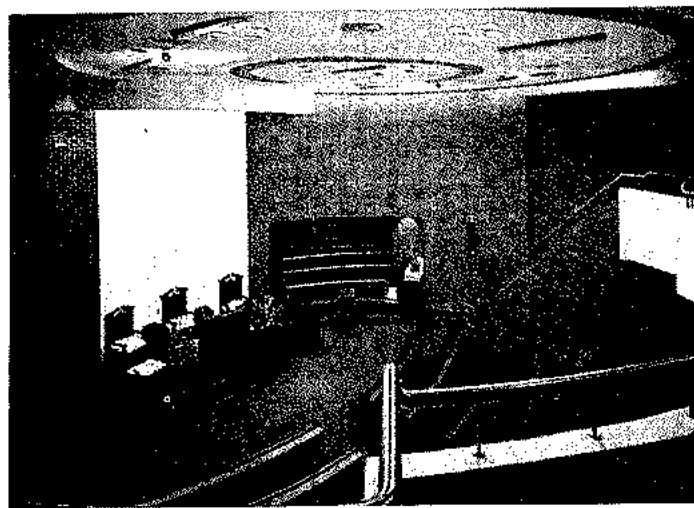
이상의 것 외에도 이로인한 부수적인 결과들이 많겠지만 주로 기존의 환경질서와 대립되는 것에 의한 것이 모두라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모순을 적당히 해결하는 중간론적인 방법은 오히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말기때문에 적극적인 방법론이 아니어서는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말 것이다. 여러번의 검토끝에 얻어진 결론은 공간구성의 원칙을 비존재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구성을 뒤집어 해석하거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내용을 뒤바꾸어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의 대강은 주요소로서의 예배공간을 지하에 숨기고 지상에는 부속기능적인 공간을 압축시켜 노출시키는 모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해 첫째와 둘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해야만 하였음으로 건축적처리에 의한 광장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상의 공간볼륨과 담장을 하나로 엮어 놓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장의 개념을 확대시켜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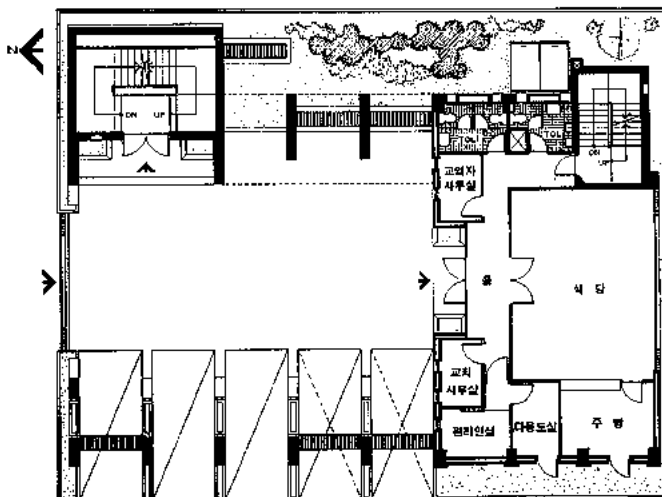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구성된 치장의 구조물들로 가역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부에 있어서는 투시성에 의한 개방감을 이루고 외부로부터는 영역이 형성에 의한 폐쇄적인 감각을 이루게 함으로 기존의 질서에 대한 상호간섭이 차단되어지게 되었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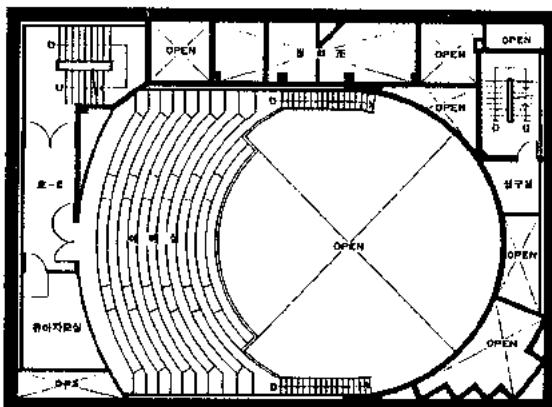
예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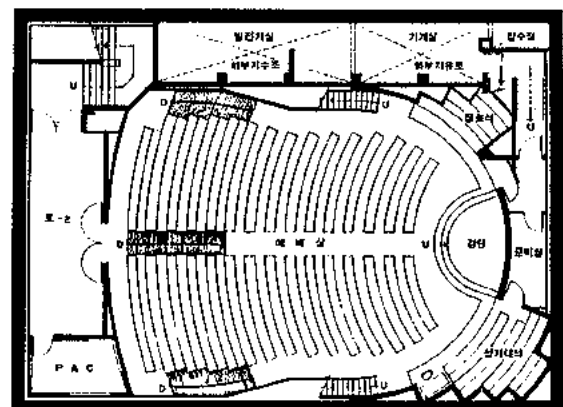
배치도



예배당 전경



지하 1층평면도



지하 2층평면도

논현동 성당

Nonhyun-dong Catholic Church

金瑛燮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 by Kim, Young-Sub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 2,689.6m²

대지면적 / 2,689.6m²

연면적 / 4,983.11m²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R.C라멘조, 철골트러스 지붕

외부마감 / 적벽돌 후레이쉬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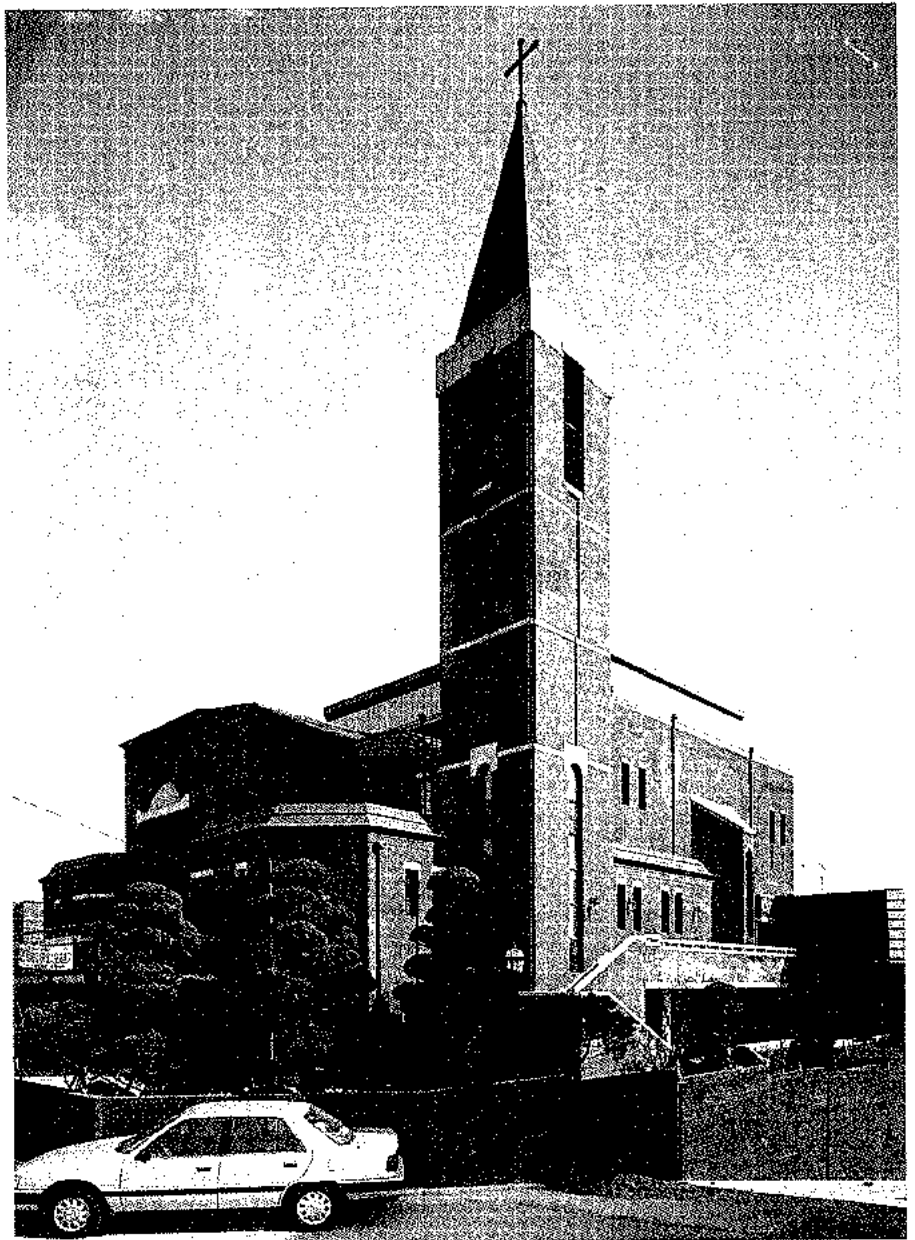
〈설계소요〉

논현 마루에 터잡음한 논현성당은 부지가 지니고 있는 도시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이 설계에 우선되었다. 주위가 주거지역으로서 주변의 색이 적연와 나 오지기와지붕으로 형성된 있는 터라 건물의 색을 “대비”에서 “조화”로 선택하게 되었다. 부지의 지반고차가 매우 심하여 제일 낮은 곳과의 차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

경사지를 이용하며 대형건물이 갖는 교통문제를 해소키 위하여 제일 하층부에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의 일요일 소음공해를 줄이도록 계획되었다. 외관의 형태는 도시적 스케일에서 언덕위에 랜드마크적인 시각대상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첫 주안점을 두었는데 결과 물로서 종탑과 본당의 모임지붕이라는 2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약 2,000인 수용의 대규모 성당을 무주공간으로 꾸미는 일은 매우 많은 문제 해결을 요한다. 전체 환기량에 따른 공간용적은 음향과 냉난방 문제가 심각하게 뒤따르게 된다. 자연채광과 전례공간의 설정 또는 거대공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난제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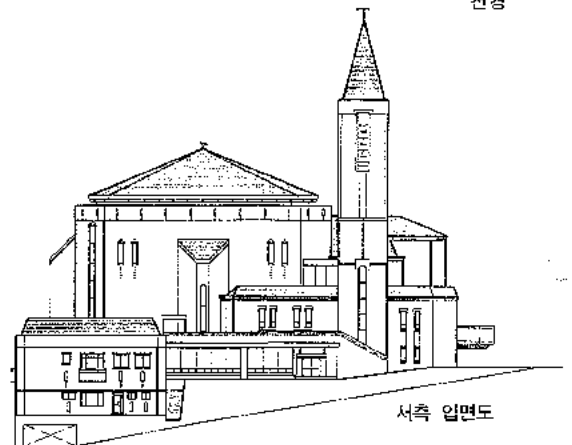
내부공간의 재료마감은 거친 테라코타 벽돌쌓기와 인조석 끌어내거리는 비교적 값싼재료로 선택하였는데 평당 공사비 120만원이라는 제약속에서는 최선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성당도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고딕=벽돌이라는 고정스러운 맥락을 깨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로 후일 기억되리라는 생각이든다. 한 시대의 건축이 꽃피우려면 건축가 뿐만아니라 일반인의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의안이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제도와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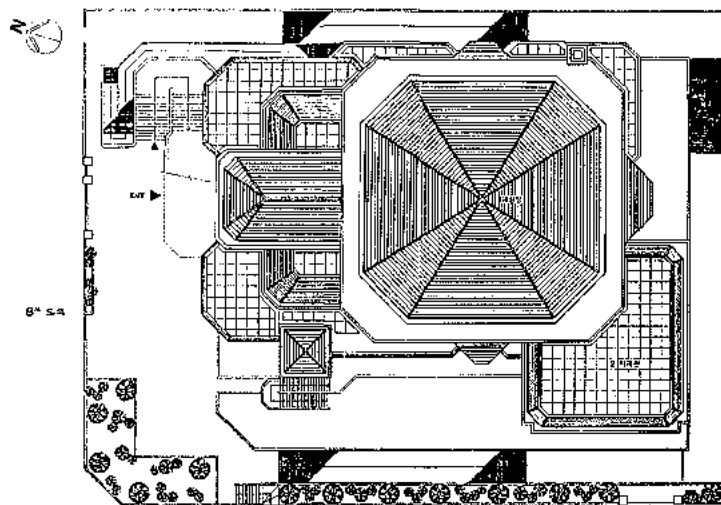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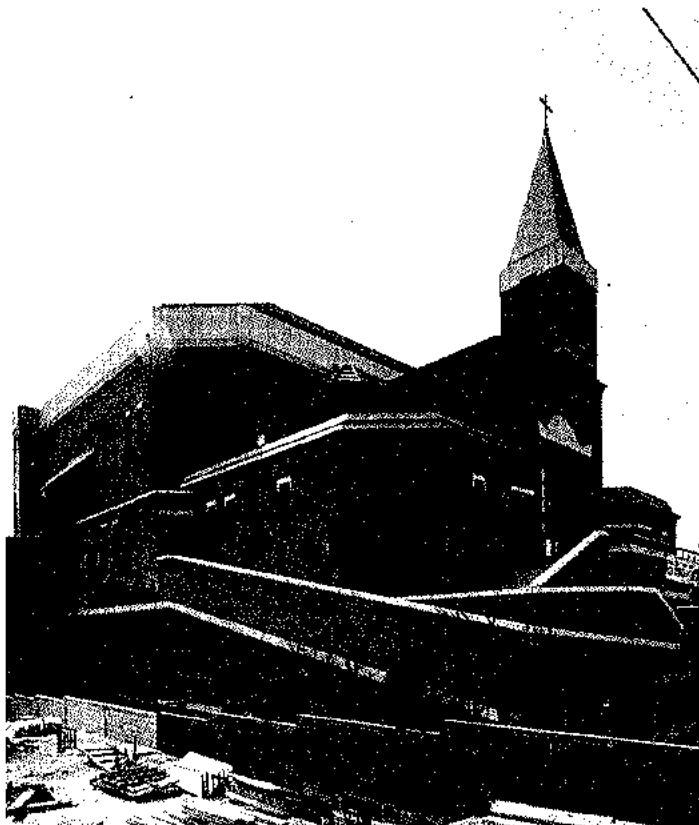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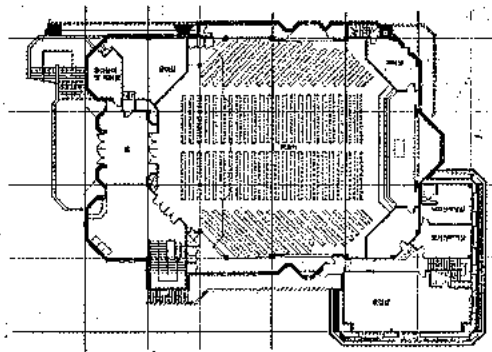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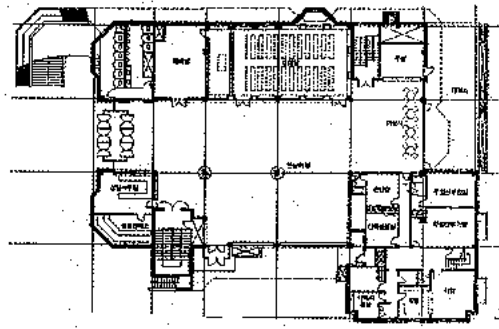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배치도



2층 평면도 Seco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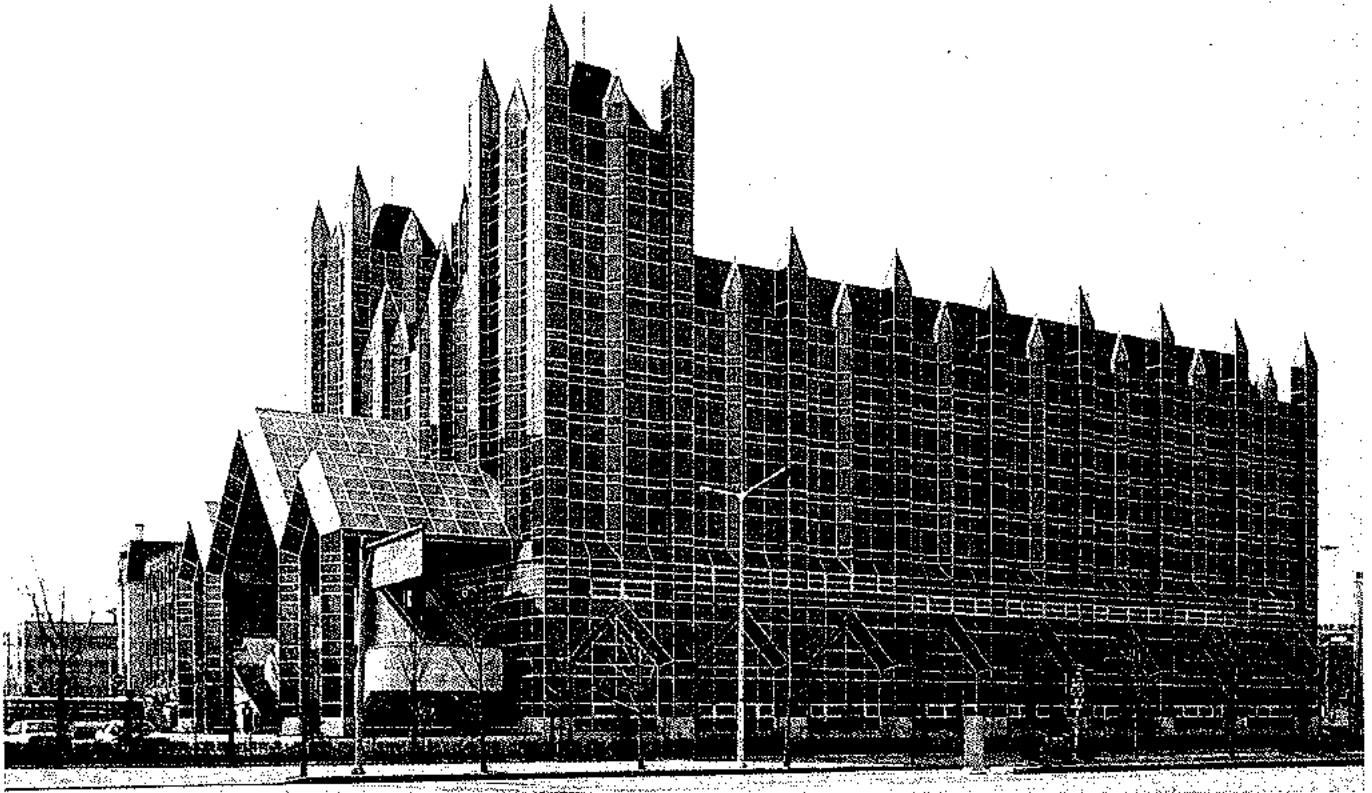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First floor

임마누엘 교회

Immanuel Church

韓忠國 / (주) 진양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n, Choong-K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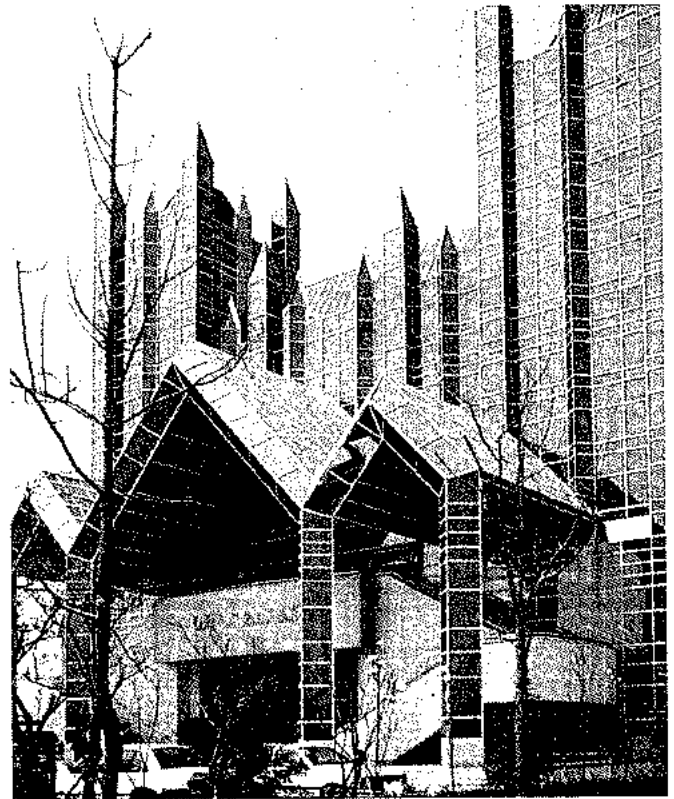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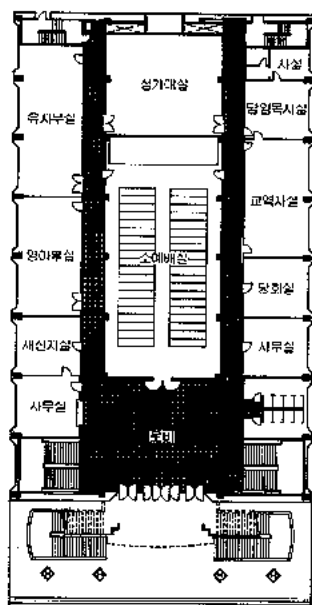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지면적 / 3,487.7m²
건축면적 / 1,556.78m²
연면적 / 7,515.66m²
건폐율 / 44.64%
용적율 / 113.17%
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
외부마감 / 화강석+백색알루미늄+반사유리

■ 설계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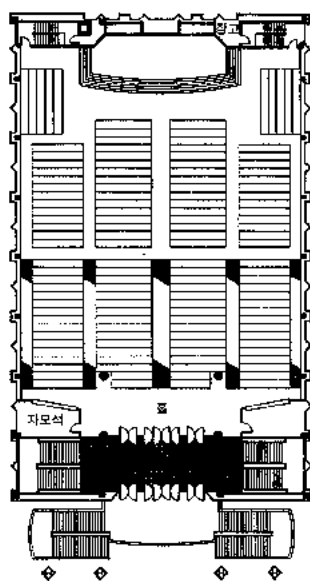
평화의 문이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입구 맞은편에 위치하여 강한 상징성을 띠면서 전면 70m, 측면 35m도로에 위치한 임마누엘교회는, 중세 고딕식 모티브를 현대화함으로써 반사유리에 의한 수직상승의 승천감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입구를 장식한 삼각의 아치가 진입의 경쾌함과 상승감을 더하면서 실용성을 갖추도록 계획되었는데, 찌르는 듯한 첨탑이 하늘을 향한 화살표와 같은 느낌을 주는 한편 자연(하늘)과 신(교회)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접합되도록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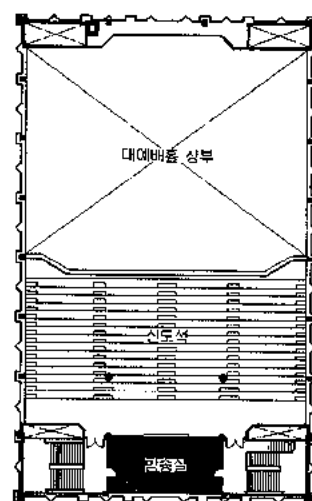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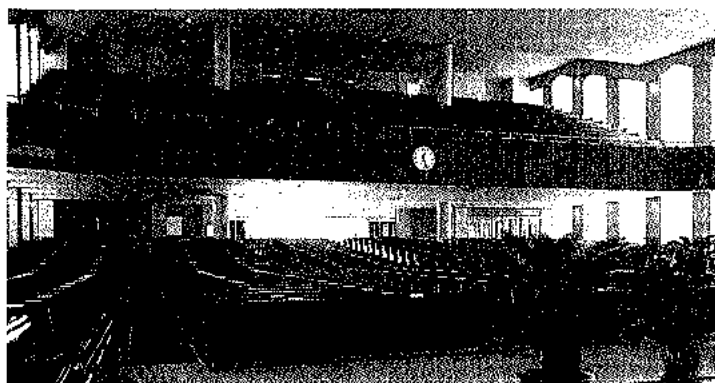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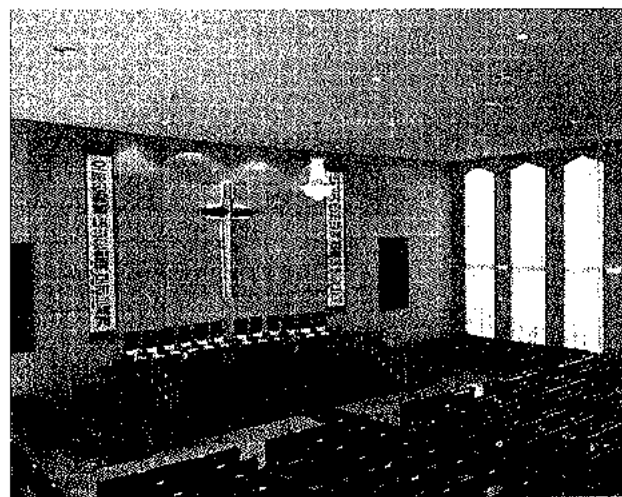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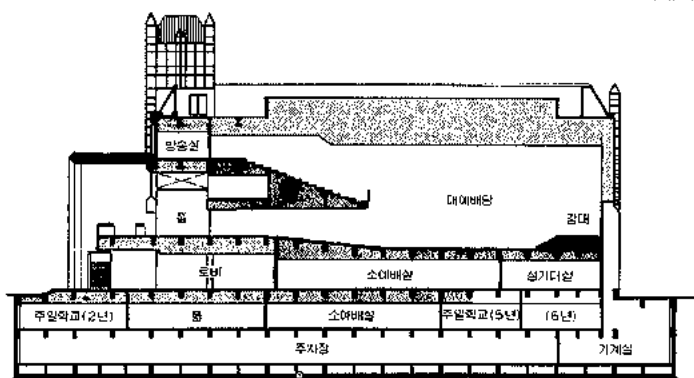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예배석



설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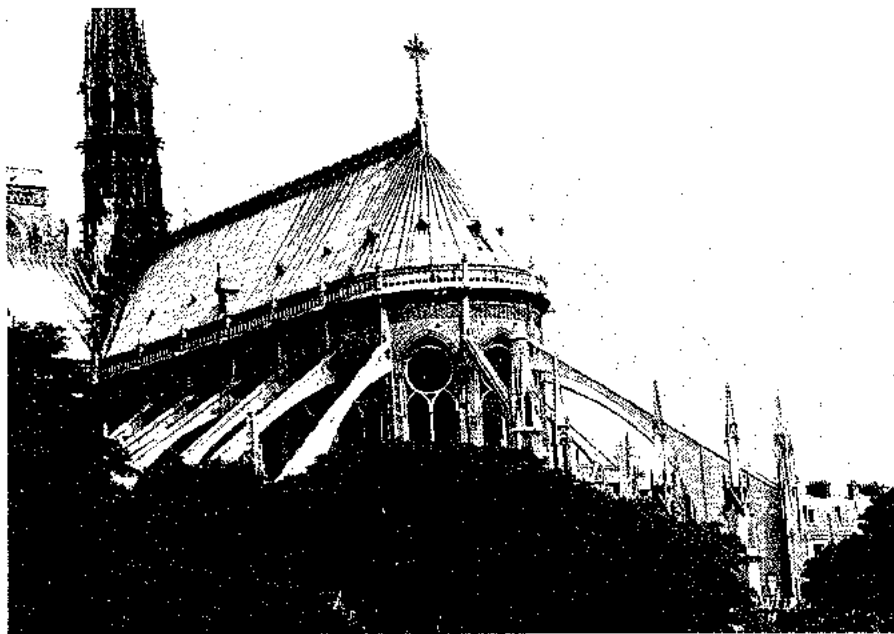
단면도

歐羅巴를 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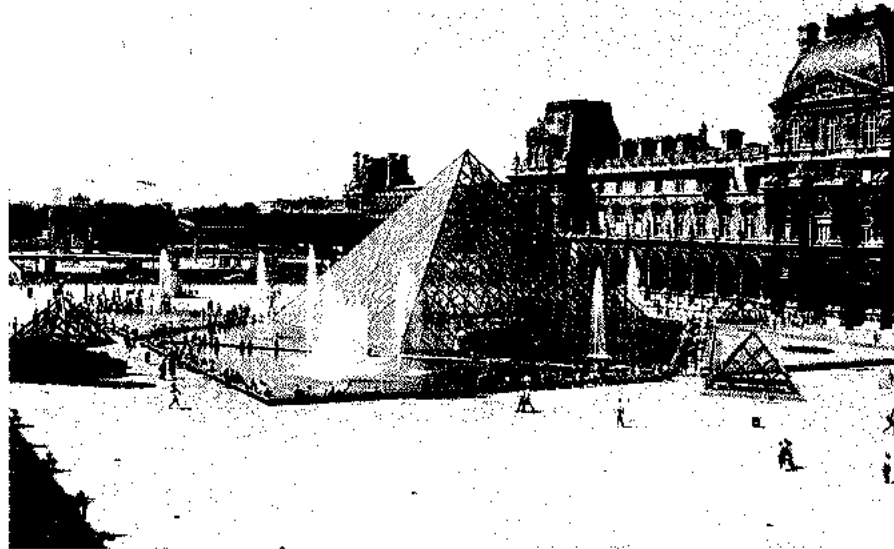
Travels to Europe

崔相炫 / 建築士, 광주직할시 敎育위원회 시설과

by Choi, Sa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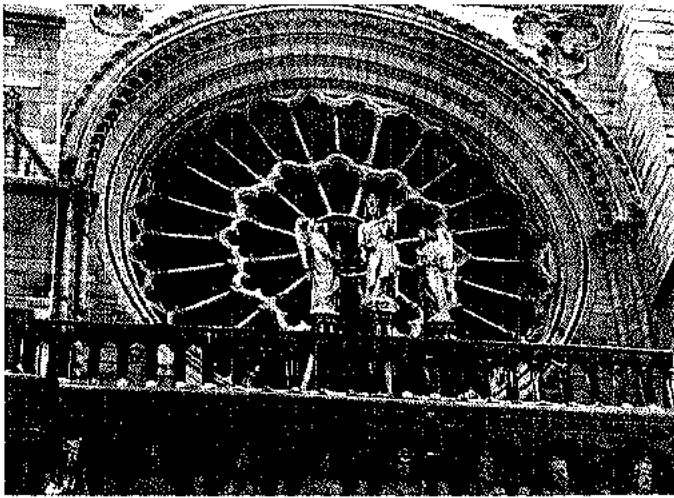


노틀담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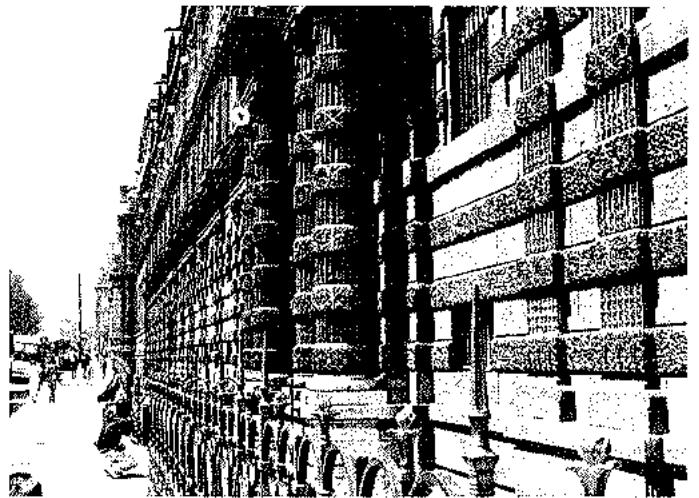


루브르 박물관 (I. McPei 설계부분) 외관

거대한 비행기가 지축을 흔들며 이륙하면서 유럽 해외연수가 시작되었다. 기내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옆의 선배님과 앞으로의 계획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등을 이야기하며 창밖에 펼쳐지는 구름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후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간간히 눈이 쌓인 계곡이 보였고 나무 없는 황량한 산을 보니 언뜻 알라스카 상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기착지인 앵카리지 공항에 도착하여 잠시 내부를 둘러본 후 우리는 목적지인 프랑스 파리를 향하여 다시 이륙하였다. 일곱시간 비행기에 목적지인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하였다. 터널같은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공항건물의 중정을 지나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파리 시내를 들어오는 길에 옛뜨와르 개선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프랑스 국민이 나폴레옹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높이 50m 폭 45m 안길이 2m 규모에 10년여의 공사기간이 말하듯 벽면 및 상부의 조각은 당시의 낭만파 조각의 일대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느강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알렉산드리아 3세 다리에서 세느강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철을 사용하여 돔의 형태로 축조된 다리밑 철의 장식 조각은 구조체를 따라 조각이 연결되므로 노출을 방지시켰으며, 다리 난간 기둥상부의 촛대조각은 다리 전체의 균형미에 잘 어울리었다. 강변도로를 따라 파리의 대표적인 건물인 노틀담 대성당에 다달았다. 그 위용은 백여년의 공사기간이 의미하듯 정교하고, 거대한 조각품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노틀담의 꼽추 무대이기도 하다. 긴 공사기간동안의 노예들이 피땀어린 노고의 결정을 작가는 암시하는 것 같았다. 구약성서를 배경으로한 조각들이 세계의 문위에 있고, 9m 높이의 탑 두개가 서있었으며, 수평과 수직의 섬세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성당 내부에는 세계의 커다란 스테인드그라스의 조각이 보이고, 북쪽과 남쪽의 각 한개씩의 색미장은 신약과 구약을 말하듯 상반된 창구의 구성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고딕 초기의 걸작이지만 몇차례 개축을 거쳤으며,



노들담 성당 외벽조각



루브르박물관 외벽

柚廊을 중심으로 동서에 요소를 배분한 평면, 중후함, 안정성을 보여 주는 사각형 서쪽정면 曲技적인 구조논리를 가시화시키는 飛梁의 외관등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었으며, 양식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 동물 조각은 벽에서 곧 튀어 나올 것만 같았다. 지붕의 배수는 조각동물의 입을 통하여 처리되었다. 우리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베르사이유궁전에 도착했다. 루이13세가 사냥길에 들렀다가 놀고가는 궁전이었으나, 루이 14세가 집무와 거처로 쓸 수 있는 궁전으로 개조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후 베르사이유조약도 있다. 대리석과 스테코 천정화에 의한 화려한 장식과 실의 광대한 구성은 건축에서부터 노틀에 이른 정원까지 연장된다. 중앙의 십자형을 이룬 연못, 많은 분수, 무한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방사형의 도로들은 인간에 규제된 자연을 보여주는 전통적 정원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오후 늦게 뤼상브르 공원에서 잠시 쉴 수 있었다. 이곳은 앙리 4세의 왕비 마리 드메디치가 이탈리아의 고향집을 본따 지은 것으로 대혁명때는 감옥으로 쓰였고, 현재에는 상원의사당으로 쓰이고 있으며, 정문을 들어서면 웅장한 마로니에 숲이 길을 따라 펼쳐진다.

파리의 명소인 루브르박물관은 중세 330년에 걸쳐 건조되었음, 근대 프랑스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서 나폴레옹 3세의 파리개조 일환으로 세워진 비스콘티동에 의해 신관이 증축되었고,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바로크풍의 맨너리즘 성격의 건물이다. 1988년 박물관이 비좁아 구건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증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인 2세 IMPEI에 의해서 설계된 유리형 피라미트 형태를 지상에 노출시켜 채광창의 역할을 하고, 구조체를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동선과 관객의 주출입구 및 홀을 구성하는 평면형태로 설계되었다. 노을이 지는 오후에 향수가 깃든 몽마르뜨 언덕에 올랐다. 이 언덕은 표고 129m 파리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로서 언덕정상에 있는 천주교

성심성당은 보불전쟁 피해의 기념으로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 1919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파리 시민들에게는 뜻있는 건물인 것 같다. 성당 좌측에 19세기 후반부터 화가들이 즐겨 찾은 노천화실은 지금도 무명화가들이 관광객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다. 이곳을 거쳐간 르노와르, 고호, 피카소등도 무명시절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하다. 다음날 파리중심지에 있는 리셋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17세기때 건립된 학교로서 평범한 건물이었다. 현재는 1450명의 학생과 150명의 교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파리 시내의 주택 구성과 같이 도로변에서 현관홀을 통하여 학교 내부 건물과 소운동장을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평면구성이었다. 건물의 외관에 비해 내부는 충실하게 시설되어 있었으며, 학급당 정원이 20-25명인것은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부러운 것이었으며, 식당의 운영은 전체학생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유상급식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장 및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에 인접한 아파트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체육관의 규모는 우리나라 처럼 큰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소운동장을 구성하고 바닥은 아스콘 포장이었으나,

교내의 녹지 공간은 운동장 보다 크게 조성되어 있었다.

프랑스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에펠탑주변의 공사로 가까이가서 구조적인 구성을 볼 수 없었다. 1889년 산업박람회때 건립되어 그 당시 괴물이라는 혹평을 받았으나, 지금은 파리 근대의 상징처럼 되었고 근대건축 초창기의 철구조물로써 극치를 이룬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당초 300m 정도이었으나, TV송신탑의 설치로 지금은 320m 정도로 높아졌다.



베르사이유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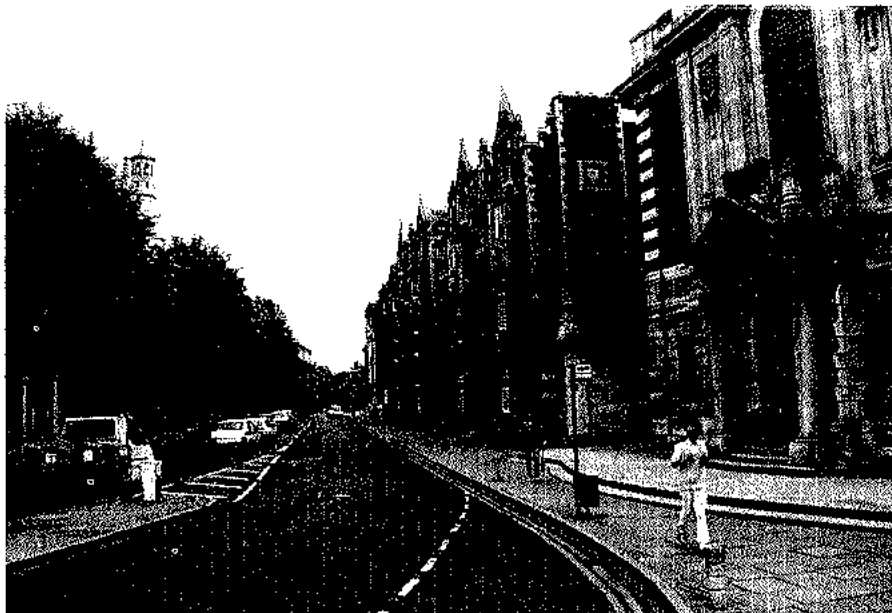
프랑스 드골공항 앞 전철철도의 Over Bridge



런던의 전형적인 주택가



영국 국회의사당의 외벽



영국의 아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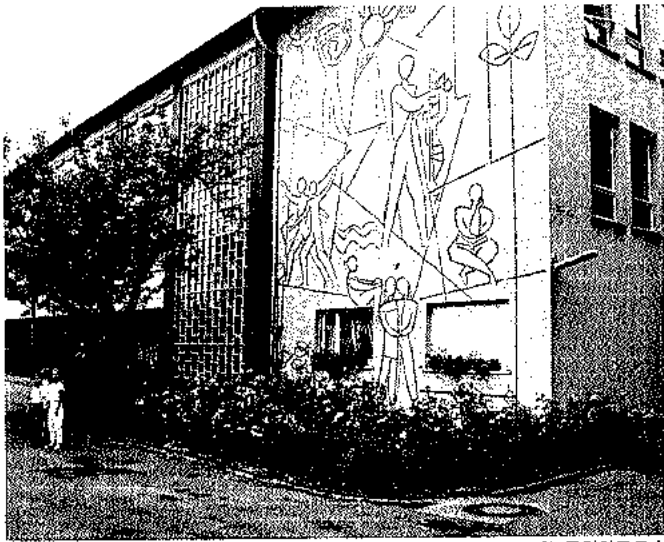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기념촬영

파리에서 2시간정도 차를 타니 도버해변의 접경인 칼레해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고속여객선으로 영국의 해변마을에 도착 하니 고속도로변의 연속되는 농촌 그린필드와 목초지의 양떼, 종말을 기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섬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서부의 미초원을 달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비옥한 대지를 보니 축복받은 민족인것 같았다. 두 시간정도 고속도로를 달려 영국 서쪽 적의 투입을 방어할 수 있는 원저성에 도착했다. 윌리엄왕이 1600-1700년 사이에 건축한 것으로 성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으며, 최초에 건축한 본체와 그에 연결된 부속건물이 있었다. 현재에는 엘리자베스여왕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뒷편 성량 멀리 명문교인 이튼학교가 있는 마을이 보였다. 전형적인 영국의 주택은 독립주택으로서 자기가 손수 가꿀 수 있는 정원과 건물의 외관은 적벽돌을 사용한 저층의 주택이다. 흡사 우리나라의 아늑한 농촌풍경 같았다. 다음날 우리는 런던에 있는 Love Lace School과 여자중고등학교 파정인 Tolworth Girl's School를 방문할 수 있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특별교실 및 체육관등의 내부시설을 둘러 보았다. 외부의 현식적인 치장보다는 참교육을 위한 내부시설의 투자에 충실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수수한 교장실과 교무실은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학교를 방문할때 마다 건물들은 오래되고 볼품이 없었지만 건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관보다는 전통성과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Westminster성당으로 가는 길에 다리위에서 강 건너 테임즈강변의 시계탑과 의사당의 전통적인 영국 고딕의 정수를 감상 할 수 있었다. 1836년부터 1868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서 상징적인 동상과 잘 어울렸다.

의사당 길 건너에 있는



영국의 한 국민학교모습



옥스포드대학

Westminster 수도원은 1245-1519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영국의 역사와 더불어 자라는 기념비적 건축으로 본당의 대부분은 13세기 중반 초기에 영국식 고딕의 우수 작품으로, 본당 북도 바닥은 왕족 시체를 묻고 그 위에 석조비를 덮어 관람객들이 지나 다니게 하였으며, 왕의 제관식은 이곳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정문의 종탑은 보수중이어서 볼 수 없었다. 수도원 광장에는 여러 동상이 있었으며, 인상적인 것은 링컨동상이었다.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영국의 왕실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영국인들이 미국에서 空輸하여 여기에 세워 놓았다 한다.

우리는 영국의 명문교인 옥스포드를 방문하였다. 도로변에 대학건물이 연속되어 있었으며 Master plan에 의거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설립년도가 다른 단과대학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의 큰 대학가를 이루어 무질서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징적 건물이 구성되어 역사성을 읽을 수 있었다. 건물의 특징에 따라 고딕형, 그리스 형식 등 관광명소의 면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으나 도로에 인접한 교실은 비정서적이라고 생각된다. 런던 시내에 있는 大英 박물관은 1823년부터 1847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서 그 당시의 그리스 복원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중앙의 산전을 본뜬 박물관을 가진 포니코가 있고, 그 열주가 돌출한 양쪽 날개까지 포용하고 강렬한 반복에 의한 이오니아식 주열은 인상적인 모습이고 중정의 거대한 돔의 원형도서관이 더욱 건물을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성 폴 대성당은 1675년부터 1710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서 영국의 건축가 그리고 성 폴 대성당은 1675년부터 1710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서 영국의 건축가 C.렌의 대표작으로 고전양식에 입각한 장대한 돔은 예술적 상상력을 보였으며 유럽 바로크의 영향은 서쪽 정면 또는 허구의 효과를 노린 디테일에서 볼 수 있다. 내부도 언뜻 보기엔 고전양식이지만 바로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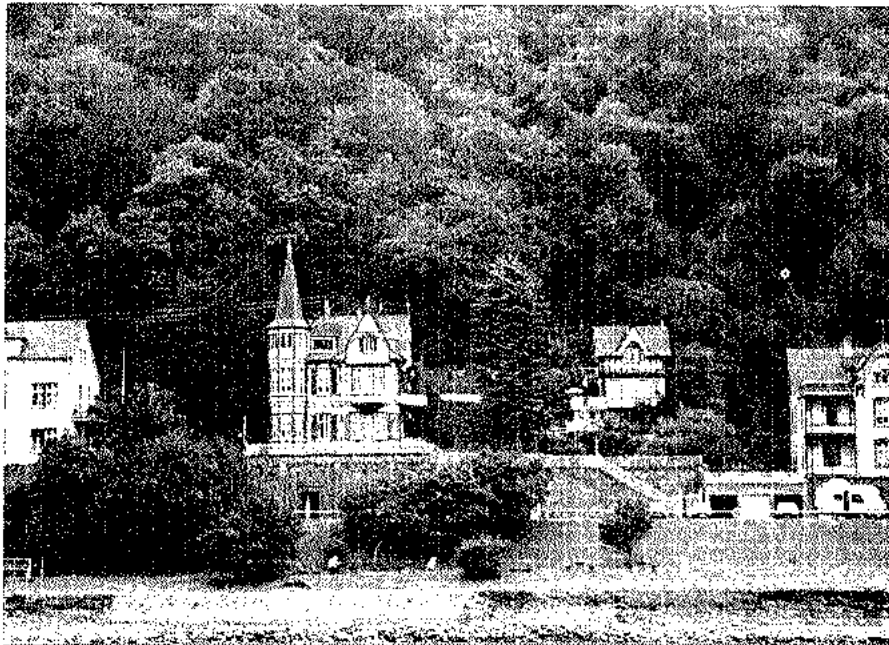
연출이 넘쳐있고, 또한 찰스왕태자와 다이아나비가 결혼식을 거행한 장소로서 유명하다. 우리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테임즈 강변에 있는 런던성에 도착하여 타워다리를 건너보면서 북쪽의 외침을 막기 위해 윌리엄왕이 축조한 것으로서 원저성에 비해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 보수적이면서도 저력있는 국민성을 가진 영국, 다른 도시와 달리 포근한 느낌과 조용한 일면이 있는 런던을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이태리를 향했다.

로마의 중심지인 베네치아 광장의 정면에 세워진 빅토리오엠마누엘리2세 전쟁기념관은 통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서 일명 조국의 제단이라 불리운다. 조세피 사코니 작품으로 1911년 완공되었으며 신고전양식의 마지막 기념물로서 엠마누엘2세의 기마상이 있고 그 밑에 2차대전 무명용사 무덤이 있다. 광장 오른쪽의 베네치아궁은 르네상스 초기에 축조된 적벽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름은 교황청 베네치아공화국 사절단이 사용한 인콰로 유래되었으며

못솔리니정권때 그의 집무실로 쓰여졌으며 건물 발코니에서 2차대전 참전을 선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광장 오른쪽구석에는 기원후 110년경 건립된 가장 오래된 트리아누스 황제의 기념 원주가 서 있는데 다치아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투장면이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전쟁기념관 뒤편에 캄페리외 광장의 입구단계은 인간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하부보다 상부를 넓게 하였으며 언덕길을 올라오면 中央에 세나토레가 있다. 좌우가 부제와 콜셀바리의 건물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세나토레의 현관에서 초점이 이어진다. 전체를 통일된 조적 아래 구성하려는 미케란제료의 의도가 역역하며 광장을 넓게,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도록 2층까지 기둥을 올렸다. 세나토레 뒤편 언덕길으로 전개되어 있는 로마공화국의 유적지는 옛 로마의 전성시대를 보는것 같았다. 왼쪽에 셉티 마우스세베루스 황제 개선문 오른쪽에는 사투르노신전의 기둥 8개가 남은 유구가 보이고, 중앙에 개선문을 중심으로 있는 도로는 승전에 의한 당당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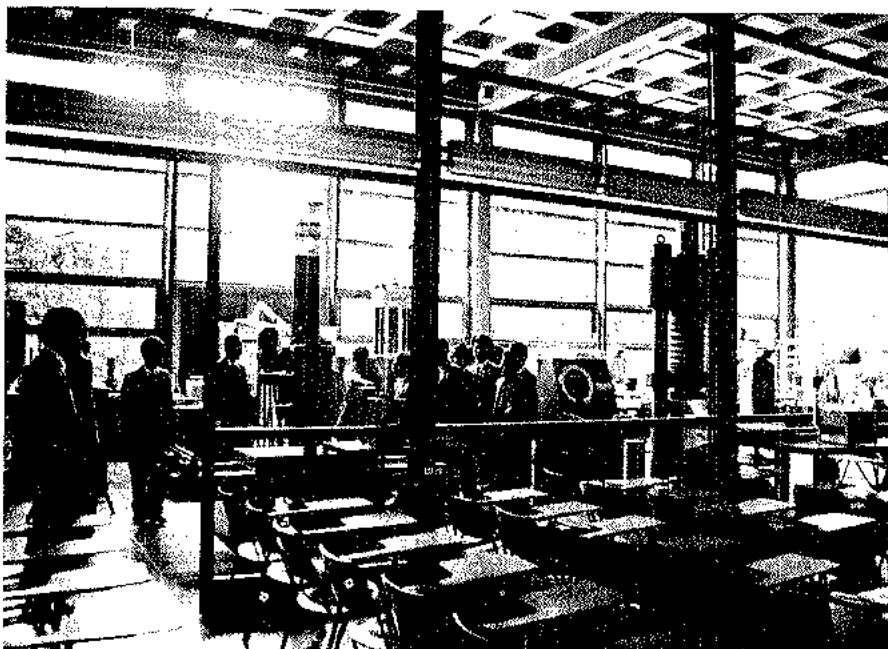
로마의 옛 영광. 콜로세움



독일 로펠라이해변의 주택



독일의 한 중고등학교 교실외부



푸랑크푸르트 독일전문대학 실습실 내부

엇볼 수 있었다.

콜로세움은 기원전 72년 베스파시아누스황제때 공사하기 시작하여 8년후 그의 아들인 티투스황제때 완성되었다. 고대 로마의 전형적인 투기장으로써 건축적 의미에서 뛰어난 비례감, 탁월한 구조로, 3종류의 기둥형식(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에 주로 아치를 사용한 구성법은 르네상스의 건축가들에 의해 규범화 되었으며, 고전적 건축언어의 대표작이다. 5만여의 관중을 수용할 관람석이 있으며, 외부 벽체의 돌위에 대리석을 돌붙임하였으나, 지금은 대리석을 붙인터만 있으며, 일부는 벽돌로 복원되어 있는 곳이 있었다. 성베드로성당은 초기 르네상스시대의 사상에서 떠나 건축을 감각적, 조각적으로 만들려는 미케란제로의 태도를 서구 세계 최대의 규모를 보여주는 로마 카톨릭의 총本山으로 수세기에 걸쳐 진행 건설되었지만 미케란제로의 부분은 높이 140m에 이르는 돔이 없던 내전 뿐이다. 그가 죽은 다음 그 모형에 따라 제자들이 완성하였으며 17세기에 회당부와 정면을 부가 했으며, 그뒤 베르니니가 타원형 광장과 그것을 둘러싸는 열주랑을 건조하여 지난날에 없었던 고대의 도시광장을 연상케 하였다. 성당내부는 배드로 무덤을 중심으로 십자형의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천정의 그림들은 작은대리석 조각을 착색시켜 모자이크 형식으로 완성한 거대한 작품이었다. 본당 오른쪽 구석의 미케란제로의 피에타(paeta)는 성당안의 조각품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성모마리아와 예수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폼페이(pompeii)로 가기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고속도로를 따라 남부지방으로 가면서 이번 시행에선 처음으로 산을 대하니 고향의 어느곳을 지나는 착각에 빠졌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폼페이로 향하는 길에 세계의 3대 미항중의 하나인 나폴리의 해변을 돌아 시내를 드라이브 할 수 있었다. 해변의 모습은 우리와 흡사하였고, 항구의 뒷

모습은 다쓰러져가는 아파트와 닮아 있는
빨래를 볼 수 있다.

폼페이는 A.D79년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에 의하여 도시 전체가 6m이상의
화산재에 의해 덮여 매몰된 도시였다.
1600년대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에는 도시의
반정도만 발굴되어 2000년전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당시에도 도로, 공공건물등
도시계획에 의해 건축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2000동의 주택과 그리스의
제우스신전, 로마의 주피터신전 형태가
있고, 법정, 종합상가, 환전소, 여관,
술집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목욕탕은
냉탕 및 온탕 뿐아니라 사우나까지 있어 그
당시의 사교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시조인 넓은 광장과 원로원이
있으며, 노천극장을 갖춘 완벽한 도시를
형성하고, 가정마다 급수 시설과 목욕탕 및
주택 현관입구 바닥에는 모자이크타일
형태의 특수한 문양의 대리석 조각을 깔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2000년전의 도시형태를 접할 수 있었다는데
큰 기쁨을 느꼈다.

이태리 다빈치공항을 출발하여 독일의
푸랑크프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첫
방문지인 햇센공업전문주립대학을
찾아갔다. 학장의 안내로 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및 실습동의 내부구조를
견학하였다. 그곳의 실습실은 중 2층으로
구성되어 1층중앙에 강의실, 실습실,
기계실등을 두고 상부를 open시켰으며,
교수 연구실은 상부(2층)에 두는 효과적인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도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체육관은 관리동 상부에
좁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학교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피테의
생가에 들렀다. 이 건물은 1733년경
마로크형식의 목조 4층건물이나 2층까지의
계단실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보존
과정에서 보수한 것 같았다.

다음날 기술중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건축한 학교건물을 볼 수 있었다. 구조적
형태는 PC조립식 건물 3층으로

구성되었으며, 현관홀은 장방형으로 동선이
각 교실및 특별교실로 연결되도록 계획했고,
기둥과 스라브만 현장 콘크리트시공하고
단계 및 벽체는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 바닥 마감은 카펫, 천정
벽체는 유공판 및 거친마감으로 방음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고, 홀이나
복도부분에서 창문이 없이 교실과 구획되고,
각 교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차음을 철저히
한 것 같으며, 외부창은 분할을 크게 하여
회전창 및 여닫이창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설비공간은 옥상층에 두어 냉온방
공기조화설비까지 완벽했으나,
교장선생님은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교실과
기계실을 지하에 두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체육관은 어느 학교나 학교
입구나 도로변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 운영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시행의 방문 학교의 안내자는
대학장, 교장선생님이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열쇠뭉치를 손수 들고 우리를

안내했다. 그분들의 적극적이고 소탈한
태도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대조적인것
같았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절벽위의 성들을
보면서 라인강의 즐거움을 따라 로렐라이
전설이 깃든 언덕을 향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을 끝으로 긴 여정의 막을
내리는 아쉬움과 한편 고국을 향한다는
기쁨으로 마음 설했다.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속에서 다녀 온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무한한 예술적인
가능성에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았다.

영국의 완고한 보수성, 프랑스의 개방적
보수성, 이탈리아의 탁월한 가능성, 독일의
발전적 근면성등 서로 다른 국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EC공동체 국가의 단결된
모습을 피부로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조상들의 역사적 유유 물들을 정성을 다해
아끼고 보존하여, 과거를 연구하는 끈질긴
힘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될것 같다.



독일기술고등학교 체육관 (P. C 공필)

1989년 6월분 도서신고 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7백29만3천4백16㎡보다 23.79% 증가(1백73만5천2백47㎡)한 9백2만8천6백6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1~6월분 합계한 전년누계 3천7백31만9천5백81㎡ 보다 31.48% 증가(1천1백74만8천2백26㎡)한 4천9백6만7천8백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지난 5월분 1천2만5천6백㎡ 보다 9.94% 감소(99만6천9백37㎡)한 9백2만8천6백63㎡의 실적을 보임.

全國圖書申告 木概況 (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

구	분	1988년도	198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583,649	1,804,394	220,745	13.94%
	대구지부	202,450	364,466	162,016	80.03%
	인천지부	770,905	1,011,747	240,842	31.24%
	광주지부	176,667	351,418	174,751	98.92%
	경기지부	1,209,087	1,241,209	32,122	2.66%
	강원지부	156,839	402,566	245,727	156.67%
	충북지부	170,295	520,858	350,563	205.86%
	전북지부	224,053	407,510	183,457	81.88%
	경북지부	536,410	690,176	153,757	28.66%
	경남지부	533,542	841,970	308,428	57.81%
	제주지부	54,919	128,147	73,228	133.34
	대전지부	0	271,264	271,264	ERR
감소지역	부산지역	524,593	519,393	5,200	-0.99%
	충남지부	717,704	269,067	-448,637	-62.51%
	전남지부	432,303	204,487	-227,816	-52.70%
합	계	7,293,416	9,028,663	1,735,247	23.79%

全國圖書申告 木概況

(연면적기준)

(단위 : ㎡)

종 별	'89년 5 월분	'89년 6 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453,254	1,077,246	-376,008	-25.87%
다 세 대 주 택	508,161	435,741	-72,420	-14.25%
연 립 주 택	297,895	284,992	-12,903	-4.33%
아 파 트	2,965,754	2,739,414	-226,340	-7.63%
근린생활시설	1,931,480	1,634,185	-297,295	-15.39%
종 교 시 설	96,197	73,333	-22,864	-23.77%
의 료 시 설	14,502	18,063	3,561	24.56%
교육연구시설	195,622	155,810	-39,812	-20.35%
업 무 시 설	830,499	1,062,042	231,543	27.88%
숙 박 시 설	248,200	119,860	-128,340	-51.71%
공 장	945,593	819,219	-126,374	-13.36%
기 타	538,443	608,758	70,315	13.06%
계	10,025,600	9,028,663	-996,937	-9.94%

*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6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지부별												
서울지부	2,585	2,657	1,762,629	133	135	41,765	0	0	0	2,718	2,792	1,804,394
부산지부	1,210	1,358	419,965	287	294	37,619	59	59	61,809	1,556	1,711	519,393
대구지부	709	741	312,796	696	710	38,172	43	43	13,498	1,448	1,494	364,466
인천지부	717	857	987,126	45	47	9,991	20	20	14,630	782	924	1,011,747
광주지부	423	451	325,221	97	106	21,952	15	15	4,245	535	572	351,418
대전지부	406	406	225,925	51	51	24,480	148	148	20,859	605	605	271,264
경기지부	2,375	2,573	1,077,293	245	263	138,938	60	60	24,978	2,680	2,896	1,241,209
강원지부	511	626	349,907	144	189	44,506	19	20	8,153	674	835	402,566
충북지부	625	748	470,949	115	143	37,941	40	50	11,968	780	941	520,858
충남지부	470	510	237,370	102	102	20,143	40	40	11,554	612	652	269,067
전북지부	364	453	358,781	94	103	43,703	13	13	5,026	471	569	407,510
전남지부	484	538	183,763	109	115	19,877	6	6	847	599	659	204,487
경북지부	773	874	519,860	224	245	157,729	23	23	12,578	1,020	1,142	690,167
경남지부	1,222	1,385	734,370	444	482	98,630	30	30	8,970	1,696	1,897	841,970
제주지부	232	257	121,054	52	52	7,093	0	0	0	284	309	128,147
합 계	13,106	14,434	8,087,009	2,838	3,037	742,539	516	527	199,115	16,460	17,998	9,028,66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月~6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8,943	19,293	9,481,500	865	882	281,158	0	0	0	19,808	20,175	9,762,658
부산지부	7,211	7,372	3,870,795	1,569	1,579	362,460	377	377	144,503	9,155	9,328	4,377,758
대구지부	4,111	4,308	1,669,914	2,494	2,577	290,074	227	227	98,356	6,832	7,112	2,058,344
인천지부	3,920	4,463	3,535,893	323	340	161,336	95	95	68,472	4,338	4,898	3,765,701
광주지부	2,367	2,572	1,393,750	554	581	92,082	85	85	34,816	3,006	3,238	1,520,648
대전지부	2,508	2,508	1,118,550	299	299	139,509	497	497	164,972	3,304	3,304	1,423,031
경기지부	14,992	15,997	6,614,285	1,516	1,684	1,046,075	343	343	192,112	16,851	18,024	7,852,472
강원지부	2,666	3,100	1,417,740	669	776	257,844	74	76	22,036	3,409	3,952	1,697,620
충북지부	3,581	4,198	1,851,474	716	925	253,559	177	254	44,948	4,474	5,377	2,149,981
충남지부	2,807	2,968	1,321,389	538	546	201,760	151	151	53,819	3,496	3,665	1,576,968
전북지부	2,181	2,520	1,580,771	546	596	188,835	117	118	31,586	2,844	3,234	1,801,192
전남지부	2,673	3,032	1,372,090	682	750	327,340	40	40	10,475	3,395	3,822	1,709,905
경북지부	4,291	5,021	2,832,928	1,225	1,352	785,649	152	152	77,355	5,668	6,525	3,695,932
경남지부	7,278	8,393	4,443,514	2,637	2,991	626,227	174	181	81,700	10,089	11,565	5,151,441
제주지부	1,146	1,277	488,439	212	212	35,717	0	0	0	1,358	1,489	524,156
합계	80,675	87,022	42,993,032	14,843	16,090	5,049,625	2,509	2,596	1,025,150	98,027	105,708	49,067,80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6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078	6,212	1,003,814	1,181	1,201	67,771	105	107	5,661	7,364	7,520	1,007,246
다세대주택	1,783	1,863	429,403	306	310	14,635	12	12	703	2,101	2,185	435,741
연립주택	113	188	283,842	1	1	1,150	0	0	0	114	189	284,992
아파트	233	749	2,724,117	14	15	6,036	9	9	9,261	256	773	2,739,414
근린생활시설	3,337	3,444	1,474,340	600	620	97,273	220	228	62,572	4,157	4,292	1,634,185
종교시설	97	107	53,140	42	48	17,130	5	5	3,063	144	160	73,333
의료시설	4	4	1,729	12	12	7,705	6	6	8,629	22	22	18,063
교육연구시설	30	40	88,259	49	55	55,022	16	16	12,529	95	111	155,810
업무시설	187	198	990,261	63	67	62,168	16	16	9,613	266	281	1,062,042
숙박시설	122	125	100,387	41	43	12,391	13	14	7,082	176	182	119,860
공장	404	635	521,297	207	291	274,313	40	40	23,609	651	966	819,219
기타	718	869	425,420	322	374	126,945	74	74	56,393	1,114	1,317	608,758
합계	13,106	14,434	8,087,009	2,838	3,037	742,539	516	527	199,115	16,460	17,998	9,028,663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월~6월)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0,569	41,333	6,911,835	6,323	6,471	435,529	467	471	23,360	47,359	48,275	7,374,724
다세대주택	9,355	9,619	2,165,953	1,359	1,370	71,997	86	86	98,615	10,800	11,075	2,336,565
연립주택	473	708	950,441	17	24	25,056	7	7	1,704	497	739	977,201
아파트	1,096	3,376	12,208,730	66	89	113,332	27	60	40,836	1,189	3,525	12,362,898
근린생활시설	20,536	20,798	9,551,574	3,091	3,166	657,494	1,094	1,107	344,772	24,721	25,071	10,553,840
종교시설	471	516	324,396	266	287	116,154	32	35	7,051	769	838	447,600
의료시설	48	55	67,749	54	57	41,687	12	12	13,727	114	124	123,163
교육연구시설	204	264	660,314	245	272	401,536	112	112	55,324	561	648	1,117,174
업무시설	869	903	3,773,384	310	334	242,559	54	57	34,607	1,233	1,294	4,050,550
숙박시설	869	964	1,148,458	202	211	97,193	60	66	56,943	1,131	1,241	1,302,594
공장	2,244	3,568	3,139,766	1,198	1,829	2,046,242	217	230	161,154	3,659	5,627	5,347,162
기타	3,941	4,918	2,090,433	1,712	1,980	796,846	341	353	187,057	5,994	7,251	3,074,336
합계	80,675	87,022	42,993,032	14,843	16,090	5,049,625	2,509	2,596	1,025,150	98,027	105,708	49,067,807

支部別 前年同月比 全國圖書申告 現況

구분 지부별	FY:1988년			FY:1989년			대 비			연 면 적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서울지부	2,068	2,224	1,583,649	2,718	2,792	1,804,394	650	568	220,745	14%	
부산지부	1,899	2,180	524,593	1,556	1,711	519,393	(343)	(469)	(5,200)	-1%	
대구지부	1,260	1,328	202,450	1,448	1,494	364,466	188	166	162,016	80%	
인천지부	513	565	770,905	782	924	1,011,747	269	359	240,842	31%	
광주지부	517	524	176,667	535	572	351,418	18	48	174,751	99%	
대전지부	0	0	0	605	605	271,264	605	605	271,264	***%	
경기지부	2,213	2,405	1,209,087	2,680	2,896	1,241,209	467	491	32,122	3%	
강원지부	539	606	156,839	674	835	402,566	135	229	245,727	157%	
충북지부	705	776	170,295	780	941	520,858	75	165	350,563	206%	
충남지부	1,176	-1,176	717,704	612	652	269,067	(564)	(524)	(448,637)	-63%	
전북지부	353	393	224,053	471	569	407,510	118	176	183,457+	82%	
전남지부	604	743	432,303	599	659	204,487	(5)	(84)	(227,816)	-53%	
경북지부	775	940	536,410	1,020	1,142	690,167	245	202	153,757	29%	
경남지부	1,830	2,124	533,542	1,696	1,897	841,970	(134)	(227)	308,428	58%	
제주지부	234	257	54,919	284	309	128,147	50	52	73,228	133%	
합계	14,686	16,241	7,293,416	16,460	17,998	9,028,663	1,774	1,757	1,735,247	24%	()=마이너스

支部別 前年 同期比 全國圖書申告 現況

구분 지부별	FY:1988년			FY:1989년			대 비			연 면 적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서울지부	17,498	18,111	8,343,718	19,808	20,175	9,762,658	2,310	2,064	1,418,940	17%	
부산지부	9,549	10,933	3,258,537	9,155	9,328	4,377,758	(394)	(1,605)	1,119,221	34%	
대구지부	7,381	7,948	1,809,521	6,832	7,112	2,058,344	(549)	(836)	248,823	14%	
인천지부	3,496	3,671	2,422,591	4,338	4,898	3,765,701	842	1,227	1,343,110	55%	
광주지부	2,750	2,864	1,165,746	3,006	3,238	1,520,648	256	374	354,902	30%	
대전지부	0	0	0	3,304	3,304	1,423,031	3,304	3,304	1,423,031	***%	
경기지부	14,597	15,658	6,854,624	16,851	18,024	7,852,472	2,254	2,366	997,848	15%	
강원지부	2,792	3,195	953,071	3,409	3,952	1,697,620	617	757	744,549	78%	
충북지부	3,473	3,870	1,322,211	4,474	5,377	2,149,981	1,001	1,507	827,770	63%	
충남지부	5,245	5,347	2,424,921	3,496	3,665	1,576,968	(1,749)	(1,682)	(847,953)	-35%	
전북지부	2,470	2,641	1,218,246	2,844	3,234	1,801,192	374	593	582,946	48%	
전남지부	3,154	3,695	1,352,593	3,395	3,822	1,709,905	241	127	357,312	26%	
경북지부	5,027	5,704	2,434,191	5,668	6,525	3,695,932	641	821	1,261,741	52%	
경남지부	10,064	11,811	5,431,901	10,089	11,565	5,151,441	25	(246)	1,719,540	50%	
제주지부	1,294	1,429	327,710	1,358	1,489	524,156	64	60	196,446	60%	
합계	88,790	96,877	37,319,581	98,027	105,708	49,067,807	9,237	8,831	11,748,226	31%	()=마이너스

李鍾寬회원 국민포장 수상



서울특별시지부소속 李鍾寬회원(한국전축사사무소)이 제26회 법의날을 기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李회원은 그동안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년선도위원회창으로서(81년 위촉), 미결수 소년범들과의 면담교화, 비행소년의 책임인수 선도, 우범지역 예방선도등을 통하여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종관회원은 수처에 걸쳐 성동구치소 청소년 재소자의 선도사업으로 방송기자재 설치, 도서실 설치운영, 녹화조경사업 실시를 하는 한편 불우재소자의 치료비 지원 및 출소학생 복교추진 및 장학금지급과 청소년 범죄연구분석 등의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영세상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재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이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만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등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점포와 주거가 함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란 점을 감안하여 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상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아울러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회의실·관리사무소등의 설치만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작업장·탁아소·가정의례용시설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현재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나 난방온도를 조정하는 장치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다. 현재에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의 대지에는 일정폭이상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대지에 2이상의 진입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도로의 폭의 합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각각의 도로의 폭

은 위의 일정폭에 미달되더라도 되도록 함(제14조제1항)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법인이 5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회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건설용대지를 확보하도록 함(제27조제3항).

마. 공동주택 대지안의 주차수요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 대지안의 주차장 기준을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함(제38조)

바. 공동주택 대지안의 노인정·의료시설·일반목욕장(목욕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는등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건설기준을 정함(제40조 및 제41조 및 별표8).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적용 제외) ①영 제3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영 제3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주택을 시장(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법률 제3,896호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복합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조·제22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0조제2항·제32조·제3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30조의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독신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2조·제24조·제24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중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폭 20미터 미만인 일반도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별표4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에 한한다.

1. 대피시설·체육시설·도서실·입주자 집회소·공동작업장·탁아소·노인정·관리사무소·주차시설·입주자의 취미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기타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2. 다음 각목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동 부표 제11항의 업무시설·동 부표 제13항의 판매시설 및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동물병원 및 장의사를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

역·특정가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공동주택

나. 시장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건설하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는 공동주택

3. 제34조의 판매시설로서 그 규모가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 대상에 미달하는 것.

4.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제4조제2항중 “제1항의 시설”을 “주택외의 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물전용승강기”를 “승강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벽체등의 구조)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터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터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 건설 시험소장이 차용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세대당”을 각각 “4세대당”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주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는 연탄 기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구분된 투입구 및 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각세대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상인 각세대(당해 대지안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상인 공동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미만인 세대를 포함한다)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현관밖의 벽체(계단실 또는 복도의 벽체를 말한다)”를 “현관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형단보도”를 “형단보도 및 건축물의 출입구 부분 등”으로 한다.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폭 대지안의 전체세대수	진입도로 가 1인 경우 의 도로폭 (미터)	폭 4미터이상인 진입도로가 2이 상인 경우 그중 2 개의 도로폭의 합계(미터)
300세대미만	6	—
300세대이상	8	12
500세대미만	12	16
500세대미만	18	22
1천세대미만		
1천세대이상		

제1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주민이 이용하

기에 편리한 위치에 공동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초과하는 500세대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이상, 다만, 1천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초과하는 1천세대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이상의 장애자유 공동전화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8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외에 3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당 0.05제곱 미터를 추가한 면적(이하 “추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도서실·입주자집회소·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6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의 위치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거나,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공동주택으로서 대지안에 탁아소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에는 탁아소·노인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도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은 당해 주택의 준공(법 제33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준공을 제외한다)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330제곱미터이상”을 “330제곱미터이상(시·군지역의 경우에는 22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영 별표4 제2호 다목에서 “건설부령의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특정기공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본문중 “의료시설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의료시설을”을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이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일반목욕장을 건축(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하여 그 시설을”을 “일반목욕장을 건축하여 이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500세대이상”을 “500세대 이상(독신자유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2면”을 “수영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 또는 정구장(세대장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핸드볼·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2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등인 경우로서 5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사회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의 사회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29조본문중 “지하저수조”를 “지하저수조(기술용역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0.1톤이상”을 “0.2톤이상(시·군지역의 경우에는 0.1톤이상)”으로, “저수조”를 “지하저수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이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

제31조본문중 “동별로”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판매장으로 한다”를 “판매장 및 그 부속용도인 시설(주차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판매시설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

용하는 바닥면적(주택 또는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주차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세대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의 규모 (세대당전용면적)	세대당 대수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수도권내 도시	기타 지역
60제곱미터이하	0.4	0.2	0.1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	0.6	0.4	0.2
85제곱미터초과			
115제곱미터이하	1.0	0.6	0.4
115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	1.5	1.0	0.6
150제곱미터초과	2.0	1.4	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의 규격·구조 및 차로의 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수해방지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내지경계선 주변의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곽부분을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그 띄우는 거리가 5미터(3층이하의 공동주택은 3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5미터(3층이하의 공동주택은 3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경사로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의 노인정·의료시설·일반목욕장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유효폭 1.35미터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입문·계단 및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제4호의 경우에는 1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출입구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출입문의 회전문일 때에는 따로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문을 설치할 것.
2. 출입구에는 문턱이나 단차이를 두지 아

니할 것.

3. 계단에는 난간 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바닥은 평탄하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4.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층에 장애자용대변기 및 소변기를 각 1개소이상 설치할 것.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변기 및 소변기의 양측에는 수직 및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장애자용 화장실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자용 공동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자 전용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경사로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의 층고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층고	2.5미터·2.6미터·2.7미터·2.8미터 또는 2.9미터
----	----------------------------------

[별표 1]의 천정의 높이의 기준척도란중 “2.3미터”를 “2.3미터 또는 2.4미터”로 하고, 동표의 거실의 기준척도란 및 침실의 기준척도란중 “30센티미터”를 각각 “30센티미터(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10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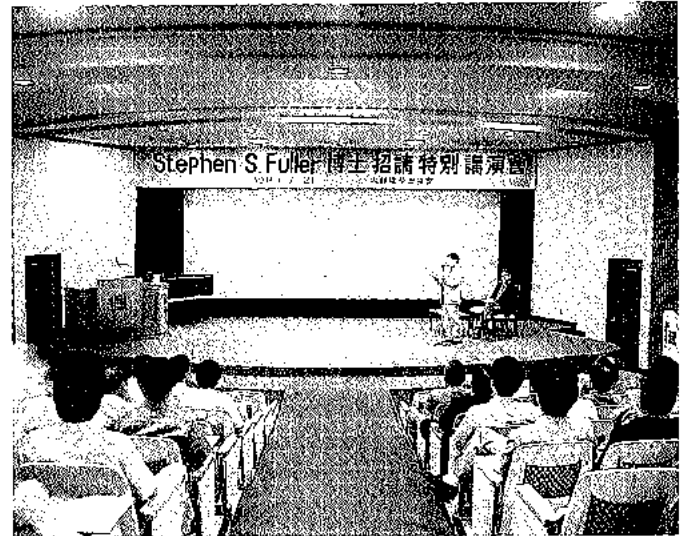
[별표 8] 장애자용 공동주택 시설기준 (제41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경 사 로	1. 장애자가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에 유효폭 1.35미터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와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되, 높이 0.75미터이하의 경사로는 기울기를 8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길이 10미터이내마다 휴식함을 두어야 한다.
출 입 문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서 문턱이나 단차이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승 강 기	1. 승강기 안팎에 장치되는 조작장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일반용 조작장치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승강기의 넓이는 1.5미터×1.5미터이상으로 하고,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승강기 밖의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새는 3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승강기 내부의 벽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 도	복도의 유효폭은 1.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복도의 양측에는 연속하여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등의 출입문과 실의 크기	1. 거실·침실·부엌·화장실 및 욕실등의 문의 유효폭은 0.85미터이상으로서 문턱이나 단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실·침실·부엌·화장실 및 욕실등 벽으로 구획된 모든 실의 크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욕실 및 세면장	1. 대변기의 양측에는 장애자가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욕조와 세면기 주위에는 장애자가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協會消息



▲제9회 이사회



▲Fuller박사초청 특별강연회

제9회 理事会 개최

본 협회 이사회가 宋基德 회장 주재로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0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순에 따라 전회 회의록승인,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 협의가 있었다. 주요안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案件: 여비규정개정(안)승인의 건
處理: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인상) 및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신실성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상의 항공임, 선박임의 2등 정액 하단에다 이코노믹크라스를 가로로 묶어 삽입키로 함.
- 案件: 예산편성위원회 운영규칙(안)승인의 건
處理: 조직에 있어서 각 시도지부 단위로 기본위원을 2인으로 하되 정회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지부는 100인 초과시마다 1인을 추가토록 되어 있는(안)을 3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로 수정승인코 기타는 일부 어귀 수정하여 승인함.
- 案件: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處理: 예산편성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위원선임은 위원장에 박성규이사, 부위원장에 조상호이사, 이사위원으로 우남용, 이종완 이사를 선임하고

- 지부별 배당위원은 각지도지부에서 선임 보고토록 하여 위촉키로 함
案件: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회원가입 승인의 건
處理: 회원가입을 승인함.

〈協議事項〉

- 案件: 건축위원회산하 분과위원회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쇄제작비 협의
處理: 실내디자인 분과위원회와 전통건축 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물 제작을 추진키로 하되 제작비는 건축위원장과 협의하여 조달방안을 결정하고 각 지부를 통하여 회원이 적극 보조토록 협조요청키로 함
- 案件: 총무분소 업무정지 및 분소회장 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협의.
處理: 업무정지 및 취임승인 취소토록 협의
案件: 건축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협의
處理: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내용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키로 함.

Stephen S. Fuller 박사 특별講演會

본 협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도시지역계획 학과장으로 재직중인 Stephen S. Fuller 박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업무중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회원, 교수, 학생등 건축관계인 다수가 참석하여 강연을 들은 후 현재 도심지의 주차문제, 도심지외곽의 도시형성과 기능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Fuller 박사는 도심지에 새로운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외지역(예: 청량리, 영등포)의 중심지역은 새로운 기능도입이 필요하다고 현실정을 설명한 후 2시간에 걸친 강연회를 마쳤다.

水災義損金 寄託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재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전해달라고 지난 8월 1일 각 사·도지부 3천2백여회원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1천6만5천5백원을 본 협회 宋基德회장이 한국일보사에 전달하고 수해복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부 건축민원업무 개선에 따른 간담회



▲부산지부 건축관계자 직무교육

서울特別市支部(會長 李永熙)

「건축민원업무」개선에 따른 간담회

서울特別市支部는 지난 7월 4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건축민원업무개선(안) 시행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지부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분소회장과 시청 건축지도과장, 22개 각 구청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구 임의 규제사항 배제, 도서검토내용 기재와 검토건축사 확인날인 요망, 건축설계 및 착공 현장조사 절차등의 내용이 중점 협의되었다.

또한 건축민원업무 개선(안) 22개 사항중 우선 즉시 시행될 4건과, 보완시행되어야 될 10건에 대하여 5월 15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 결과를 중간평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보완키로 하였다.

釜山直轄市支部(會長 金伸宰)

日 結緣支部訪問

釜山直轄市支部는 지난 5월 26일 부터 3박 4일 동안 「日本大阪縣 建築士會」 초청으로 日本을 방문하고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지부회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연수단이

구성되어 초청된 이번 방문에는 주요 건축물과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大阪縣 建築士會 총회에 참석하는 등 양국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建築關係者 職務教育 실시

釜山直轄市支部는 지난 6월 1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건축관계자 직무교육에 참석하여 건축관련법규 및 지침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있었다.

지부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235명과 건축사보 264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시부시장과 건축관계 공무원 101명도 함께 참석하여 건축행정 추진결의대회도 있었다.

大邱直轄市支部(會長 張基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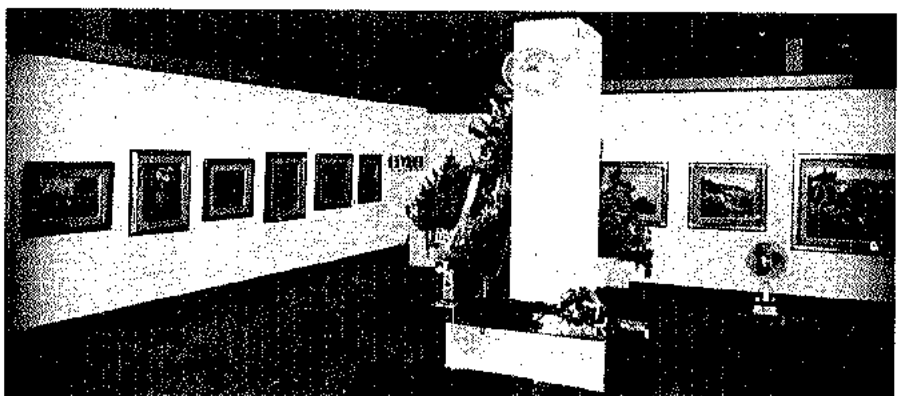
대구건축사 繪画部 作品展열어

大邱直轄市支部는 회원의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건축사회화부 작품전을 올해도 7월 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예맥화랑에서 전시회를 갖고 친목과 단합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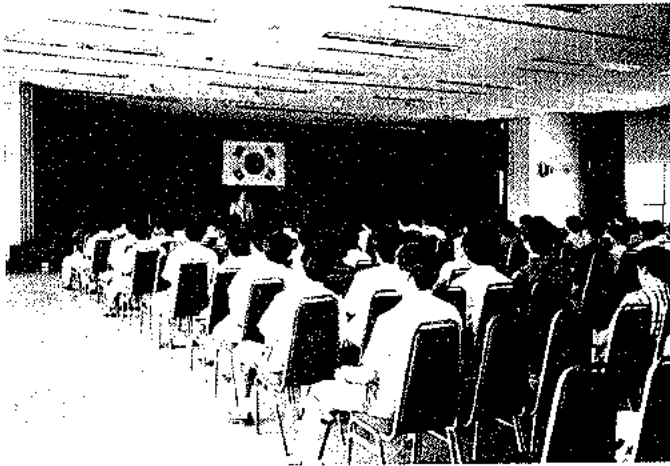
지난 84년 회화부가 창설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등 총 34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일반인의 많은 관람과 전문인의 좋은 반응속에 성대하게 전시되어 지역문화발전은 물론 회원의 창작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매년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개최될 본 전시회는 회화부와 서예부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화부에서 전시된 서양화 및 수채화는 총 200여점이 된다.



協會消息



▲경기지부 건축사보교육



▲전남지부건축사보교육

京畿道支部 (會長 李一潤)

建築士補 教育

京畿道支部는 지난 6. 19~7. 10 (기간중 11일간) 각분소 회의실 및 시·군 회의실에서 분소단위별로 건축사보 750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89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축사보의 대민관계 자세 및 설계, 감리업무 요령등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을 위한 정신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하였다. 또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원에게 교재 및 전자계산기 등을 지급하여 교육 성과를 높였다.

全羅南道支部 (會長 金仁模)

建築士補 教育

全羅南道支部는 지난 7월 6일 추선회관 5층 회의실에서 건축사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내 건축사보 및 보조원 82명이 참석한 이날 보수교육은 지부회장의 정신교육에 이어 건축관계법령, 건축관계 질의응답등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에 있어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교육이 있었다.

이외 도범 건축사보및 보조원에 대한 지부회장의 표창이 있었다.

濟州道支部 (會長 李世皖)

제 2 회 臨時總會 開催

濟州道支部는 지난 7월 21일 지부회의실에서 '89년도 제 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1시 10분에 개최된 이날 총회는 8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수지예산(안)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조사 및 감사대상 건축물의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대구지부 건축사회화부 작품전



▲제주지부 제 2 회 임시총회